가정교회 사역을 통한 믿음의 성숙에 관한 연구

A STUDY OF FAITH MATURITY BY FAMILY CHURCH ORGANIZATION

By

Song, Peter Byung Ki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Long Island City, New York

2012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monstration project entitled

가정교회 사역을 통한 믿음의 성숙에 관한 연구

A STUDY OF FAITH MATURITY BY FAMILY CHURCH ORGANIZATION

presented by

Song, Peter Byung Ki

has been accepted towards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____
Director for D. Min. Program's Signature

____
Academic Dean's Signature

May 2012

ABSTRACT

A STUDY OF FAITH MATURITY BY FAMILY CHURCH ORGANIZATION

By

Song, Peter Byung Ki

The Moak-Yang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was established 29 years ago. It started out with 13 members including myself. The church locates where many Korean residents were in New York city but lately more people started leaving than coming. The church thereupon had members leaving for reasons of moving out of town. During the time the church has new members but its growth remains stagnated due to having regular members moving out and new members not settled properly.

Therefore we changed the church system from 'section (Ku-yeok)' organization to 'cell church system,' and created small groups to support the church's growth and settlement. We configured small groups called 'Mok-Jang'(it means pastures) in each cell sector and decided to run 25 Mok-jangs. The purpose of organizing the Mok-jang is to train leaders of the church to have all members participate to support pastoral activities done in small groups where all members are a family of one with love and mutual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So in order to bring a new change, the Mok-jang were entrusted to those educated with "Life of living."

The role of each Mok-jang is to do the best raise any newcomer up to let him/her serve the Lord and not to lose a single newcomer, but to raise him capable of handling church's central work and to transform him into a believer adequate of faith reproduction. In that, those who take role of their work must

perceive absentees, give an visitation and report the situation to the church.

But many members could not manage these tasks well. Thus, pastors used to be the only ones who manage the churches. When pastors were absent, less people come to the service.

It was said that churches are losing members because they're not training them as believers. Churches should equip the saved and baptized not only with mature gospels, but also with proficiency of being spiritually active.

So our church decided to train newcomers, who came by influence of preaching and those that came by themselves to become members of the church, into Christ's disciples. The church committed to advance in using newcomers to be capable of training and raising disciples on their own. For this the church strived to become a church as a family, a church where shepherds run their own ministry, a church that is productive by conducting mission trainings.

So in the meantime the church created a systematic pastoral program to train and raise new believers in addition to making a department focused entirely on nurturing them, and emphasized through sermon and teaching to all the members about the importance of having newcomers in church.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and the small group is the important teaching method Jesus showed us. Church should welcome newcomers and treat them as a family. Not only that, but also enlighten them to reproduce other believers and complete their mission successfully, and also educate them to be active members of a church body.

The members of the early churches have been told of this word "Keep on loving one another as brothers and sisters. Do not forget to show hospitality to strangers, for by so doing some people have shown hospitality to angels without knowing it(Hebrews 13:1-2)." "Accept the one whose faith is weak, without

quarreling over disputable matters(Romans 14:1). Thus, church is supposed to preach the gospel to those unbelieving and make them into Christ's people that they would be trained as Jesus' disciples to be as salt and light of the world. In order to have this, original members of the church must show great interest to new families and by educating them they run activation of the church.

The consequence of our church strengthening small groups for new believers showed fruitfulness. The proportion of newcomers settling into our church rose from 25% to 52% and they consistently attend worship services. Training lay members of the church to be involved in ministry was a big help in activation of the church.

An important factor that helps newcomers settle in church is when church seeks its primary purpose. The members of the church began to recognize this. I realized that when church unites to save one soul, church members and its leaders realize that they're participating to build God's Kingdom. In those times the people are touched, and for new believers it's a good way to experience new life and have good response.

The church was renewed, by running the new family committee and lay leaders training class. Member's attention upon newcomers got deeper and they seemed to be full of vitality. One of the members of the session said that he felt worthwhile being involved in activating the church by participating in ministries of lay leaders. It was a great joy for the elders and members of the session to activate and revive the church by solving problems and attaining wisdom together. Through this I felt that a church is to be built together with others.

ACKNOWLEDGEMENTS

지금까지 38년간 목회를 하면서 내 목회를 정리하며 어떻게 목회를 하였나를 기록하려 했던 것이 논문의 시작이었다. 먼저 내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했던가? 다시 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향할 것을 다짐해 봤다. 그것이 가정 교회를 통한 영혼구원의 열정을 갖은 성도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라는 것이 가슴에 메아리쳤다.

그간 10년이나 지연되었던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지도해 주신 백창건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나를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위하여 항상 목양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같은 교회에서 30년을 언제나 말없이 기도해주시며 도와주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시무 장로님 최판명 김기환 최원진 정연오 안동희 장로님들과 목자 목녀 50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힘들고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가정교회를 통하여 영혼구원의 열정을 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며 기도하시며 성도의 사면을 다해주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남은 목회기간에 가정 교회를 통하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구원에 앞장 서시게 될 것을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목양의 교우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 하셔서 천사도 흠모하는 하늘의 복이 넘치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을 가득하게 받게 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전통적인 교회를 가정 교회로 전환시켜 영혼구원으로 소망이 가득한 교회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목양교회가 가정 교회로 말미암아 영혼구원에 앞장서는 교회로 나가도록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2년 5월 아름다운 롱아일랜드에서

송병기 목사

TABLE OF CONTENTS

I. 문제의 제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소원하고 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의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에 오면 영어가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왔으나 이십 년이 지나도 영어를 구사한 다는 것은 쉽지가 안았다. 필자가 뉴욕에 온 것은 1982년 5월이었다. 목회자를 구한 다는 곳에 이력서를 내었지만 영어를 구사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청빙이 거절되어 갈 목회지가 없었다. 그래서 이민 온지 1년이 되었을 때 교회를 개척할 수 밖에 없어 가족과 함께 12명이 시작한 것이 본 교회의 출발이다. 한국말은 사용하는 민족적인 교회로 출발하고자 하여 한국의 삼일절을 기념하여 1983년 3월 첫 주일에 창립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며 초등학교 5학년이 지나면 어른들과 함께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며 한국어 설교를 듣게 하는 것을 지금까지 전통으로 지켜왔다. 29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에 교회는 성장을 해왔지만 목회자 중심의 교회로서 진행되어 왔고 여러 사유로 인한 목회자의 출타는 교회의 일상 활동마저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담당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가에 대하여 많은 시도를 하는 중에 소그룹을 강화하여 소그룹들이 가정 교회와 같이 각기 역할을 담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본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고자 한다.

1. 교회의 현재 상황

1) 지역적 배경

본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뉴욕 시의 5개 행정 구역 중에 하나인 Queens

지역의 Long Island City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의 교회 주소는 세 번째로 옮긴 곳이다.

처음에는 Queens Blvd 61 St. 의 150 Square Ft. 정도 되는 작은 곳에서 출발했다. 개척하고 5년이 되었을 때 장소를 옮겨야만 했다. 그래서 가정집을 사서 수리하여 교회로 꾸며 갔다. 그곳에서 100 여명의 성도가 회집될 때 장소가 협소하여 지금의 장소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Elmhurst, Jackson Height Woodside, Sunyside 등 이 지역은 비교적 한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이사를 가서 한국 마켓이 줄어들고 있다.

Queens지역의 한인 거주 분포는 69,718명의 한인 전체 인구 중에 Queens가 49,088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있다. Brooklyn은 6,608명으로 9.5%, Manhanttan은 6,183명으로 8.9%, Bronx는 4,809명으로 7.0%, Staten Island는 2,931명으로 4.2%를 나타내고 있다.[1] 뉴욕 시 5개 행정 지역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 곳은 도시 중에서 세계의 상업에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Manhattan의 중심에 가장 가까이 접하여 있다. 그래서 처음 이민 온 사람들이 직장이 대부분 Manhattan이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다. 그러나 요즈음 미국의 이민 정책의 변화로 한국의 이민들이 많이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인들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이나 삶의 여유가 생기면 교회에 등록을 하여 잘 성장해 나가다가 5~6년이 지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그 이유는 자녀들의 학군 문제와 미국의 산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의 생활을 누려보고자 하는 이유에서이다. 백인들이 많이 살고 복잡하지 않고 좀 더 한가하고 사람들이 다소 붐비지 않는 한적한 곳인 Long Island나 New Jersey 등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그러한 곳으로 이주를 많이 한다. 교인 주소록을 발간하여도 매년 1/3 이상이 이사를 가게 되어 교인 주소록의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사를 가면 대략 일년 정도는 체면상이나 친구 관계로 교회에 나오지만 이사한 곳에 정착되어 안정을 찾으면 더 이상 먼 곳인 본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

---

[1]한국 외무부, *해외동포 현황보고서,* 1994. 9.19.

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교회에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New York과 New Jersey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너다닐 때 통행료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2] 교인들의 평균 노동 시간은 이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하루에 13~14시간을 일한다. 이렇게 힘들게 살기 때문에 주일 외에 다른 날 모이는 것은 너무 힘들다. 그래도 매 주일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고 또한 방문을 하여 교회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교회를 샤핑(shopping)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새 교인들이 등록을 하지만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교회의 정식회원들도 이사를 가곤하여 교회의 성장이나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소그룹을 활성화하여 교회정착과 성장에 도움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그룹을 결속하기 위해 가정교회의 방식을 접목하여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바꾸어 그 구역 이름을 목장으로 변경하고 25개의 목장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2) 교인 구성원

현재 총 재적인원은 700명 정도가 된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530여명이다. 교회학교 출석인원은 중고등학생들 80여명과 유년부 학생들 70여명으로 150여명이 된다. 성인 여자 교인이 남자 교인들의 2배 가량 되며 성인 출석은 380여명이 예배를 드린다. 교인의 재석 중에서 주일에 결석하는 사람들은 150~180명 정도이다.

본 교회에는 교역자로 목사 4명과 전도사 2명이 시무하고 있으며 시무장로 5인과 원로장로 1인 시무 권사 5명과 명예권사 10명과 안수집사 3명, 서리집사 1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장 편성은 5개 초원으로 하여 각 초원에 5개의 목장으로 구성했다. 25개의 목장에 목자와 목녀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목원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먼저 기본적인 성경공부인 "생명의 삶"을 수강하게 하고 목장에서 전도에 최선을 다하며 새로운 등록자가 있으면 목장에서 책임지고 양육과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본 교회에서는 장로 5명과 그 아내들과 안수집사 5명 권사 5명, 또 훈련받은

[2]George Washington Bridge $7.00과 Tri Boro Bridge $4.00 왕복 $18.00 이다.

집사들로 목자와 목녀를 임명했고 장로 5분은 초원지기로 목자들을 돌보는 일을 맡겼다. 목회자가 원하는 것은 목들의 출결 상황과 결석한 신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 원인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인관리 프로그램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목회자로 하여금 교인들의 상황을 파악하도록 돕는 작은 목회자라고 강조하였다. 그 후에 몇 초원지기와 목자들만 보고할 뿐 나머지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인이 담임 목회자로서 무관심하게 내어버려 두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초원지기나 목자 목녀들의 활동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그들의 활동이 둔화된 것이다. 목장 활동는 한 주에 한번 씩을 꼭 예배를 드리도록 했지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목장 예배를 한 달에 한번을 드리는 곳도 있고 아예 목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곳도 있다.

뉴욕의 교우들의 상황은 아침 8시에 출근하였다가 오후 9시나 되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목장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들도 적은 형편이다.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고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은 25% 정도가 출석한다. 교회에 등록하는 교인은 많은데 남는 사람들이 적다. 거의 한 주에 1~2가정 50여 가정이 등록된다. 약 135여 명이 등록을 하는 데 정착한 사람들의 가정들을 보면 10~15% 정도 정착한다. 이들이 정착하는 비율이 적은 것은 이 지역이 잠시 머물고 가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기존 성도들의 새 신자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교회의 시설은 1만 스퀴어 피트 평방에 한 4000 스퀘어 피트 평방을 예배실로 만들었고 5000 스퀘어 피트 평방을 친교실과 어린이들의 예배실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일은 대단히 복잡한 형편이다. 각 부서에서 방을 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그 요구대로 응할 수 없는 형편이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8000 스퀘어 피트 평방 정도가 되어 약 50대 정도를 파킹할 수 있다. 교인들이 타고 오는 150대 정도의 차를 주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주변에 공용주차장이 있으나 그곳에는 교우들이 주차하기를 싫어한다. 새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주차의 문제가 어렵고 불편한 곳이다. 이처럼 교인들이 새 신자들을 인도를 많이 해와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24% 미만 밖에 안되며 새 교우들이 늘어나는 것에 목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새로 오는 새 신자들이 교회의 중심에 들어서지 못하고 겉돈다. 목장에 참여하지 않고 목장과 별개로 교회생활을 한다. 이러한 교회를 그리스도 중심

으로 바꿔나가는 방법을 모색한다.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새 교우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배려로 교회 성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교회의 현재 상황

본 필자는 29년을 뉴욕의 목양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였지만 등록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수는 20%정도 남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교회의 교우들은 한 해 30%가 이사한다. 뉴욕의 시내 생활이 한가롭지 못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이다. 이사간 성도 중에 교회에 계속 다니는 사람들은 50%정도가 된다. 그러므로 700명의 30%인 210명이 이사를 가고 계속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105명이 된다. 따라서 한 해에 105명 이상이 등록을 하여야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등록한 가정 수는 1998년 28가구 92명, 1999년 41 가구 154명, 2000년 34가구 123명, 2001년 33가구 134명, 2002년 49가구 196명이 등록하였다. 지난 5년 등록한 평균 인원은 139명이며 남아있는 교인들은 24명이 된다. 등록하여 새 교우들이 되는 139명과 이사 가서 안 나오는 인원 105명을 빼면 매년 34명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등록한 새 교우들이 24% 정도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동적인 교인들에게 능동적인 교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늘 고민되어왔다. 또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믿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왔다. 나의 목회의 문제는 사람들을 끌어드리는 은사는 있으나 그 들어온 사람들을 계속하여 양육 시키지 못하는데 있다.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10년을 계획하여 활성화된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오는데 도중에 그만 신앙생활을 포기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에서 신자들을 양육하지 않게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다.[3] 교회에 나

---

[3]Waylon B Moore,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정학봉 역 (서울: 요르단 출판사 1979), 8.

와 세례 받고 구원 받은 사람들을 성숙시키는 복음으로 무장시킬 뿐 아니라 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인들로 무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교구와 구역을 나누어 교구장 혹은 구역장으로 임명을 하였지만 그들을 훈련을 시키거나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하도록 밀지를 못했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교인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생명의 삶"을 교육 받은 사람에 한하여 목장을 맡기기로 했다. 조직에는 규정은 없으나 목장을 조직하는 목적은 교인 상호간에 정보 교환과 교회의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는 소그룹으로 목회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 교우들이 참여하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있다.

본 교회가 추구하는 가정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새 신자가 들어 오면 한 사람도 잃지 말고 그들로 본 교회의 중추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고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신자로 만드는 일이다. 그 중에 자신의 일을 담당한다는 사람들의 봉사는 결석자 파악과 그 교우들을 심방하는 일과 교회에 상황을 보고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일들을 잘 담당하는 제직들이 많지 않다. 먼저 교회에 다녀 집사와 권사 장로의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에 맡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담당치 못한다. 그래서 목자와 목녀를 두어 그들로 목장 안에 일들을 돌보게 했다. 그러나 결석자가 생겨도 전화도 하지 못한다.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하던지 전도가 되어 와도 직분자(장로, 권사, 집사)들이 그들을 환영해 주는 교회의 안내자로서 역할을 담당치 못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우면 그만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줄어든다. 직분자들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왜 교회의 교인들과 구역장들과 제직들이 그들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재생산을 하지 못하는가를 연구하여 교회의 활성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다. 장로와 권사, 집사들을 세우며 역할을 맡겼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그들을 훈련시키지 못하였던 것이다.

2. 목표와 목적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즉 지체 의식을 갖는 공동체"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4] 예수께서 분부하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

[4]고린도전서 12:12-27.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5] 지상의 대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본 교회는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여 믿게 된 새 신자들과 그들 스스로 찾아와 교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새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과 이들을 통하여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로 전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본 교회가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고자 한다.

1) 가족 같은 교회

교회의 등록한 교인들은 다양한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수준의 교인들을 잘 양육하여 목장의 일원으로 만들고 교회의 활성화의 일군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자의 역할이다. 그러기 위하여 목자는 새 교우들과 기존 교우들이 한 가족으로 사랑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사역을 담당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교인 상호 간의 교제는 믿음을 나누고 삶의 방법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이어서 서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가시켜주고 봉사 의욕을 일으켜 주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변형시켜준다" 고 지적했다.[6] 이와 같은 섬기는 교회로 되기 위해 새 신자들의 정착과 기존 신자들의 관계를 가족 같은 교회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2) 목장의 활성화를 위한 목자들이 스스로 사역하는 교회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양육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새 신자가 오면 반드시 구역에 소속된다. 소속된 새 신자를 목자가 돌보고 양육 시켜야만 한다.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

[5]마태복음 28:19-20.

[6]James N. Poling, *교역실천론*, 박근원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7), 9-10.

때 교회의 어느 구석이든지 역동적이고 생산 적인 교회가 된다. 이러한 사역을 담당하도록 훈련하고 양육하여야 한다. 새 신자들을 구역에 참여시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초원지기, 목자와 목녀(목자를 돕는 사람, 그 부인을 말한다)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훈련시켜 새 신자 정착을 통한 활성화를 이루기를 원한다.

3) 전도 훈련을 통한 생산적인 교회

교회는 새 신자를 양육하며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생산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교육을 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재 생산은 교회 활성화에 중요한 것이다. 자신 하나 그리스도를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러한 짐을 지워주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교육을 통하여 반드시 교회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이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는데 이번 논문의 주제로 삼은 것이다. 새 신자 정착과 양육을 위한 전 교인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교회가 활성화되고 가족 같은 교회, 전도하여 활성화된 교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둔다.

4) 새신자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본 교회가 위와 같은 이상을 실현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장애 요소가 있다. 그중의 하나는 새신자를 정착 시키고 양육하는 체계적인 목회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다.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을 때 새 신자들은 교회의 예배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교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때까지 그들에게 관심과 자연스럽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역자가 등록한 사람들을 심방하고 구역에 초청하고 목원(목장의 가족들)들과 관계를 갖도록 하지만 새 신자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24%정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이다. 교회에 정착 시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5) 새신자 양육 부서의 설치

본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새 신자를 전적으로 맡아 양육을 시키는 부서가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 교회는 새 신자가 등록을 하면 바로 교구에 소속되어서 목자에게 인도되었다. 새 신자 입장에서 보면 당혹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새 신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교회에 대한 이해나 본 교회에 대한 소개도 없었다. 따라서 새 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새 신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양육하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새 신자부가 있어서 활동을 한다면 새 신자들이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6) 새신자에 대한 이해의 증진

그간에 목회자와 기존 신자들의 이해 부족하였다. 새 신자를 인도하여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기존 교인들은 이해를 해야 한다. 한번도 인도하지 못하고 혼자 대부분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면서 새로 나오는 교인들에 대해 무관심하다. 새 신자가 온다고 하면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반드시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교회의 분위기가 되도록 이해가 되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다면 목회자 필자가 새 가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부족이었다. 필자는 설교로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해결하려는 것으로 목회자의 이해가 부족했다. 그리고 초원지기와 목자와 목녀가 새로운 가족에 대한 사명 의식의 이해부족이다

목자가 새로 편입된 목원들을 보살피며 새로 온 신자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기존 신자들과 연합을 이루어 교회의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전 교인들이 소그룹의 중요성을 알지 못함이었다.

구역의 모임은 소그룹으로 형성한다. 4-6가구를 한 목장으로 만들어 소그룹을 이루어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려 하지만 교우들의 견해에 소그룹이 얼마나 교회 활성에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

목장이 봉사활동의 터전이 되지 못한 점이다. 교회가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봉사와 헌신의 무관함과 구역이 교회의 활성화와 성장에 주춧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전한다.

II.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1. 교회의 성서적 의미

1) 구약성서의 교회 개념

구약에서의 교회를 가리키는 두 명사는 카할(קָהָל)과 에다(עֵדָה)가 사용되었다. 카할은 ‘부른다', '소집한다'를 의미하는 카할에서 왔다. 그러므로 카할은 '집회'나 '회중'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 회(會)에 적용되었다. 특히 카알은 '하나님의 집회'를 가리키는 엄숙한 표현으로 사용 하였다.[7]

그리고 에다는 니팔에서 ‘지정된 처소에서나 혹은 지정에 의해 모이는 것’과 ‘지정된 때와 처소에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어근 야아드(יָעַד)서 인출되었다. 그러므로 에다는 '집회'나 '회중'을 의미했다.[8]

구약에서 카할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게 쓰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을 때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을 말한 경우이다(신 4:0, 9:10, 10:4, 8:6).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를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며,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계약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다.[9] 따라서 ”카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카할과 에다는 The Septuagint의 처음부분에서 다 같이 공회를 의미하는 말로 번역되었으나 나중부분에 있어서 카할은 에클레시아로 번역된 반면, 에다는 쉬나고게라는 말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에다는 유대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나 건물 즉 회당을 의미하게 되었다.[10] 영속하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임이

---

[7]Hans Küng,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 이종한 역 (경북: 분도출판사, 2005), 122.

[8]김원태, *교회의 교육적 사명* (서울: 종로서적, 1987). 11.

[9]이종성, *교회론*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8), 39

거듭 되풀이 되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공동체'란 추상적인 조직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모이는 사람들의 단체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교회'는 포괄적인 구성원들의 모임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구약에서 회중 모임의 의미로 사용된 카알과 에다를 신약의 에클레시아와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으나 신약에서의 교회는 the Septuagint에서 카알은 주로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불러낸다)로 번역되었으며 100회 사용되었다. 그리고 에다는 보통 '쉬나고게'(συναγωγή, 가져온다 혹은 함께 온다)로 번역되었으나 종종 카알을 쉬나고게로 번역하기도 했다.[11] 쉬나고게는 유대인의 종교 집회나 혹은 그들이 공 예배를 위하여 집회하는 건물을 가리켜 독점적으로 사용되었다(마 4:23, 행 13:43, 계 2:9, 3:9). 그러나 에클레시아라는 명사는 일반적으로 신약교회를 지시하고 다만 몇 구절에서 보통 세속적 회합을 의미하였다.[12]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하여 Hans Küng은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 자체라고 말한다.[13]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교회를 개인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은 상호 의존관계를 지닌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속에서 영적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

2) 신약성서의 교회 개념

신약성서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말에는 ἐκκλησία(에클레시아)와 συναγωγή(쉬나고게)가 있다. ἐκκλησία는 구약의 קָהָל 을 번역한 말로서 '대중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백성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반면 συναγωγή 는 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모임과 장소를 의미한다.[14]

---

[10]Ibid., 45.

[11]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 2001), 23.

[12]이종성, 51.

[13]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8), 117.

[14]Ibid., 45.

ἐκκλησία의 성경적 용례는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16:18과 18:17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었고 사도행전에서는 23회, 바울 서신에서는 46회 사용되었다. ἐκκλησία가 신약에서 사용된 용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 속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리키며 '의논하기 위해 소집된 공동체'란 뜻을 담고 있다. 이것은 먼저 회합의 의미로서 흔히 특정한 회중이 기도와 가르침, 협의 등을 위해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행 1:26, 12:5, 고전 11:18, 14:4-5:9, 28, 34-35, 골 4:16). 둘째, 신도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는 한 가정일 수 있고(롬 16:5 골 4:15 몬 1:2), 한 성읍이기도 하며(행 8:1-2, 11:22, 롬 6:1, 고전 1:2, 고후 1:1), 지방일 수 있다(갈 1:2, 22, 살전 2:14). 셋째, 교회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으신 공동체를 말한다. 공동체는 소집한 자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하나님의 에클에시아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집한 통일체를 의미한다(행 20:28, 고전 1:2, 10:32, 1:16, 22, 15:9, 고후 1:1, 갈 1:3, 살전 2:14, 살후 1:4, 딤전 3:5, 15).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롬 16:16, 갈 1:22)라는 구절, 혹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살전 1:1, 살후 1:1)라는 표현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단일체임을 뜻한다.[15]

Karl Barth는 קָהָל 과 ἐκκλησία의 의미를 설명하며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위해서 세움을 입었고 다시 그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야만 할 존재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는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ἐκκλησία이면서 동시에 사명받은 공동체로서의 디아스포라'이다.[16]

끝으로 에클레시아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그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 약속된 메시야이다. 따라서 그가 백성을 모으시므로 에클레시아는 결정적인 종국성을 갖는다.

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

[15]김원태, 12.

[16]Colin Williams, *The Church* (Philadelphia: Westminister Press, 1968), 13.

(1) 한 유기체로서의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17] 헬라어가 말하는 몸은 "σομα"인데 이 말은 "σ ομξ"(육)이라는 말과 엄격히 구분된다. 이 말은 모양, 형태, 인격을 모두 포함한다. 즉 몸은 전체적인 "인간", "인격"을 말한다. 바울은 이러한 몸의 개념을 은유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에 적용시켰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비유 중 '몸'의 비유를 사용했다. 이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나타내며 공동체의 특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유기체로서 성장과 일치, 은사의 다양성을 이루어 갈 때 성장할 수 있다.또한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구절들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12:21-3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으로 고린도전서 6:15-20, 성례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10:16-17, 11:29에 더 확대되어 나타난다.[18] 바울은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 몸을 왜 교회라고 부르는가에 대하여 몇 가지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우선적 의미는 그것이 신자 상호간의 통일성과 다양성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사실 속에 발견되어지는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것이다(롬 12:5, 고전 12:12-27).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은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배제하고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내에 거주한다거나 성령이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연합을 형성시켜 준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또 '많은 사람' '지체'들이 하나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께 공동으로 속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부르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부른다.

---

[17]고전 12:2.

[18]Edmund P. Clowney, *교회*, 황영철 역 (서울: IVP, 1999). 76.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에 근거한 영적인 존재 양식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The Body and Part of Christ"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을 주의해야 한다. 그는 더 이상 그 자신의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와 깊이 연관된 존재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신자들, 그리고 신자들과 신자들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말해 주며, 몸의 모든 부분이 사랑의 권능으로 함께 짜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요구하는데 고린도전서 12-14장에서 두드러진다. 각 지체의 은사가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각 지체는 이 은사를 전체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겸손함을 알아야 한다. 교회의 신자들은 다른 신자들의 고난과 고통을 같이 아파하는 사랑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교회의 성격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19]

또한 지체로서의 신자들은 그들 각자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 공동체는 세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의 죽은 몸과 부활한 산 몸에 참여한다. 그의 몸을 이루는 자들은 그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율법, 죄,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다(롬 6-8장; 엡 2:10 골 2:16-23).

그리스도 몸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 안에서 활동하신 것 과 같이 교회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 장소라는 것이다(엡 1:22-23). 이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본질성과 성도의 불가분적 연합성을 나타내는 말이다.[20]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를 머리와 지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21]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골 1:18), 신자들은 그의 몸의 지체들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상은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신자들 상호간의 연결 관계를 말해준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조직(organization)임과 동시에 유기체(organism)인 것이다.[22]

---

[19]Ibid,, 49.

[20]김현진, 33.

[21]이종성, *교회론 I*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40.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비유가 보여주는 최대의 교훈은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의 영적인 연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와 연합된 신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게 된다(골 2:19).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골 1:18)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해야 한다.

Hans Küng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성만찬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자기 본연의 존재적 의미를 갖게 된다. 여기서 교회는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가장 깊은 친교에 이른다. 이 식사는 기념과 감사와 교제의 식사이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감사하며 교제하는 공동체이다. 이 식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친교뿐만 아니라 신자 상호간에도 친교가 일어난다.[23] 그리고 J. Moltmann은 친교적 공동체를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교회의 회중이 친교와 우정으로 그 밑바탕에 기초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과 성례전, 신앙고백과 모든 제도 속의 관계는 생명력을 잃을 것이라고 하였다.[24]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믿음으로 먹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주의 만찬에서 몸으로서의 공동체가 구체화된다.

따라서 참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는 곳이나 분열이 있는 곳, 어떤 사람은 주리고 어떤 사람은 취해 있으며 아무도 남을 기다리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는 진정한 식사의 친교가 이루어 질 수 없고 진정한 주의 만찬이 있을 수 없다고 큉은 말한다.[25]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한다. 구원의 전 과정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연합의 결과이다.[26]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의 지체로서 유기적인관계를 지닌다. 유기체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다.

---

[22]Ibid., 52.

[23]Hans Küng, Ibid., 145.

[24]Jü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랑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8), 333.

[25]Hans Küng, Ibid., 147.

[26]Edmund P. Clowney, 29.

교회가 몸으로서 갖는 특징은 진정한 교제에 있다. 몸의 구조상 몸은 각 지체 간에 유기적으로 통합(고전 12:27)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의 유기적인 통합과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개인들 간의 상호관계는 매우 중요하다.[27]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 한 몸이 되었다(고전 12:13).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이 몸을 통해 일하신다.[28] 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지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야 한다.

(2)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되신다. 머리는 권위의 근원과 소재지가 되며 몸 전체가 영광을 돌리고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확신의 표현이다(골 2:10). 머리는 신적인 생명과 영광이 몸으로 흘러들어 오는 통로가 된다(엡 1:22ff). 그리스도는 그 머리로써 몸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 사랑 안에서 몸이 자라는 것은 머리에서 기인하며 머리를 향해 자라는 것이다(엡 4:15). 그런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를 만유의 머리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몸 사상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전 역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John Calvin은 에베소서의 4장 4절의 '몸이 하나이요'라는 주석에서 "이 말씀은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 바울의 논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한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 모두 한 기업, 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한다.[29]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두 서신은 모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되심을 말한다(엡 1:22, 골 1:18). 그리스도가 머리되심은 그리스도 자신에 대하여 어떤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준다. 즉 머리는 그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듯, 그리스도도 교회와 함께 완전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는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교회의 통일성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

---

[27]Robert John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사상*, 장동수 역 (서울: 여수룬, 1981), 57-58.

[28]옥한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서울: 국제 제자훈련원, 2004), 28.

[29]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of Paul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6), 268.

는 반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입장을 문제로 삼고 있다.[30]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또 만물의 머리로서 그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주어졌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엡 1:22-23).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은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와 밀접하게 – 머리와 몸과의 관계로 - 연결되어서 넓으신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심을 의미한다. 또한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머리되심은 고린도전서 11:3에서 “모든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전제 아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신다면 역시 그가 교회의 머리되심도 같은 원리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결론 속에서 그의 몸인 교회는 만물의 머리로서 특히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있다(골 1:18, 엡 4:15이하, 골 2:10, 19). 몸된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살아가게도 하시며, 자라가게도 하신다(골 2:19, 엡 4:15-16).[31]

또한 ‘머리됨’이란 통치권과 권위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 어느 영역에 있든지 그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야할 당위성이 있다. 이런 유기체적인 관계에서 몸과 머리와의 관계는 통치권과 권위의 위치로서의 머리를 통하여 몸의 성장이 있게 되며 보살핌과 사랑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머리’라는 개념은 인간 공동체의 구조와 관계로부터 이해되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머리’는 처음이라는 지위에 있어서 혹은 그의 독특하고 결정적인 활동에 의해 현저하고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바로 이런 대표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이시며, 또 ‘교회의 머리’시라는 표현을 이해하여야 되며 그는 교회와 만물을 계속 통치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영적인 의미의 계속적인 교제도 이런 머리됨과 연결이 되어 있다.[32] 그러므로 제자훈련의 결과로 신자들에게 나타날 것은 다름 아닌 머리에 대한 더욱 깊은 순종과 결합이라 할 수 있다.

---

[30]이종성, 79.

[31]Ibid., 80.

[32]Ibid., 81.

(3) 교회의 통일성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과 조화를 표현하며 개개인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에로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이다. 그들이 지닌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육신, 죽음, 부활에 의해 그의 몸 안에서 인류 전체에 대한 죄와 죽음의 독재를 멸절하셨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 안에서 그를 통해 하나가 된 자들과 관계하고 있다. 그들은 그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형성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로 인해서 생명을 가지고, 통일을 이루고 성장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σομα X ριστον)으로서의 교회는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이다. 만일 어느 한 개인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는다면 그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근거에서 우리는 형제로서 서로 서로 교제를 나눈다.[33]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나타난 교회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바울이 사용한 말이다. 이 말을 통하여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 사업과는 분리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머리와 몸을 움직이는 지체들 사이에 기능적 구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고전12장).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이나 정신이 몸 속에 들어와 거주하다가 떠난다거나, 또는 분리된 영혼이나 정신이 몸의 생명의 본질을 제공할 수 없다. 오히려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연관성을 지닌 각지체들이 특수화되고 다양하며, 형태와 기능면에서 차이점을 지닐지라도 몸 전체를 작동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와 가치만을 나타내는 것이다.[34]

바울이 로마서에서 교회를 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교회의 본질적인 통일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맡은 것이 아님과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각각 서로의 지체가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들

---

[33]황승용,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147.

[34]Ibid., 152.

즉 너그럽게 베푸는 은사,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권면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구제의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기체적인 몸에 비유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명령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교회의 사명

1)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새신자이든 기존의 신자이든 모두가 예배해야 하며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함으로서 표현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가 된다.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도 하나로 된다.

예배를 William Temple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양심을 각성시키며, 하나님의 진리는 마음을 기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상상력을 맑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을 열게 하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의지를 맡기게 한다"고 하였고, R Martin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만이 받으실만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35] Ron Nicholas는 예배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셔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분을 그 공동체적 활동이나 삶 속에서 중심에 모셔야 한다고 했다.[36]

구약성서에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 속박과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37] 말씀하셨고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38]고 하였다. 이스라

[35]Edmund P. Clowney, 145.

[36]Ron Nicholas 외 4인,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1989), 121.

[37]출애굽기 3:12.

엘 민족은 출애굽 사건으로 육체적인 속박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었다.[39]

신약성서에서 교회를 ἐκκλησία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죽음 부활에 응답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communion vocatorum*)을 의미한다.[40] Hans Küng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를 나타내는 용어로 정착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함께 모이는 일 특히 예배의 모임이 반복됨으로써 집회, 공동체, 교회라는 의미로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정착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교회를 나타내는 Church나 독일어의 Kirche 의미하는 것도 바로 예배라는 공동체의 현실적인 집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41] 교회의 본질적 존재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창조를 받고 구속함을 받은 인류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배 의식을 설정함은 교회의 근본적 임무이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긴급하고 중대하며 영광스런 일이다.

예배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존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그 영혼을 숙여 경배하는 것이다.[42] 즉, 하나님께서 존귀를 받으실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영광과 존귀를 그 분께 돌려드리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예배의 측면에서 볼 때, 교회의 활동은 교회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어떠한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 중심적인 활동이어야 한다.[43] 그것은 교회활동의 목적이 그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적절히 표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

[38]출애굽기 8:1.

[39]정장복, *예배학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7), 25.

[40]P. C. Hodgson, *교회론의 새지평*, 박근원 역 (서울: 진흥, 1986), 224.

[41]Hans Küng, Ibid., 88.

[42]David Peterson, *Worship in the New Testament* (Carlislie: The Paternoster & Grand Rapids: Baker, 1993), 51-52.

[43]Langdon Gilkey, *How the Church Can Minister to the World Without Losing Itself* (New York: Harper and Row, 1964), 104-105.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만남이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말씀을 들으며 세상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명을 부여받는 성도들이 신앙적 삶의 근원인 힘을 얻는 것이다.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대답에 대하여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는 “교회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의 동참자들이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며 예배하는 무리들의 공동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배하는 공동체의 의식은 개혁자들뿐만 아니라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강화하게 표현된 신학사상이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기독교의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인간이 행하는 응답이다.[44] 참된 예배 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다. 따라서 예배는 곧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즉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 할 수 있다.[45]

John Calvin은 예배에 대하여 “첫째로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지 안는다”라고[46] 말함으로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 이상의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여 드리는 거짓예배를 경계하고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할 예배에 대하여 성경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3-24)라고 말하고 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되어야 한다. 그가 중심이 될 때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그의 무리 속에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공동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며 성도들을 모으는 길이다. 교회는 성도들이 나오는 곳에 존

---

[44]Donald G. Miller, *교회본질과 사명,* 박상중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71), 186.

[45]옥수영, *교회 본질 되찾기* (서울: 예찬사, 2004), 145.

[46]John Calvin, *Tracts and Treatises on the Doctrine and Worship of the Church*, vol.2 (Grand Rapids: Eerdmans, 1958), 118.

재하는 것이다. 예배는 교회로 오게 하는 구조이다.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곳에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며 내적 자원이 부유해진다.[47]

이와 같이 건강한 교회는 자신들이 그 지역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자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예배의 일부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1937년 에딘버러에서 개최되었던 신앙과 직제연구를 위한 '제 2차 모임'에서 2년간 연구를 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예배 공동체의 문제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48] 첫째는 성만찬 중심의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존속한다. 둘째는 설교중심의 예배를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로 인정하고 있는 교회의 형태이다. 성서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이 예배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한다. 셋째는 성령을 모시는 것을 예배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여기는 교회이다. 이 부류에서는 성령 안에서 한 무리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더욱 강조하는 현상이다.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며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라는 개념의 공동체가 곧 교회임을 충분히 입증해 주는 것이다. 특히 이런 기본적인 자세는 예배 예전의 순서 속에서 성례전을 통하여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이다. 성서에 기록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변함없이 사역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가족이라는 면을 강조한다. 그래서 더 이상 나만을 고집할 수 없게 하고 우리라는 예배 공동체 안에 모두 속할 길을 얻게 해 주는 것이다.[49]

따라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 모든 신자들이 한 신앙 안에서 연합되어 조화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룩한 의식으로 모는 성도들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

[47]이장식, *현대교회학* (서울: 기독교서회, 1990), 406.

[48]Robert E. Webber, *예배의 역사와 신학*, 정장복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국, 1988), 210.

[49]김소영, *현대 예배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82.

2) 교육하는 공동체

진정한 복음증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의 신앙을 유지시키고 그 안에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격을 성숙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일은 가르침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셨음을 성서는 자주 언급하고 있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마 7:28-29)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마 9:35)라고 함으로서 가르쳐야 할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며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지신 것은 대중들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50] 이처럼 교회는 교육 혹은 가르침을 통하여 덕을 세운다.[51]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가운데 하나는 회심자들을 가르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교회에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사와 교사"(엡 4:11)로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교회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과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계시를 이해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가르침은 주께서 행하신 것으로서 교회가 마땅히 행하여 할 책임이 있다.

교회공동체는 한 공동체로서 그 존립과 발전과 성장을 위한 원리원칙과 방법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공동체에 속한 성원들이 이러한 원칙과 방법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이기에 거기에는 반드시 훈련 혹은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공동체의 통일성, 구조, 목적, 진로, 정신, 실천 및 강령들을 온 구성원들이 실천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그 단체는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없는 것이다.[52]

---

[50]Robert E. Coleman,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New Jersey: Fleming, 1973), 33-34.

[51]Edmund P. Clowney, "Toward a Biblical Doctrine of the Church,"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31, no.1 (November, 1968), 71-72.

[52]이장식, 410.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은 신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 세상에 존재한다.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골 1:28)라고 말씀하고 있다.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 받은 자들을 교화하고 양육하는 사명도 주어져 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약점은 신앙의 내용들을 잘 몰라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데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오게 한다.

교육은 신자들이 복음과 교회의 기능들을 이해하고 이행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며 그들이 충분하게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53] 교회가 가르침의 사명을 다할 때 성도는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로 세워지게 되며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가게 된다.

3) 봉사하는 공동체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준행할 때 교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궁핍한 자들과 고통 받는 자들에 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이 사명을 통하여 교회는 교회 자체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친히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심으로 가장 좋은 본을 보이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시고 접근하심으로서 인간의 전체적인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봉사하셨다.[54]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눅 10:25-37)는 예수께서 신자들에게 봉사의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교회의 봉사는 병을 고치거나 화해시키는 일, 상처를 꿰매고 갈라진 곳에 다리를 놓고 유기체에 건강을 회복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회는 궁핍이나 혹은 불의가 발견되는 모든 것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예

[53]W. L. Howse and W. O. Thomason, *A Churched Organized and Functioning* (Nashvill, Tennessee: Conventon Press, 1963), 12.

[54]Howard B. Foshee, *Broadman Church Manual* (Nashvill: Broadman Press, 1973), 6-7.

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마 20:28). 성육신하시기 위하여 그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빌 2:7).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빌 2:8). 교회는 이와 같이 자발적인 섬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1974년 로잔 선언문에서도 교회의 복음전도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활동 또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다. 봉사의 효율성에 대하여 개인적인 봉사보다는 소그룹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핵심단어는 '섬김'이라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봉사라는 낱말 속에 요약되어 있다.[55]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다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보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이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만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았으며 떠나버리지 않았으며, 예나 지금이나 똑 같이 활동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게 된다.[56] 교회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말씀하신 것처럼 봉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세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임무(마 28:19, 행 1:8)로서 세계에 복음진리를 증거 할 사명을 가지고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 즉, 교회에 주신 최대의 사명은 복음전파였다(마 28:18-20).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전도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전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도는 성도의 신앙의 성숙에도 중요하다.

교회의 존재의 미는 궁극적으로 선교이기에 지상에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

[55]J. C. Hoekendijk, *흩어지는 교회*, 이규준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6), 167.

[56]Ray C. Sterdman, *생명력 있는 교회의 비결*, 보이스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1983), 168.

것은 이미 선교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서에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라고 했고,[57] 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라고 했으며[58] 또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59] 함으로써 전도를 당연히 해야 할 책임으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로 존재하는 교회의 기능과 사명은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구속경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신이며 세계를 복음화해야 할 선교적 사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가라'의 의미는 '어디든지 가면서'라는 현재분사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60]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전 2:4)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가능하다.

전도의 범위도 자신의 이웃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을 향해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태복음 28:19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사도행전 1:8절에서는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에 언급 된 단계적인 여러 범위들에는 각각 다른 의미가 연루되어 있다.[61]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담당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고 하였다.

Calvin은 교회의 본질을 논하면서 주님은 교회에 보화를 맡기셨음으로 그것을 자랑삼아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야 할 사명이 있으며 교회는 그 복음을 전파할 유일한 도구로 보았다.[62] John Stoot는 일류의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며

---

[57]고린도전서 11:26.

[58]누가복음 9:60.

[59]디모데후서 4:2.

[60]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121.

[61]Michael Green,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Vol.1 (Grand Rapids: Eerdmans, 1970), 117.

영광 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날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전도라 하였다.[63] 따라서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의무 이상이며 특권이다. 성도는 주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왕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음전파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주님의 나라는 자연히 성장하게 된다.

5) 서로 돌보는 공동체

공동체적 교제는 삼위하나님의 본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소그룹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공동체적 교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하며 누려야 할 본질인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교제케 하신다. 나아가 성령은 교회 밖의 고통 받는 이웃들과도 교제하도록 하신다.

성도 간의 진정한 친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은사이다. M. Luther는 교회를 '성도의 회중'으로 보고 성도의 교제와 교회를 동격으로 보았다. 그는 성도의 회중을 정의하기를 "복음을 통해 부름을 받고 복음을 위해 모여진 무리들로서 또 성령에 의한 거룩한 부르심의 회중"으로 보았다.[64]

신약성서에서 교제는 "한 사람이 어느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 그것에 참여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65] 신약의 κοινωνία는 'fellowship'이나 'communion'이라고 번역된다. 그러나 오순절을 계기로 발생한 이 친교는 평범한 인간의 상호관계를 한층 더 깊고 독특한 관계를 형성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과 친교에 힘썼다"는 말이다. 이 친교는 특별한 것이며 하나의 친교(a fellowship)가 아니라 독특한 친교(the fellowship)였다.

교회의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교

---

[62]이종성, *Calvin* (서울: 기독교서회, 1978), 138-139.

[63]John R. W. Stoot, *The Biblical Basic of Evangelism* (Minneapolis: World Wide Pub, 1975), 66.

[64]황보갑, *에클레시아* (서울: 도서출판 다리, 1996), 409.

[65]Joseph Henry Thay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ment* (N.Y: American Book, 1889), 352.

제이다. 바울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고전 12:26)라고 말함으로서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임을 말하고 있다.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신자 간에 서로 교제해야 한다. 신약성경은 이러한 교제를 강조함을 볼 수 있으며 교제는 서로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구속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66] 이렇게 교제를 통해 서로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큰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예수께서는 신앙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육신의 관계보다 더 강하고 깊은 것이라고 한다(막 10:29-30).

성도는 성령 안에서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며 성도 간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 그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된다.

---

[66]Alive J. Lindgren, *Foundation for Purposeful Church Administration* (Nashvill and New York: Abingdon Press, 1965), 55.

Ⅲ. 가정 교회와 소그룹 활동

현대 교회에서 중요한 개념은 '평신도 사역', '소그룹'과 '기도'라고 할 수 있다.[67] 오래전부터 교회에 전해오던 구역이나 속회라고 불리던 소그룹은 근래에 이르러 이전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으며 그 본래 활동의 내용도 더 풍성해지며, 많은 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 소그룹들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구역,' '속회,' '셀,' '목장,' '가정교회'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며, 그 활동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교회의 중요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 소그룹들을 보편적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 'Cell'과 본 교회에서 강조하는 '가정 교회'라고 칭하기로 한다.

1. 소그룹 목회의 이론적 이해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소그룹에 속하게 된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여러 형태의 작은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 교회의 여러 모임들은 그 모임의 구성원들이 갖는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모이거나 교회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이며, 혹 어떤 모임은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성취하기 위해 모이기도 한다.[68] 이와 같이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몸인 그의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주고 영적 성숙을 형성하게 한다.

1) 소그룹 목회의 정의

소그룹 목회 사역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적 원리이며 방법이다. 소그룹 사역의 목적은 다양한 인격체들인 성도 개개인의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여 교회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데 있다.

소그룹의 정의에 대하여 Aubrey Fisher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개인들의 모

---

[67]최영기,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판, 2007), 147.

[68]Ron Nicholas, 14-15.

임'"이라고 정의했다. Zander는 "그룹은 빈번한 상호작용에 참가하며, 그룹에 속한 구성원들로서 그들을 한정하며,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그룹에 속하였다는 인정을 받으며,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규범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동일시하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호의존 하는 목표를 추구하며, 연합이라는 공동적 자각을 가지며 환경에 대하여 통일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을 가질 때 온전한 그룹이 된다"고 말했다.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을 "신자 상호간에 덕성함양과 교제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3-12명의 사람들이 정규적으로 함께 만나는 자발적이며 의도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교제가 있는 그룹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인 것이다.[69]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 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그룹 목회는 단지 복음적인 소그룹을 목회사역의 핵심으로 두고 있는 교회를 말한다.[70] 즉 소그룹 중심의 목회사역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그룹 사역은 교회 내의 '또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의 가장 비중 있는 중심에 놓인 사역인 것이다.

Cell Group에 대해 Joel Comiskey는 개방적이고 복음전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그룹으로서 Cell Group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서로를 세워주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모임을 갖는다. 각 Cell Group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전도와 결신을 통하여 그룹이 자라나고 번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신자가 교회에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더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71]

Ralph Neighbour, Jr.는 "Cell Group이란 8-15명의 교인들로 구성된 기독교 공동체임과 동시에 교회 속에 교회들로서 목자와 예비목자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교인들의 양육과 전도활동을 목적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교제하며 예배하는 소그룹이다"라고 정의 한다. 세포가 모든 생명체의 기초단위이듯이 Cell Group은 생명력이 넘치

---

[69]Neal F. Mcbride, *소그룹 인도법*, 네비게이토 역 (서울: 네비게이토, 1997), 9.

[70]Joel Comiskey, *셀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0), 22.

[71]Ibid., 23.

는 교회의 기본단위이며, “기독교 기초 공동체” 로서 교회는 그것들로 구성되며 그것들의 집합체라고 말한다. 또한 Neighbour는 “Cell Group은 비전통적인 교회로서 교회 안에 있는 셀 그룹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가정에서 모여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신자들 간의 사랑의 교제, 양육, 그리고 서로간의 돌봄과 사역을 시행하는 교회”라고 하였다.[72]

또 셀 목회를 “그리스도인의 기초 공동체임과 동시에 교회의 기초 구성단위로 5-15명의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속의 작은 교회"라고 정의하며 이때 셀 교회는 예배, 교제, 기도, 전도, 교육(양육), 봉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의 경험이 가능하도록 성령을 중심으로 구성원 상호간에 영적인 삶을 위한 상호 의존 관계를 맺은 소그룹을 의미한다.[73]

그리고 Lawrence Khong은 셀 교회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셀 교회의 셀은 바로 교회다. 둘째는 셀 교회의 모든 셀은 복음 전도로 배가하거나 새로운 셀을 세운다. 셋째는 셀 교회의 셀은 세밀한 감독을 위해 잘 조직된다. 넷째는 셀은 교구와 회중 모임에 함께 연결된다. 다섯째는 셀은 한 지도력 안에서 다 같이 주일 성찬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였다.[74]

David Finneil은 그의 책에서 Cell Group을 전통교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첫째로 셀은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둘째로 셀은 건물 중심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중시한다. 셋째로 셀은 ‘오라’가 아닌 ‘가라’의 구조를 갖는다. 넷째는 셀은 교육을 조직화하기 보다는 섬기는 사역에 더 치중한다. 다섯째는 비 기독교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전도하는 일에 힘쓴다. 여섯째는 셀은 서구적인 형식보다는 초대교회의 형식을 더 따른다. 일곱 번째는 셀은 관계 중심의 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75]

따라서 소그룹 목회는 교회의 모든 기능을 소화해내는 소그룹이지만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어지며, 섬김과 나눔, 치유와 회복, 교제와 예배,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개개인의 은

---

[72]Ralph W. Neighbour Jr, *셀인턴 지침서*, 터치코리아사역팀 역 (서울: NCD, 2001), 39-40.

[73]Joel Comiskey, 25.

[74]Lawrence Khong, *신사도적 셀교회*, 최봉실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2004), 69.

[75]David Finneil, *셀그룹 평신도 지침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1), 15-16.

사를 활용하여 제자 삼는 사역과 복음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3-12명이 정규적으로 모이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2) 소그룹 목회의 특징

새 형태의 셀그룹이 기존의 익숙한 구역조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전에는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한 구역단위로 조직하였는데 셀그룹은 지역중심의 조직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조직이 된다. 그리고 전에는 예배와 성경공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셀그룹은 예배와 성경공부는 물론 삶을 나누는 교제와 친교, 선교, 전도, 중보기도, 훈련 등 교회가 하는 모든 역할을 다 한다. 셀그룹은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셀그룹은 하나의 가정교회로서 평신도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평신도 목회에 중점을 둔다. 평신도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목자(명칭은 다양할 수 있다)를 중심으로 인턴목자, 전도부장, 선교부장, 친교 부장이 한 팀을 이루어 교제와 양육, 전도, 세계선교를 하며 독립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76]

그리고 이전의 구역모임은 사역의 대부분을 구역장이 주도하지만 셀 그룹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은사에 따라 사역을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을 든다면 구역은 교회의 관리 조직이라면, 셀그룹은 교회의 모든 기능을 감당하는 작은 교회인 것이다. 그래서 소그룹 목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Cell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셀이 모여서 한 사람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셀 모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각각의 셀은 두 개의 셀로 나누어질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재생산의 과정을 거친다. 모체 셀로부터 부분적으로 받은 유전자 꾸러미들을 자녀 셀 속에서 다시 온전해 진다. 이런 과정들은 또한 건강한 교회의 셀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다.[77]

로렌스 콩은 같은 맥락에서 '셀을 가진 교회'와 '셀 교회'를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셀을 가진 교회'는 셀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 실행하는 교회로써 성

---

[76]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서울: 에벤에셀, 2000), 171.

[77]Joel Comiskey, 25.

도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하듯 셀을 선택하는 교회이다. 그러나 셀 교회는 셀 안에서 영적 보살핌을 받고, 예배와 양육을 통해 사역자로 세워지며, 복음전파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로 세워질 뿐 아니라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게 된다. 셀은 이렇듯 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그래서 셀 교회는 그 소그룹 안에서의 일어나는 역동성으로 교회의 기능적 역할을 잘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Cell Group은 가족과 같은 공동체이다. Cell Group의 근본정신 중 하나가 가족과 같은 공동체이다. Ralph Neighbour는 공동체에 대하여 공동체는 오로지 소그룹을 통하여 가장 온전한 형태로 생겨나기 때문에 Cell Group을 15명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동체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들 중에는 서로에 대한 헌신과 소속감이 포함된다. 함께 나누는 삶 속에서 공동체는 생겨날 수 있는 것이며 이로서 공동의 목표와 서로의 발전을 위한 헌신이 모든 성도들 사이에 가능한 것이다. 셀 그룹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확대가족이요,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벽돌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커져서 15명을 초과하게 되면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사라진다. 하나님 나라에서 관계를 맛본 사람들은 얄팍한 제도적 교회생활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78] 셀은 서로에 대한 소속감, 서로에 대한 자발적인 의존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헌신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소그룹은 전도에 역점을 둔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셀 그룹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동기를 가지고 개인의 성장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79] 소그룹의 목표는 성도들을 양육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헌신하도록 한다.

그래서 셀 교회의 독특한 전도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이코스 전도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변의 사람들 중에 불신자를 파악하여 전도하되 셀을 중심으로 전도한다. 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소속된 셀이 전도소그룹이 되어 불신자에게 다가가 친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한 소그룹이 번식을 목표로 삼으면서 12~18개월 안에 불신자들을 그 셀로 인도하여 배가 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그

---

[78]Ralph W. Neighbour Jr, *셀목회 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서로사랑, 2000), 122.

[79]Ralph W. Neighbour Jr, *셀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NCD, 2000), 376-377.

렇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활력 있는 셀로 보내야 한다고 하였다고 말할 정도이다.[80]

또 소그룹은 처음부터 잃어버린 자들을 전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러한 목표가 셀을 하나의 단위로 몰아가고 하나의 목적 아래 결속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이것은 때로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을 일깨워 전도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소그룹 목회의 특징인 것이다.

넷째로 소그룹은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일에 열심이다. 셀 그룹의 기본 정신은 평신도 개개인이 만인제사장적 이해에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로 세운다. 전도에 대한 사명을 고취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W. Beckham은 주님께서도 9명의 제자는 남겨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구별하여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주님은 이들을 따로 세워 차세대의 리더로 세우셨다. 이와 같이 셀은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을 선택하여 셀의 환경에서 셀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여, 2차 셀을 구성하게 하며 분가를 준비 시킨다.[81]이런 의미에서 소그룹 중심의 목회는 차세대 리더들의 양육과 세움에 중요성을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다섯째로, 셀그룹은 각각의 셀들의 연합을 추구하며 이 각각의 셀들 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셀들의 연합을 통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한다. 셀은 하나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독립적인 교회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82] 교회의 이런 소그룹과 대그룹의 조화를 일컬어 '두 날개를 가진 교회'[83] 즉 소그룹을 한 날개로 보고 대그룹의 모임을 한날개로 보아 이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라고 설명하였다.

여섯 번째는, 셀그룹은 참 예배의 본질을 추구한다. 셀그룹의 교회에는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

[80]Lawrence Khong, 71.

[81]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NCD, 2001), 267-268.

[82]Lawrence Khong, 74.

[83]William A. Beckham, 41-42.

> 예배에 관하여 신약성경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억지로 해보려고 해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그룹 모임에 맞지 않는다. 1세기 성도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으며,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보고 앉아 있지는 않았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동참자들이였지, 구경꾼이 아니었다. 바울은 서신에서 그들의 예배를 묘사했다(엡 5:18-19, 골3:12-17). 이런 형태의 예배는 '서로'의 예배이다. 예배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며, 동시에 '서로 서로'함께하는 것이다.[84]

셀그룹의 예배 환경은 신약의 가르침과 같으며, 기존의 대그룹 예배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의 가격과 역동성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일곱 번째는 셀그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에 의해 성장한다. 셀에서의 성령에 대한 의존과 사모는 특별하고 강력하게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개인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인 성경의 최종적 권위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성령으로 부터의 인도하심은 성경의 굳건한 원리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 그러한 지시는 항상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85]

셀그룹의 예배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회심하는 역동적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러한 현상은 성령에 대한 더 많은 강조와 사모함으로 이어졌다. 이런 특징들을 가진 셀 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교회사에 면면히 흘러온 것이다.

3) 셀그룹의 구성요소

교회 내의 소그룹은 첫째로 개인의 욕구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어야 하며, 둘째로 교회의 전체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소그룹은 구성원 개개인을 성숙시키고 필요를 충족하며 공동체를 성장케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전략적이다. 그러나 소그룹 안에는 소그룹을 이루어가는 기능들이 있다. 이 기능들은 소그룹의 본질이요 목

---

[84]William A. Beckham, 158-159.

[85]Ralph W. Neighbour Jr, *셀교회 지침서*, 267-268.

표이기도 하다. 이 기능들은 각각으로 분류되지만 종합적으로 소그룹에서 나타나고 또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친다. 소그룹의 기능적 요소는 소그룹에서 중요하며 이러한 기능들이 그 목적들을 이루어갈 때 교회는 성숙한다.

(1) 예배

예배는 공동체적 교제, 전도와 선교, 양육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양육을 할 수 있고, 전도와 봉사하기 전에 공동체로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결속시켜 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추진력을 주는 요체가 된다.[86]

소그룹은 형태만 작게 모였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 소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배'가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그룹에 주인이시고, 중심에 계시기에 모든 소그룹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 갈수록 우리는 그 분을 더욱 찬미하며 높이게 된다.[87]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중요한 행위인 것이다. 또한 이 예배는 소그룹의 중심일 뿐 아니라, 소그룹을 더욱 건강하게 한다. 소그룹의 구성원 또한 예배를 통하여 삶이 변화된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소그룹에서의 예배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이게 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며 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 준다.[88]

소그룹의 예배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그 분께 고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소그룹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친밀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여 나아가 예배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

[86]정장복, 16.

[87]Ibid., 28.

[88]Jimmy Long, *소그룹 리더 핸드북*, IVP 역 (서울: 기독학생회, 1996), 51-54.

(2) 공동체적 교제

공동체적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세상에서 변화되어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 속에서 각 사람들은 자기 자아의 껍질을 깨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어 보이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J. Heinrich Arnold가 말했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완전한 공동체 삶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에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다.[89] 이처럼 인간에게는 친근하게 할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서로의 관심사와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귐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시작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며 나눌 때 우리 안에는 공동체 의식이 생긴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분만 아니라, 또한 이웃의 지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만남이 있어야 한다. 이 만남을 통해 서로의 섬김과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 나아가 소그룹의 교제를 통하여 구성원들은 점점 성숙되어진다. 함께 눈으로 배우고 권면하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그룹이 되는 것이다.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서로의 삶에 역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첫째, 서로서로 알아야 한다. 둘째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즐기라. 셋째 각 개인의 필요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 넷째 의사소통을 위하여 언로를 터놓으라. 다섯째 서로 기대하는 바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라.[90] 그렇게 될 때만이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된 관계로 발전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신의 틀을 깨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갈등과 부딪힘은 감수할 때 가능하게 된다.

(3) 양육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

[89]J. Heinrich Arnold, *공동체 제자도*, 도서출판 쉴터 편집부 역 (서울: 쉴터, 1997), 88-89.

[90]Ibid., 128-129.

.

한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영적 양식이 필요함을 아시고 열두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하셨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91]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계속 가르치시고 주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순종하는 제자들로 길러지지 못한 데 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체계적인 말씀의 훈련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자라가야 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5).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자라나야 하고 행실이 자라가고 모든 것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한다. 소그룹은 ‘양육’을 효율적으로 이루는 좋은 환경이 된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들을 결신시키는 사역은 매우 긴급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들을 효과적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잠시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원동력을 잃고 말 것이다. 교회는 소그룹을 통하여 이 양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대중 집회 위주의 모임, 특히 주일 예배 한 번의 모임으로 양육을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소그룹 모임은 이 양육을 이루는 최상의 환경이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과 구성원들 간의 친밀한 사랑으로 소그룹은 더욱 성숙되어져 간다.

대부분의 소그룹 활동에서 영적 양육은 귀납적인 성서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직접 연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92] 성서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것이다. 성서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은 발전되며 성숙되어 간다. 그러나 양육은 직접적인 성서연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그것은 공동체적 삶을 통해 인격과 영성을 키워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93]

소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성들 간의 서로를 격려하며 영적인 은혜들을 나누고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 영적인 소그룹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성숙

---

[91]David Watson,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1988), 81.

[92]Roberta Hestenes, *소그룹 성경 공부*, 이종록 역 (서울: 두란노 서원, 1991), 89.

[93]Jimmy Long, 47-48.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

(4) 전도 및 선교

소그룹의 다른 세 요소인 공동체적 교제, 양육, 예배 등의 요소는 선교라는 요소에 동력을 공급하여 준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 소그룹은 그 그룹자체의 만족이나 상호간의 성장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94] 그리스도인들의 소그룹은 그 그룹 자체의 만족이나 구성원들 의 필요를 채우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을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복음전도를 성경에서는 3가지로 표현하였는데, 그것은 권면하여 제자를 삼고 회심시키는 것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타난다.[95] 전도는 개인이 물론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이지만, 소그룹에서 이 일을 더욱 협력하여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초대교회가 건강한 소그룹으로 그들이 외부로부터 칭찬을 얻었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던 것처럼, 전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특권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의 소그룹에는 반드시 선교가 있어야 한다. 선교는 일차로 교회 내에서 전도하는 것이며 해외 선교와 지역을 봉사하는 사역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사람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이다. 선교란 타문화권 선교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이웃에게 중보 기도와 격려로 도움을 주며 돌보아 주는 것으로 시작한다(눅 10:30-36).[96] 증거 하지 않는 그룹은 언제나 약화되게 마련이며 그 정체성을 상실하기 쉽다. 소그룹은 복음전도와 선교를 통해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

(5) 섬김

---

[94]Harvie M. Conn, *교회성장의 신학,* 김남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162.

[95]Ibid., 175.

[96]Ron Nicholas, 27.

교회가 세상에 봉사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듯이 셀그룹도 그 역할을 담당한다. 초대교회에서 구제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었다. 서로간의 물질을 나눔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많은 칭찬을 들었고, 전도의 큰 수단이 되었다. 봉사와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난다.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낮추시고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다. 선교의 목표는 사람들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 혹은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다.[97] 소그룹이 봉사를 통해 자신들을 드릴 때, 그들은 세상을 위한 주님의 도구가 될 뿐 아니라 그 소그룹이 튼튼해지고 각 구성원들이 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소그룹에서도 봉사와 섬김은 소그룹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요소며, 나아가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된다.

소그룹에 있는 예배와 섬김, 교제, 양육, 전도의 영역은 하나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상호 연관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예배함으로 그 가운데 영적인 교제와 양육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날마다 더해져가는 전도의 결과가 생기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섬김이 드러나게 되며,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인다. 소그룹의 공동체적 교제나 양육 예배 등의 요소는 선교라는 요소에 동력을 공급하여 준다. 이 다섯 가지 요소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소그룹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인 것이다.

4) 소그룹 목회의 중요성

현 시대는 과거와는 달리 매우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따라 사회의 외적인 변화와 종래 전통사회의 가치관까지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종래 전통사회의 가치관은 인간관계를 중히 여겼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개인중심, 가족중심, 새로운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로 인해 인간관계는 멀어지고 개인의 능력만을 인정받으려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현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John Naisbitt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술이 사회에 더 많이 보급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

---

[97]Ibid., 147.

를 원한다"고 한다.[98] 사람들은 풍성할수록 인간적인 접촉을 간구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깊은 인간적 관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해 목말라 한다. 사람들은 급박하게 변하는 대중사회 속에서 자신들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필요로 한다. 소그룹은 또한 수백, 수천 명의 군중들 속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사랑과 용납의 인간관계를 제공해 줄 수 있다.[99] 그래서 소그룹은 더욱 중요해져 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변천과 소그룹

사회는 큰 사건으로가 아니라 작은 요소들로부터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소그룹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회학적으로 소그룹 목회의 중요성을 잘 인식시켜 준다. 현대사회의 변화는 산업화에서 정보화 시대로, 인위적 기술에서 하이테크로, 국가 경제에서 세계 경제로,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 계급체계에서 네트워크 체제로 변화되고 있다.[100] 산업사회의 특징은 거대한 공장, 거대 기업, 거대 노조 등 중앙집권적 체계와 산업 정책이 뒤를 받쳐왔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의 지금은 의식주 문제는 해결되어졌고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이 중요시 되고 있다.

또 다른 현상은 세태의 변화이다. 부부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유지하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전보다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자기중심적이며 더 물질적이며 유흥을 더 추구하는 세대의 형성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너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어서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고 있다.[101] 그리고 잘 사는 것보다는 멋있게 살고, 먼 훗날의 행복보다는 지금의 행복을 추구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고역'이며, '질서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98]John Naisbitt, *메가트랜즈*, 정상용 홍성범 역 (서울: 고려원, 1988), 43.

[99]Clyde Reid,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전요섭 역 (서울: 쿰란출판사, 1996), 15.

[100]Howard A. Snyder, *21세기 교회의 전망*, 박이경 김기찬 역 (서울: 아가페, 1993), 10.

[101]George Barna,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탁영철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3), 29-30.

따라서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믿음과 진솔함으로 서로 정직하게 관계를 맺음으로 가능한 것이다.[102] 그래서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또 서로 서로 관계를 맺도록 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이 효과적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삶은 결코 외로운 여행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순례의 여행이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 기독교의 초기 서신들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제는 '더불어 사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공동체로서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일차적인 만남으로써의 소그룹이 중요해 질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103] 소그룹은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된다.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사랑과 돌봄을 통해 서로를 세워가는 만남의 장인 것이다.

(2) 21세기 교회의 요구

현대의 가장 중요한 동향은 교회의 국제화와 교회 중심의 이동이다. Thomas Kuhn의 용어로 말한다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감지하는 것이다.[104]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야 할 결정들은 너무나 중요하다.

21세기 교회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함께 연결시켜 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감을 경험하게 하여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공동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현대 사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105] 첫째, 인간들은 아직도 인간적인 접촉을 소중히 여긴다. 둘째, 다양한 삶의 선택을 원한다. 셋째, 현 시대를 평가할 수 있는 법을 원한다. 넷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다섯째, 남녀 협

---

[102]Howard A. Snyder, 78.

[103]변시민, *사회학 개론* (서울: 박영사, 1988), 399-400.

[104]Howard A. Snyder, 7-8.

[105]Carl F.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22.

력관계를 요구한다. 여섯째, 새로운 현실들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일곱째, 사람을 중요시하는 조직구조를 요구한다. 여덟째, 나를 돌봐 달라고 한다.

이 시대에 교회는 창조적 도전이 필요하다. 이는 공중예배만 있는 교회의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모임을 갖고 있는 미래교회를 의미한다. 이제 교회는 교회의 갱신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로부터 전적으로 변절하지 않는 한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다.[106] 그러므로 선택의 상황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교회활동은 교제를 증진시키기에 알맞도록 다시 구성해야 하고, 기독교적 생활철학에 이르는 방법과 그것에서 얻는 혜택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Francis Schaeffer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조직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살아계시고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107] 이와 같이 21세기 교회는 형식적이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교회는 교회 안에 작은 단위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목회의 초점을 전환하여야 한다. 소그룹 교회들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적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성도들이 소그룹을 통하여 서로간의 격려와 보살핌을 통하여 영적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그룹 목회의 성경적 증거

소그룹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매우 견고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 소그룹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중심전략 중 하나이다.[108]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그룹의 원형이셨고,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간은 소그룹을 이루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도 소그룹 사역은 그 핵심에 있었다.

---

[106]John R. W. Stott, *현대 기독교 선교*, 김명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161-162.

[107]Ibid., 213.

[108]Jimmy Long, *소그룹 리더 핸드북*, IVF 자료개발부 역 (서울: IVP, 2004), 28.

1) 구약에 나타난 소그룹

하나님(אלהים)은 성경에 최초로 나타난 소그룹의 원형이시다(창 1:1).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소그룹이다. 성경에는 소그룹이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소그룹의 논리성을 더해 준다. 창세기 1:26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다.[109]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관계적이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에 공동체로 일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 역시 공동체로서 관계적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공동체적 형상을 지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다.[110]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다. 신학적 공동체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최초의 소그룹은 하나님의 발현이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소그룹은 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 되고 만다. 그 결과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향해 숨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 깨어짐의 역사는 에덴동산에서 시작 되었고, 최초의 살인이 나타났다(창 4장). 바벨탑 사건은 깨어짐의 역사의 정점이다(창 11:3-9). 그 결과 언어의 상이성으로 이질적인 문화가 형성되었고 서로에게 고립과 단절을 낳게 되었고 문화, 언어, 종교의 벽 등 다양한 내부적, 외부적인 벽이 형성되었다.

이후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들의 깨어진 관계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와 공동체를 회복하시려는 노력이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 소그룹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성취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셨다(창 6-9장). 또한 창12장에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는 소그룹을 부르시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의 관계로 초청하시기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었다.

하나님은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써 가족을 강조하셨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그룹에서 더 작은 소그룹으로 나누셨다(출 18:14-22). 이스라엘이 반역하여 멸망하고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조차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

[109]창세기 1:26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

[110]Bill &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 훈련원, 2004), 36.

의 친구들의 소그룹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성취하여 가셨다.[111]

구약의 경우 소규모의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는 타락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어 가는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기 원하시며 언약은 항상 공동체성을 내포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항상 Group을 만드시며 항상 사람들을 모으신다.

2)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에게 나타난 소그룹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로 구성된 소그룹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한가를 결정하는 데에 가장 확실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112] 예수의 12제자들의 모임은 소그룹의 참 모델이다.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진정한 예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113] 말할 수도 있다.

예수께서는 회중을 간과하시지는 않았지만 많은 시간들을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12제자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소그룹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발전 되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교회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본을 보여줄 핵심 그룹을 불러냈다. 이 핵심단계는 12제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학식 능력 때문에 선택된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순종의 잠재력 때문에 선택된 자들이다. 예수님은 이 핵심 제자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쏟아 부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이 미래의 지도자들을 준비하려는 기초 공동체를 형성하였다.[114]

예수님은 소그룹을 통해 제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르치셨으며 영적인 지식과 태도와 양식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기 위하여 소그룹을 활용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들과 함께하고자 부르셨고(막 3:14)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하셨다(눅

[111]Jimmy Long, 29.

[112]Neal F. Mcbride, *How to lead Small Groups* (Colorado Springs: Navpress, 1990), 15.

[113]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41.

[114]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NCD, 2000), 223.

8:10). 소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가장 좋은 강의실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재할 뿐만 아니라 시작되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에 대하여 제자들의 소그룹을 통해 드러나길 원하셨다.[115] 12제자로 구성된 소그룹은 지상에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지를 세 가지로 제사하였다. 개인적으로 말씀에 거하는 삶(요 8:31), 사랑 안에 거하는 삶(요 13:34-35)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요 15:8)으로써 그 중심에 신앙 공동체로써 소그룹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예수님이 단 한 사람의 제자만 훈련시켰다면, 그 분은 결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개개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질을 경험하기 위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필요하다.[116]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11)라고 간구 하셨는데 그는 제자들의 원형 소그룹 공동체인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소그룹 공동체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다.[117] 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넘어 그들의 공동체가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내다 보셨다(요 17:21). 사복음서에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관심을 두었고 그들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성장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 12제자 소그룹은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주역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온 인류에게 다가가 변화시키기 위하여 소그룹 사역을 발판으로 삼으셨다.

최초의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창 1:28)이 인간의 타락으로 실패에 이르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 공동체에게 다시금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다(마 28:19-20).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최초의 공동체로 복귀하는 것이며 최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

[115]Robert E. Coleman,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New Jersey: Fieming H. Revell Company, 1982), 31.

[116]Gene A. Getz, *서로 사랑하자*, 하도균 역 (서울: 세복, 2004), 44-45.

[117]Bill & Russ, 43.

3) 초대교회에 나타난 소그룹

사도행전에 12제자의 소그룹이 잘 기록되어 있다. 비록 예수께서는 떠나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셨다. 12제자의 그룹은 10배로 증가하였고(행 1:15),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는 적어도 250배로 확장되었다(행 2:41). 초대교회의 구성은 바로 12제자들로부터 재생산된 무수한 소그룹이었다. 예수님의 소그룹처럼 제자들도 그의 본을 따라 사역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소그룹을 통해 누룩처럼 배가 되었다. 이것이 교회사를 통해서 가장 양적이며 질적인 교회성장을 이루었던 초대교회의 비결이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소그룹 신앙 공동체로 모이게 된 근거는 참 성전이 더 이상 기존의 헤롯성전과 같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로서의 성전, 제도로서의 성전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2장의 성전정화 사건에서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알려졌다(요 2:12-22). 여기서 '성전 된 자'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흘 동안 다시 지어질 성전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킨다.

성전의 참 의미인 하나님과 교제는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있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공동체이지 결코 제도나 건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워진 부활성전의 형태는 소그룹 가정 공동체였다.

공적인 모임으로서 대그룹 예배와 비공식적이며 작은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똑같이 필요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118]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인격이지만 하나이듯, 부부가 서로 다른 개인이나 하나이듯, 성육하신 예수님이 열 두 제자들을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듯이, 최초의 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의 역할을 가졌지만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되었다.

사도바울이 서신에서 교회를 언급할 때 사용한 주된 용어중 하나가 가정이었다. 그 당시 각 가정은 유대인의 종교와 사회 제도의 기본적인 단위였으므로 소그룹이 초대교회의 기본 단위가 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며 가정단위의 소그룹이야말로 기독교 전진 기지의 중심지였다.[119] 가정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은 콘스탄

[118]Michael Green, *초대교회의 전도*, 김경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126.

티누스 황제 시대 이전까지 교회의 주된 형태였다. 박해시대 동안에도 로마의 카타콤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소그룹은 지속되었는데 그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소그룹이었다.[120]

당시에는 어떤 독립되고 구별된 공간이 아닌 평범한 가정집이 진리를 전파하며 가르치는 곳이었다. 당시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키웠다. 가정과 연결되지만 약간 다른 장소가 있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한 인슐라(*insula*)라는 곳이다.[121] 가죽 천막 제조업자였던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운영하는 큰 규모의 인슐라에서 일하면서 선교와 전도, 제자훈련과 성도간의 교제를 나누었다. 실제로 사도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지금의 대그룹 예배에서 적용하여 경험하기 어려운 명령들이 나온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4:26의 말씀을 보면 당시 교회가 경험하는 은사들이 무엇인지가 나온다. 또 그 은사들이 어떻게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 권고하는 말씀이다. 이러한 일들은 소수의 그룹들이 모였을 때 가능한 것이다.[122]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2세기가 끝날 무렵까지는 교회 건물이 세워졌다는 어떤 기록도 없다는 것이다.[123] 당시의 상황이 적대적이긴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가지는데 있어서 가정은 자연스럽고 서로 간의 밀착된 사랑을 경험하기에 가장 훌륭한 장소였던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소그룹이 가정 중심으로 모였지만 이들이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는 그 어느 것보다 든든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교회가 소그룹 사역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초대교회가 경험하고 누렸던 가장 깊고 진실한 영적인 κοίνωνία의 본질의 맛보지 못할 것이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소그룹의 경험을 얻지 못할 것이다.

---

[119]Ibid., 386.

[120]Jimmy Long, 36.

[121]김세윤,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 2002), 21-22.

[122]Ralph W. Neighbour, *셀리더 가이드*, 232-233.

[123]Robert E. Coleman, *주님의 전도계획*, 김영헌 역 (서울: 두란노 서원, 1990), 60.

3. 소그룹 목회의 역사적 증거

교회사에 소그룹을 중심으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온 집단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중세 교회에서는 여러 신앙의 그룹들이 소그룹중심으로 움직이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1) 중세교회의 소그룹 운동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중세교회 소그룹 운동은 공동생활 형제단과 왈도파 그리고 롤라드파에서 찾아 볼 수 있다.[124]

(1) 공동생활 형제단

공동생활 형제단은 Gerhard Groote(1340-1384)의 지도하에 Florentius Radewijns(1350-1400)의 사제관에서 자신의 제자 12명을 모아 시작되었다. Groote의 죽음으로 이 운동은 Radewijns의 지도하에 성장을 계속했고, 1475년에는 여성들을 위하여 100가정과 남성들을 위한 30가정들로 모임이 확대되었다.[125] 이 공동생활 형제단은 자매회와 형제회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그 형제회 설립 후, 그들의 주된 관심은 젊은 청년들을 수도원생활과 사제직에 적합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으며, 그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시내에 다니는 남학생들을 위해 숙식을 제공하는 호스텔을 세우고 그들에게 영적인 조언과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고 한다.[126]

따라서 공동생활 형제단은 보통 평신도들을 대상이 아니라 사제가 되려는 학생들을 모아 그들을 세우며 훈련하는 그룹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평신도 중심의 소그룹 운동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학사를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을 통해 삶을 나누며 수도원의 영성을 일반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127] 또 *Imitatio Christi*의 저자인 Thomasa Kempis가 이 공동생활 형제

---

[124]Robert Banks &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장동수 역 (서울: IVP, 1999), 77.

[125]Williston Walker, *기독교회사*, 류영기 역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86), 319.

[126]Jill Raitt & Bernard McGinn, *기독교영성II*, 이후정 엄성옥 지형은 역, (서울: 은성, 1999), 22.

[127]Williston Walker, 325.

단의 출신이며, 종교개혁가 Luther도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배웠다고 한다.

(2) 왈도파(Waldenses)

12세기 프랑스의 재산가였던 Peter Waldo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1176년 재산을 모두 빈민들에게 나눠준 뒤, 그리스도의 사도나 Assisi의 성자 Francis처럼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설교에 전념하였다. 설교에 감동한 사람들은 2명씩 조를 구성하여 'Lyon의 빈자'라고 이름을 짓고 각지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특히 이들은 농장과 집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다. 그러나 로마교회에서는 복음이 잘못 전해질까 우려하여 설교를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활동을 계속하자 교황 루이 3세는 1184년 치서 *Ad Abolendam*을 발표해 왈도파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로마교회와 결별하고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었다.

왈도파의 교리에는 로마교회와 다른 점이 많았다. 연옥을 인정하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한 연미사, 속죄를 위한 보속 등에 반대하였고 서약이나 유혈을 거부하였다. 또 단순한 성서주의, 엄격한 도덕, 교회의 부패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Lyon 부근에서 시작하여 점차 프랑스 전역으로 세력을 넓혀 나가다가 이탈리아, 에스파니아, 독일, 헝가리 등 인근 국가로 전파되었다.

1217년 Peter Waldo가 세상을 떠난 후 박해가 더욱 심해졌고 종교재판 등 엄격한 조치로 말미암아 점차 세력이 약화되었다. 결국 16세기 종교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에 흡수 되었으나 그 일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의 국경지대와 알프스의 보도와 계곡에 잔존하였다.

따라서 왈도파는 2인 1조로 복음을 전하며 가족 공동체로써 가정과 농장을 중심으로 작은 그룹들의 모임을 통해 공동체성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소그룹 형태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롤라드파(Lollards)

영국의 John Wycliffe의 가르침을 받았던 롤라드파는 어떤 형태의 신조나 신앙고백을 만들지 않았으나 그들의 강조점은 오직 성경의 권위에만 두고 있었다. 그들의

주석과 소책자 중 일부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런 소책자 중 15세기 초에 쓴 The Lanterne of Lizt(리쯔의 등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거룩한 성경은 신앙과 행습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최상의 권위를 가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사제의 중요한 업무이다. 순례여행, 성상숭배 그리고 교회의 값비싼 장식은 불법적인 것이다. 성례전, 사면과 면죄부의 판매 그리고 교회의 성직 매매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것이다.

맹세의 준수 또는 어떤 형태의 서약이라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이해 금지된다. 성직의 영구적인 소유는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악의 원인이 된다. 거룩한 교회는 모든 신실한 영혼들의 동료이다. 교황은 적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교황이나 그의 부하들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리는 명령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28]

이러한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은 15세기 직전에 어떤 것이 교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소그룹들이 선두가 되거나 강한 촉매제가 되거나 혹은 부흥을 향하여 형성되고 있는 환경들에 따랐던 영적인 일깨움의 과정에 기인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도 개개인의 중요성에 강조를 둔 이 운동은 평신도들이 소그룹을 이루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 도시의 마을에서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2) John Wesley의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소그룹 목회하면 감리교회를 빼놓을 수 없다. John Wesley의 부흥운동이 성장되어감에 따라 신도들의 수가 급격히 불어났으며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그는 소집회 제도를 채택하였다. 소집단 제도의 필요성은 우선 성도의 교제의 필요성 때문에 조직이 되었다.

Wesley는 영국 교회가 기독교인의 교제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영국교회의 예배와 성만찬에서 가지는 성도의 교제만으로 부족하였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성도들의 교제”라는 점에서 이의 부족함을 채우는 ‘작은 교회’에 대한 강조가

---

[128]Justo L Gonzalez, *기독교사상사(Ⅲ)*,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0), 124.

소집단 운동을 일으키고 발전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임은 공동체 안에서의 제자 훈련 체제로 자연스럽게 발전하였다. 메도디스트의 친밀한 교제와 엄격한 훈련은 소집회로 가능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웨슬레의 부흥운동도 함께 성장하게 되었다.

Wesley는 경건주의와 모라비안 형제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경건주의의 대표인 필립 스페너가 '교회안의 작은 교회'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소그룹을 활성화시켰는데[129] 이것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진센돌프의 경건주의 운동에 의해서 웨슬레에게 전달되므로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웨슬레는 모라비안 형제단을 통해 신학적 교훈과 실제적 교훈을 받는다. 특히 '교회안의 작은 교회'의 실제와 개념을 배우고 초대교회의 정신과 조직을 발견하였고 성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모라비안 형제단의 신비주의 경향 때문에 결별하게 되지만 모라비안 형제단은 웨슬레의 교회론에 큰 영향을 주었다.[130]

웨슬레가 '교회안의 작은 교회'운동을 전개하게 된 이유는 18세기 도덕과 윤리가 타락한 시대에 성결의 복음을 널리 전하므로 당시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당시 영국교회가 제도와 형식에 얽매여 교회의 생명력을 잃었을 때에 웨슬레는 형식과 전통보다 성서의 권위를 우선함으로 종교 개혁자들의 노선을 따랐으며 교회의 제도를 본질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이해한 Wesley '교회안의 작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제도, 전통, 구조등을 전도 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과감히 개혁함으로 교회에 새로운 생기를 불러일으켰다. Wesley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종례의 교회의 누룩의 역할을 하므로 교회 전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했다.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전체 교회의 대형화에 따른 성도의 교제의 결핍을 막고 또한 형식화, 의식화되어 가는 제도적 교회를 갱신하는 것이다.[131]

Wesley가 조직하고 활용한 조모임, 속회, 선택자회 등과 같은 소그룹 운동은 Methodist Movement의 특징을 잘 드러내준다. Wesley는 '은혜의 제도적 수단'으로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소그룹 교제를 강조했다.[132] 감리교 운동에 있어서 교회갱신을

---

[129]M. Lioyed Johns, *청교도 신앙,* 서문강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145.

[130]Howard A. Snyder,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레,* 조종남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6), 41.

[131]Ibid., 69.

[132]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Ⅰ* (Grace Rapids: Zondervan, 1959), 181.

위한 원리는 신자들을 그룹으로 묶는 것이다.[133] Wesley는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함과 동시에 신도회를 통하여 성장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활동은 초기 감리교 운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웨슬레가 말하는 작은 교회는 영국 교회 속에 있는 메도디스트회를 교회속의 작은 교회로 보았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George H. Williams는 웨슬레가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도 메도디스트 모임을 "가장 합리적이고 도덕적 영국교회내의 복음적 에클레시아라고 생각했다"고 한다.[134] 그리고 웨슬레의 작은 교회는 연합 신도회와 속회, 조, 선발신도회, 참회자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John Wesley는 선교사로 Geogia로 떠난 1735년까지 1792년 동생 Charles Wesley가 Oxford에서 시작한 Holy Club을 인도하였다. 그는 이 모임을 통해서 실습과 훈련을 통한 창조적인 소그룹 교제가 탄생 되었다. 그들은 시간과 사고를 깊이 나눔으로 서로에게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책임감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내적인 성결과 교제는 필요를 지니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분출될 수밖에 없었다.[135] 조모임, 선택자회, 속회 등은 존 웨슬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소그룹들을 창조적으로 종합한 작품으로 다음과 같다.

(1) 조모임(The Band Meeting)

'조'는 회원 자신의 신앙을 심화시키고 체험시키며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여 그에 합당한 신앙의 결실을 맺는 신앙 고백적 모임이다. 조모임은 Moravian전통에서 빌려온 개념이지만 웨슬리는 창조적으로 발전시켰다. 조모임은 좀 더 작은 모임으로 나누어졌는데, 결혼하거나 독신 남자 그리고 결혼했거나 독신 여성들이 함께 모였다. 이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모임을 가졌으며 남자 조모임은 매주 수요일 저녁에 만났고, 여자 조모임은 주일 저녁에 만났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

---

[133]Steve Happer, *John Wesley's Message for Today* (Grand rapids: Zondervan, 1983), 135.

[134]Howard A. Snyder, 158.

[135]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서울: 세복, 1999), 214. 존 웨슬리는 Holy club을 통해 배우고 실습한 것들이 그가 장차 만들 성숙한 조직의 기초가 되었다. 첫째, 개인의 극기와 성결을 위한 소그룹 운동의 역동성, 둘째, 교제의 능력, 셋째, 성공적으로 개인의 성결과 사회적 활동 사이에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는 특별한 훈련과 교훈과 권면을 받았다.

이 '조'는 그 구성이 평균적으로 5-10명 가량 되었고, 조는 나이, 성별, 결혼여부, 또는 직업별로 분류하여 조직이 되었다. 조는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그 역사는 가장 오래 되었다. 평균인원은 6명이었다.

조모임의 목적은 "너희 죄를 위하여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약 5:16)는 말씀을 따라, 하나는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존 웨슬리의 가르침과 상호간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격려하는 것이었다. 조 모임은 확실하게 회심한 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을 하며 거듭난 신자들을 한층 더 높은 은혜의 단계 즉 온전한 성화의 단계까지 이끄는 모임이었다. 따라서 전체 신도회의 약 20%만이 조원이 될 수 있었다.

조모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날 것, 둘째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확하게 약속된 시간에 만날 것, 셋째 찬양과 기도로 시작할 것, 넷째 우리가 생각과 말 또는 행위로 지은 죄들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각 사람에게 말할 것, 다섯째 참석한 개인의 상태에 맞는 기도로 모임을 끝낼 것, 여섯째 우리 중 어떤 사람(흔히 인도자)이 그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제일 먼저 말할 것, 그리고 나머지 삶들에게 그들의 현재 상태, 죄, 그리고 유혹들과 연관하여 다양한 질문을 할 것이다.[136] 이러한 조모임 규칙들은 오늘날 소그룹 인도법에 크게 뒤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 탁월한 혜안이 나닐 수 없다.

(2) 속회(The Class Meeting)

감리교 운동의 가장 중요한 소그룹이 속회이다. 속회는 특별히 의도된 것이 아니라 1742년 2월 15일 Bristol에서 우연히 시작되었다. Wesley의 야외설교의 대성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속회로 인도 되었다. 자연히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하나는 이들 새로운 회심자들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세워줄 필요가 생겼으며 하나는 모임장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속회는 신도회에 새신자를 받아 훈련시키고 여러 선교적 활동에 참여하는 신앙훈련적 모임으로 지역단위로 모이는 조직이었다. 처음에 재정적인 방편으로 시작되었

[136]Ibid., 237.

던 속회는 곧 목회상의 감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137] 속회는 많은 감리교도들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었는데 그것은 전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기능을 수반하였다. 웨슬리는 만인제사장의 원리를 따라 초대교회처럼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지도자로 세워 봉사하게 한 것이다.

(3)선택자회(The Select Society)

선택자회는 Methodist체계의 가장 핵심부라고 볼 수 있다. 선택자회는 내적인 성결과 외적인 성결을 이루는 데 현저한 발전을 보인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주제에 특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었다. Wesley는 가장 헌신된 조모임 회원들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산다고 믿는 사람들과 독실한 믿음 아래 순종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선택자회의 목적은 첫째 모든 회원들이 내외적 완전의 추구가 강조되는 교제권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둘째 웨슬리가 자기의 감정과 계획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선택자회는 어떤 특별한 규칙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규칙 중의 가장 훌륭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규칙이었다. 첫째 이 신도회에서 애기했던 내용은 다른 곳에서 다시 언급해서는 안된다. 둘째 모든 회원은 모든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의 목회자에게 굴복해야 한다. 셋째 모든 회원은 일주일에 한 번 그가 공동 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오기로 한다.

Wesley의 소망은 ‘작은 교회’를 통한 공동체의 구성을 통해 큰 교회의 생명을 풍요롭게 할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소그룹 인도법과 평신도를 훈련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그들을 지도자로 배출하는 일들은 오늘날의 소그룹과 크게 다를 바 없다.

3) 중국의 가정교회

존 스톤이 발행한 ‘세계기도정보’에 의하면 중국 교회의 성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1997년 이래 중국 교회의 성장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었다. 통계

---

[137]David L. Watson, *The Early Methodist Class Meeeting* (Nashville, TN: Discipleship Resources, 1987), 315.

전문가들은 1990년에 3,000-7,500만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통계청은 1992년에 6,300만 개신교인과 1,200만의 카톨릭 교인이 있는 것으로 은밀히 추정했다.

이 수치들은 1949년의 1,812,000의 개신교인과 330만의 카톨릭 교인과 비교해 보라. 이 성장은 거의 비공식적인 가정교회와 순회 설교자들의 노력으로 그리고 많은 지방 부흥집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138]

중국이 공산화된 1949년의 그리스도인 숫자는 백만을 육박하였고, 2만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들이 공산치하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이다. 1949년 공산 혁명이전의 중국의 많은 교회들은 가정집에서 소그룹모임으로 시작되었다. 후에 몇몇 모임들은 그들 자신의 교회 건물을 얻어내어 삼자회 조직 내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런 소규모의 가정교회들은 계속적으로 독립해서 발전하였다.[139] 오늘날 대륙교회는 크게 중국 국무원 종교사무국에 예속된 삼자 회 소속교회(삼자교회)와 삼자 회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인 가정교회로 나누어진다. 가정교회는 1950년대에 추진된 기독교의 통폐합과 사회주의 건설로 많은 교회들이 합병, 폐쇄되었고 목회자들과 신도들이 정치학습과 노동생산에 동원되었다. 특히 '대약진' 기간에는 주일예배조차 지킬 수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적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다. 그 후로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신앙의 자유는 완전히 박탈되었고, 신자들은 더욱 더 소규모의 가정적 예배를 은밀하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140] 1950년대에 정부는 모든 기독교의 조직에 침투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1958년까지 이러한 종작은 개신교의 삼자애국운동, 카톨릭 애국연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화혁명 기간 동안 이러한 전위 조직조차 금지되었으며 모든 종교 활동은 지하로 숨어들어 가정교회 운동을 일으켰다. 1978년 금기가 완화되어 삼자애국운동의 목적은 막 시작한 가정교회 운동으로부터 주도권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가 교

---

[138]Patrick Johnstone, 482.

[139]OMF 한미선교부 편, *중국을 조명한다* (Pasadena: KAM-OMF, 1997), 79.

[140]박승로, 160-161.

회 대한 통제권을 얻는 것이다. 유럽 공산주의 붕괴가 '종교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되어 모든 기독교와 회교 조직에 엄격한 통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모든 활동은 어디에서나 탄압되고 있다. 1991년에는 7,000개 이상의 교회가 삼자 애국 운동과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중국의 가정교회는 성장하였다. 운남성의 랑구안 이라는 자치현 에서는 1949년에는 8천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으나 현 삼자회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2백 군대 이상에 교회당이 있으며 5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한다. 중국정부도 기독교인이 1949년 이후에 5배로 증가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80%이상이 가정교회 교인이다. 가정교회는 중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주류이다.[141]

중국의 가정교회는 농촌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와 도시를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교회는 모두 비밀집회와 비밀활동을 하는 것이 공통점이나 도시의 가정교회가 삼자의 압력을 받는다면 농촌 가정교회는 그 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 도시 가정교회는 성경, 찬송, 신앙서적 등이 비교적 풍부하고 인도자가 적당히 배치되어 있지만 농촌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주로 이적, 신유, 등의 개인적 체험을 간증으로 하는 교회생활을 지속한다.[142] 가정교회의 주일예배는 보편적으로 몇 십 명의 단위로 드리게 되는데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백 명에서 몇 천 명이 개인의 집 특정한 예배건물 혹은 마을 빈터 고원이나 산굴등지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한 목회자에 의해 4-5개, 또는 그 이상의 교회가 목양되어지고 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어린이 주일예배가 있고, 매주일 성찬식이 거행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점들도 있다. 계속되는 문제점들은 '영성'에 대한 편협한 강조로 인해서 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의 부족과 편협한 경건주의를 낳았다. 또한 종파간의 차이점으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고 이는 해외의 영향이 많은 도시일수록 심하다. 그리고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한 배타성이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에 과거의 방법만을 고집하는 경향이다. 그리고 삼자 회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받는 새로운 압력은 새신자들에게 약간의 혼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문제들은 고난의 경험이 없는 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이다. 즉 박해 기간 동안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했던 이

---

[141]OMF 한미선교부 편, 79.

[142]이병길, *중국선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7), 159.

들에게 용서와 포옹을 꺼리고 자만하는 태도이다. 또한 신앙서적의 부족으로 근본 진리를 잘못 이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훈련된 목회자들과 자격을 갖춘 평신도 지도자들의 부족으로 인한 빈약한 가르침, 이단, 교리적 분열, 기독교와 혼합된 미신, 지방 토속의 민속종교의 출현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기독교인 지식인들에 대한 압력이다.[143]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가정교회는 꾸준히 성장하였고, 들풀과 같은 생명력으로 그 영성을 이어온 것은 소그룹 가정교회의 발달인 것이다.[144]

4. 가정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가정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위임 명령을 수행하고 이루어 드리기 위한 방법론으로 가장 합당한 것이다. 초대교회시대처럼 오늘날 가정교회는 주위에서 교회를 돕는 교회(Para Church)의 조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당한 교회, 복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합당한 공동체이다.

1) 환경조성

가정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영적인 사랑의 교제가 결핍되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여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결속력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야 한다. 교회는 획일적이고 완전한 기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유기적 공동체요, 운용에 있어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융통성 있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독립과 의존, 사유와 공유, 사생활과 공동체 생활이 병존하는 것이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가정교회는 더욱 필요하다. 누가복음 5:37-38의 비유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라는 말씀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체제는 가정교회 체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

[143]OMF 한미선교부 편, 80-81.

.

[144]박승로, 170.

그것이 시대에 맞는 일이다. 복음전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교회 성장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체질을 가정교회형태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교역자는 가정교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2) 가정 개방

가정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기 위하여 복음을 받은 대상자들을 문화적으로 잘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정을 개방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신약성경에 복음 전파와 봉사를 위해서 가정을 열고 손 대접할 것을 말했다(롬 12:13, 딤전 3:2, 딛 1:8, 히 13:2, 벧전 4:9).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가정을 사용하셨다. 예수께서 선교를 위해 가정을 사용하신 것은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왔을 때 부터였다. 예수께서는 돌이켜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고 물으셨다.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그들이 묻자 예수께서는 그냥 장소만 이야기해 주시지 않고 '와 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가 보았고 그날 그와 함께 지냈다(요 1:37-40).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그날 그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가정이 있었던 덕분에 제자의 길로 들어 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이런 개방된 가정에서 식사시간 및 그 밖의 다른 시간에 예수님의 선교는 이루어졌다. 지역 내의 가정교회들이 점차적으로 성장됨으로 성도들이 스스로 믿음이 견고해 진다. 신앙이 성장되므로 자신들이 예배처소를 스스로 준비해 가도록 하며 또한 지역사회에서 야기되는 종교적인 문제들도 기도하면서 해결하도록 한다.

가정교회들의 연합 정기 예배가 점차 부흥되면 지역 중앙교회로 발전하는 것이다. 최영기 목사는 가정교회의 힘에 대해서 중국의 처소교회를 예를 들고 있다.

> 가정교회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1세기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었다는 것을 중국의 처소교회가 증명해주고 있다. 1949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시작되었다. 교회는 다 폐쇄되었다. 목회자는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처형되었다. 선교사들은 추방되었다. 성경은 압수되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기독교가 존속하기 어렵다. 그런데 모택동이 정권을 잡을 때 기독인구가 백만이었는데 등소평이 정권을 잡은 후 중국에는 1천만이 되었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그 탄

압 밑에서 열배로 증가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증가된 것이 가정교회를 통해서였다는 것이다. 교회당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고, 목회자도 없으니까 평신도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성경이 없으니까 직접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주셨고 교회가 핍박 가운데 부흥했던 것이다.[145]

3) 지도자 선택과 양육

가정교회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여 세울 것인가이다. 그러므로 지역 목회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소그룹 지도력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최영기 목사는 가정교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지도자의 확신과 헌신된 지도자와 훈련프로그램”을 언급했다.[146] 모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 역할들 가운데 어떤 것은 그 모임이 고유한 과업을 성취해 가도록 돕는 것이고 어떤 것은 그 모임의 유대와 공동체적인 교제가 유지되도록 돕는 일이다. 두 가지 역할이 동시에 필요하다.[147] 리더는 이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고 어떤 훈련을 시켜야 하는가의 문제는 곧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148]

일반적으로 소그룹 리더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역사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부족하지만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리더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 자신감은 누적된 경험과 기술, 그리고 훈련을 바탕으로 한 노력에 대한 신념이다. 확신감이 없이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따르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145]최영기, 47.

[146]Ibid., 181.

[147]Ron Nicholas, 68-71.

[148]박영률, *리더십과 교회성장* (서울: 성광, 1991), 204.

둘째, 성실하고 열심의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지도자에게서 찾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실과 정직함이다. 셋째, 지도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사람을 선택해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요, 성공인 것이다. 지도자의 큰 책임 중 하나는 사람을 키우고 훈련시키는 일이다. 넷째, 지도자는 원인을 제거하고 위기를 관리하는데 매우 신속하고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어야 한다.[149] 그러나 지혜와 사랑을 겸비한 리더가 없이 시작하는 그룹은 처음부터 제동이 걸릴 것이며 성장은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훌륭한 리더는 그 그룹의 잠재력을 일깨운다. 여러 다른 지도자들이 그런 것처럼 소그룹의 리더는 그룹 원들에게 그 그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이해시켜 목표에 도달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150]

어디로 갈 것인지 아는 지도자가 되려면 첫째로 신념과 소명과 비전을 키워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한 개인적 성경연구와 묵상과 기도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이다(잠 3:5-6). 둘째로는 활기차게 개인 생활의 스케줄을 지속시켜야 한다. 스케줄은 반드시 설정된 목표나 목적에 일치시켜 나아가며 무슨 일이든지 설정한 목적에 집약되도록 하고 그 목적에 상관없는 일을 대담하게 제거하면서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훈련된 생활 속에 몸으로 친히 일해야 한다. 셋째로 전 생활을 그 목적에 종속시켜야 한다. 설정한 목적에 방해되는 일은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양을 질에서 보충하며 목표와 목적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때 갈등을 갖지 말아야 한다. 넷째로 힘든 결정을 내리는데 단호해야 한다. 다섯째로 사명과 비전을 항상 마음속에 키워 나가야 한다. 여섯째로 항상 문제들과 공존함을 알고 그것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사실 문제들은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 새로운 용기와 힘이 생기며 문제는 위대한 훈련임을 알고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결하며 해결해야 한다. 일곱째는 무리하게 일하지 말고 능률적으로 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며 과업과 책임을 부여하고 위탁해야 한다.[151]

---

[149]Ibid., 205-206.

[150]Ron Nicholas, 47.

가정교회에서의 지도자 훈련은 단순하다. 최영기 목사는 "사람들은 성경지식이 많은 것을 교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제자훈련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지도자로 임명받기 위해서 소정의 여러 가지 과목을 수료해야 한다. 또 제자훈련을 강조하지 않는 전통교회에서는 성경공부를 그처럼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울 때 사회적인 지위를 본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운다.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 점들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것과 많이 달라졌다.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섬기는 지도자를 원하셨고 종이 되고자 하는 지도자를 원하셨다"(마20:25-27 참조).[152]

가정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의 자격을 최영기 목사는 3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둘째 신실한가? 셋째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가? 이다.[153]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좋은 지도자가 될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자 유형

성공적인 지도자는 그들의 행동양식을 구성원과 그때의 상황의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지도자의 유형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그 요소는 지도자의 성격, 섬기는 그룹의 욕구 혹은 성격 그리고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성경은 지도자의 유형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다. 크리스천 지도자는 그 인격이라든지 은사 그리고 사람들의 욕구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한다.[154]

지도자는 그 형태에 따라서 자선형, 선발형, 지명형, 추대형으로 나눌 수 있고 기질에 따라서 설복형, 지배형, 제도형, 행정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유형에 따른 내용적 구분을 보면 첫째 민주형 리더로서 집단 스스로가 목표를 결정하며 이는 집단 활동에 대한 피지도자의 자발적 협력을 가능한 촉진함으로써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민주적 그룹은 책임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분산시킨다. 이와 같은 지도자가 이끄는 집단은 창조적, 생산적, 우호적, 적극적 참여, 공동의

---

[151]박영률, 180-181.

[152]최영기, 189-190.

[153]Ibid., 191.

[154]황위섭, *크리스천 리더십* (서울: 한국 로고스 연구원, 1990), 39.

식, 공동책임감, 객관적 가치관을 그 특징으로 한다. 둘째는 전제형 리더로서 집단의 목표를 지도자가 결정하며 지도자가 집단 활동에 관한 정보를 그의 지시에 의해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한다. 이는 비생산적, 의존적, 소극적 참여, 적개심, 주관적 가치관을 그 특징으로 한다. 셋째 방임형 리더로서 이는 문자 그대로 집단 활동을 집단 성원에게 일임하고 지도자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될수록 간섭을 않는다는 형태를 취하여 결코 지도자라고 할 수 없는 사무적인 위치에 있는 허수아비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감각 비생산적, 방관적, 무책임, 무관심을 특징으로 하고 개인이나 집단이 목표를 정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을 지니지 않게 된다.[155] 넷째 가부장적 지도자의 형태는 이들과는 또 다른 유형인데 지도자와 대중이 서로 일치한다. 지도자는 아버지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그룹의 개개인의 관심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부장적 지도자 유형의 약점은 자기와 대중이 너무 일치를 이룬 결과 규율을 지키기 힘들게 될 수도 있다. 다른 편으로 보면 권위를 너무 인정한 나머지 독재적 요소로 발전할 수 있다. 그 이외에 당파적 지도자는 강력한 친밀성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흐르기 쉬운데 그는 그의 특별한 분야에서 유능하기는 하지만 목적을 위해 너무 극단적인 정열이나 동정을 특수 그룹에 국한하여 전체를 보지 못하는 단점을 지닌다.[156] 그러므로 가정교회 지도자의 유형은 선발적, 설복적, 그리고 민주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 지도자의 자질

일반적으로 지도자란 누구이며 지도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된 접근 방식이 있다. 첫째로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운명적으로 결정된다. 둘째로 후천적으로 결정되지만 지도자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 자신의 독특한 성격, 자질, 두뇌, 신체 등을 가지고 있다. 즉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셋째로 지도력이란 한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속성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또한 어느 집단이 속해 있는 객관적 상황의 산물이다. 즉 그 집단이 처해있는 내외정세가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발휘하도록 요청하며 그것을 가장 모범

---

[155]Ibid., 48.

[156]Ibid., 43-45.

적으로 수행하는 구성원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157]

지도자의 자질을 모르면 올바르게 지도할 수 없다. 지도자는 첫째로 어디로 가는지 갈 곳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목적지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둘째로 지도자는 자기와 함께 혹은 자기를 따라오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하든지 감동을 주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 같은 원리를 생각할 때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가 어디로 가며 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았다. 그 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동행하고 그를 따라오도록 감동시키고 가르쳐 훈련시켰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의 부활 이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고 따랐다는 것이다.[158] 목회 서신에는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영적은사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것은 실력이나 기술에 관하여는 거의 언급이 없다.[159]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160] 그러므로 가정교회 지도자의 자질은 후천적이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 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섬김의 인격을 소유해야 한다. 한 마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변화 된 인격의 소유자여야 한다.

5. 가정교회 목회 실시를 위한 준비

가정교회 목회를 성공적으로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의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훈련된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계획과 프로그램이 확실히 서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신도 지도자 그룹(당회, 직원회)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 당회나 성도들의 협력과 동의 없이는 가정목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사는 기도로 준비한 후 지도자 그룹에 자신의 가정목회 비전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가정목회의 리더로 세운다. 그리고 설교시간을

[157]송호범, *소모임활동입문* (서울: 풀빛, 1983), 144.

[158]박영률, 175.

[159]Ibid., 179.

[160]Ibid., 181.

통하여 자주 가정교회 목회에 대한 목회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한다. 그래서 가정교회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생기면 실시하기가 매우 부드러워진다.

1)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전에 시작해야 할 작업

필요한 것들은 첫째로,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consulting과 교인들의 의식구조와 가정교회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교회의 현 구조를 파악하여, 가정교회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후원체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적절한 consulting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목회자의 은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자신의 은사에 맞는 교회사역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가정교회 사역에 적합하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사항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consulting이 필요하다. 즉, 지역민들의 학력, 재산, 거주 공간,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 등을 물어야 한다. 이 질문서는 앞으로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도의 접촉점을 찾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자기 교회 교인들에 대한 은사별 테스트와 교회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consulting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적어도 2-3년의 시간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2) 적합한 소그룹 개발

자기 환경에 적합한 소그룹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녀들의 연령이 초등학생일 경우는 부부가 함께 참석하기에는 실정상 불가능하다. 유소년기 이하인 자녀에게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이들과 함께 모임에 참석했을 경우, 특히 부인들은 성경공부와 나눔을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소년기의 부모 그룹은 남편과 아내가 격주로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모임 시간에 있어야할 식사 등의 문제는 모이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감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교회가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들의 교

육수준, 생활수준, 성향 등을 잘 파악한 후에 어떤 소그룹 중심으로 가야할 지 결정해야 한다. 즉, 소그룹 구성원들을 구성할 때, 연령별로 할 것인지, 혹은 직업별로 할 것인지, 관심별로 할 것인지, 경제적인 차등에 의한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포함하는 가족구도 속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3) 가정교회로 인한 소외그룹에 대한 대책과 교제의 폭의 확대 방안 마련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 독신자들과 이혼 부부 등에 대한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들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항상 피해의식과 수치심을 갖고 있다. 보통의 경우라 할지라도 상처를 받기 쉽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교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했을 때 각기 소그룹 안에서의 활발한 코이노니아와 일체감이 형성된다. 그러나 단점은 지역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제한적이 된다. 또한 가정교회 내에서의 사역은 충분히 감당되지만, 지역교회에 대한 사역이 제한적이거나 기피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각기 가정교회가 자신만의 특성들을 갖게 됨으로 다른 그룹들과 이질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칼 조지가 이야기 한 것처럼 메타교회 형태를 띠고서 교회 내에서 중간 크기의 각기 관심별 혹은 은사별 모임들을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지역교회 내의 전체적인 코이노니아를 위해서는 1개월에 한번 씩은 전체 가정교회 축제를 벌이는 것이 또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Ⅳ. 평신도는 누구인가

가정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핵심적인 활동이 있다면 그것은 평신도들을 '가정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평신도가 과연 교회에 내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부과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1. 평신도의 정체성

1) 평신도 개념

구약의 평신도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즉 'עם(Am)'이란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백성을 나타날 때 사용되었고, 어떤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인 의미가 없는 정치적, 종교적, 종족적 그룹의 백성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는 'גוֹי(Goy)'를 사용했다. 'עם'이라는 표현이 평신도 개념의 기초가 된 용어로서 평신도 신학의 발전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161]

초대교회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 없이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전도하고 가르치고 권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평신도 수가 많아짐에 따라 직분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제1세기가 끝나면서 교회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κλῆρος이다. 복음의 확장으로 교회가 커지자 그 커가는 교회를 전임으로 관리하고 통괄하는 전담 성직자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당시의 로마제국의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아 통치자의 계급으로 명령된 κλῆρος의 위치가 교회구조 안에 들어와 성직자를 지칭하는 κλῆρος로, 피지배자의 계급으로 알려졌던 λαός가 평신도를 가리키는 λαός 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평신도라는 용어는 3세기 중엽 Carthago의 감독이던 Cyprian에 의해 처

---

[161]김성욱, *하나님의 백성과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8), 64.

음으로 사용되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헬라어 λαός로 하나님의 "Chosen People"을 나타낸다. 평신도의 일반적인 이해는 교회 안에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λαός의 성경적인 개념은 성직자나 평신도의 구별이 없는 전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이 말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바뀌어 가면서 점점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이를 이원 계급의 성격으로 바꾸어 본래의 의미보다 평신도를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162]

주후 4세기 초에 Constantine(A.D 274-337)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교회는 하나의 종교적인 제도가 되어 건물과 성직자가 중심이 되었고, 정치적 책임과 체면을 갖는 거대한 제도가 되었다.[163] 이때로 부터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특별직분을 κλῆρος로, 일반 신도는 λαός로 구분 짓는 이원계급이 자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중세시대의 교회생활의 방향이 성경적인 형태보다는 사제중심의 권위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원론적 구분은 비성서적이어서 16세기 종교개혁시대에 들어서 Martin Luther는 이러한 구분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그 결과 평신도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평신도를 각성시켜 로마 교황과 항쟁하며 "만인사제론"을 주장하면서 성직주의의 철폐와 강력한 평신도의 옹호와 회복을 주장하였다.[164] John Calvin도 평신도의 만인제사장권에 대하여 말하기를 "비록 성도가 오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며,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하다"고 말했다.

종교개혁 이후 18세기에는 웨슬레는 평신도의 설교자의 필요성까지 주장했으며[165] 현대에 이르러서는 평신도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인 경향으로 확대되어 1948년

---

[162]John R. W. Stott,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김기영 역 (서울: 엠마오, 1987), 8.

[163]M. Gibbs & T. Ralph Mortan, *오늘의 평신도와 교회*, 김성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40.

[164]Ibid., 64-65.

[165]정진경, *신학과 목회* (서울: 성광문화사, 1977), 226.

W.C.C. Amsterdam 회의에서 '평신도'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신약성경에서의 평신도에 대한 고찰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유대교적인 제사장 계급이 아니라 평신도적인 성격과 위치를 가진 분이시며[166], 그의 12사도도 역시 평신도들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평신도로서 모든 교인은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고 동참해야만 한다.

2) 평신도의 사역의 역사적 고찰

구약의 선지자들은 신약의 성도들에 대해 매우 특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요엘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온 교회 앞에 선포했다(행 2:16-21). 이는 신약의 성도가 구약의 성도들과는 달리 성령의 충만을 받은 존재로 세움을 받았으며 특히 은사를 부여받은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울에 의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모든 성도가 은사를 부여받은 사역자들로 설명되고 있다. 각 지체는 성령의 나누어 주심을 통해 은사를 받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들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여기서 등장하는 성령의 역사는 구원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다.

평신도는 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평신도의 역사는 인간 기원의 시대로부터 비롯된다. 각 사람은 그 자신이 제사장이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은 저마다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창세기는 이 외에도 스스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들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첫번째 전문적인 제사장들은 출애굽기에서 발견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한 '출애굽', 곧 '대탈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에 획기적인

[166]맹용길, *평신도와 교회* (서울: 예장총회 교육국, 1981), 11.

변화를 가져온 시내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에 있을 때이었다. 새롭게 자유를 찾은 이스라엘을 위한 규범과 율법을 받으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울 것도 아울러 지시하였다. 그 후 각 평신도들은 더 이상 그 스스로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 더 이상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제사장으로 임명되지 않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정한 장소에 자기의 제물을 가져와 레위 족속으로 하여금 자기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야 했다.

출애굽기 18:13-27에 보면 모세에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모세의 육체적 탈진이고, 둘째는 지도자들의 불만이며, 셋째는 백성들이 지친 모세에게만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출 18:17)라고 말한다. 이드로는 평신도 사역자는 바로 이런 ‘이드로의 사역분담 법칙’에 근거를 둔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일을 나누어 함으로써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개념인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자격 있는 평신도들에게 분권적 위임(Decentralize)을 함으로써 교회사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신약의 평신도 사역에 대한 고찰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종결된 것이 전문 제사장직이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을 승계하던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나게 되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마태의 기사를 보면 예수께서 운명하시던 순간에 지성소를 성전의 나머지 부분과 구별되어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갈라진 것을 기록하고 있다. 휘장이 이처럼 갈라진 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승계 전통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까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었으나 이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처럼 평신도 운동은 시대적 산물이 아니다. 초대교회부터 존재했고, 교회 안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했다.

초대교회 안에는 평신도만이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양자 중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보다 더 중요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대적 우위가 아니라 절대적 직임임을 깊이 숙고해야한다. 성직자가 평신도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도 그릇된 것이며 성직자나 평신도는 본질이 아닌 은사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초대교회는 확실히 단일 신분의 공동체였다. 책임은 두 번째요, 본질이 첫째였

고 직임에 따라 존경과 섬김이라는 기독교 윤리가 형성된 시대였다.[167] 이것은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쓰임 받았던 평신도들의 구체적인 사역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다.

3)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

세상에서의 가견적 교회는 교직을 가진 소수 성직자의 교회가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자신의 삶을 통해 구현하는 평신도의 교회다. 따라서 평신도는 교회의 객체가 아닌 주체이다. 평신도는 교역자와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머리되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러한 개념들에서 평신도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첫째로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평신도는 근본적인 평등의 바탕에서 교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일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신도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6).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가 할 것이며”(사 61:6). 이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이방 세계로부터 불림을 받은 평신도는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둘째로 평신도는 성령으로 채움을 입은 성령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모든 신자는 이제 육체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벧전 2:4-5). 이 제사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회개의 열매를 가진 영적 제사이다.

셋째로 평신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엡 1:23). 이것은 모든 신자가 지체로서 다 중요하며 각자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몸이 가진 유기적 특성은 그 지체들이 상호의존 관계에

---

[167]Ibid., 58

있다는 것이다.

교역자가 평신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신도가 서로 영적 봉사를 하는 사역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은 각 지체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전 12:11). 이 은사는 모두 평등하다. 즉, 은사를 받은데 예외가 없으며 은사 간의 구별도 없다.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신자가 서로 봉사하며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 있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에 따른 평신도의 위치는 결국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이 때 평신도가 담당해야할 제사장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희생적 죽음을 통해 중보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향하는 휘장을 열어놓으셨다(마 27:5, 롬 5:2, 히 10:22). 그 결과 신자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새 언약에 들어온 신자는 모두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한다(롬 12:1). 이 영적 예배의 특징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데에 있다.

셋째, 말씀을 증거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을 증거 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리 우는 모든 신자들에게 부과된 사명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벧전 2:9).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이런 저런 형식으로 말씀의 전령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자는 누구나 말씀 증거자로 부름을 받았다.

넷째, 중보 하는 기능이다. 제사장직은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영적 제사를 통해 다른 형제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기도해 주는 기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신자는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가서 다른 형제들을 위해 간구 할 수 있는 세상의 제사장이다(딤전 2:1).

평신도의 위치는 성직자보다 계급적으로 낮게 보려는 이원론적 관계가 아닌 단

지 기능적으로 부여받은 임무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Luther의 지적과 같이 목사와 다른 신자 사이에 신분상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목사의 직분은 다른 것과 확실히 구분이 된다. 또한 Calvin은 교직을 교인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중요한 열쇠와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 및 주님을 대신하는 제도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반 교직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지상의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도직과 목사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바울은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데,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하는 사명이다. 여기서 사용된 '온전하게'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무장하다'(Equip)라는 뜻이며, 전쟁에 나갈 군사에게 모든 장비를 갖추게 하고, 필요한 모든 기술을 훈련시킨다는 의미이다.[168] 여기서 교회와 목회자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성도를 목양하는 차원을 넘어서 무장시키는 사역이다. 교회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양떼를 훈련시키고 성숙시켜 사역자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는 확고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9-10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특별한 위치와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사역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본문은 평신도 사역의 확실한 성경적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169]

이상에서 볼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평신도로 이루어진 교회의 기본 구조는 계급의 구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교회 안에서 그들이 고유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 목회 리더십은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 속에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그들로 주님의 사역자로서 자신들을 재발견하게 하는 목회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4) 만인 제사장론과 평신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곧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똑같

---

[168]김점옥,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 (서울: 기독신문사, 1999), 88.

[169]Ibid., 86.

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벧전 2:9)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는 것이다.

중세의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가톨릭을 상대로 개혁을 부르짖었으며, 그 개혁은 수많은 난항 끝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주장한 개혁의 많은 요점 가운데 평신도의 '만인 제사장권'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Calvin, Luther와 Zwingli 등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평신도 '만인 제사장권' 은 다음과 같다.[170]

John Calvin은 평신도의 '만인 제사장권'을 이렇게 설명한다. "비록 성도가 오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며,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하다."[171]

Martin Luther의 외침은 더욱 간절하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리스도는 오직 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평신도와 성직자의 차이는 역할과 직무의 차이이며, 다만 모든 지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는 한 머리요, 하나의 몸을 가지신다"고 말하였다.[172]

그리고 Ulrich Zwingli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직자들은 베드로후서 1장의 가르침을 난도질 하였다. 그들은 세상의 군주처럼 세상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들은 도끼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왕의 영예와 제사장이요, 영적인 선물을 바치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173]

평신도는 성직자의 팔의 연장도 아니요, 그의 조수도 아니며, 교직자의 축소판

---

[170]Thomas M Lindsay, *종교개혁사 Ⅰ*,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0), 444.

[171]Thomas M Lindsay, *종교개혁사 Ⅱ*,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0), 154.

[172]Edmund P. Clowney, 236.

[173]Ibid., 241.

도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성직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성직자 자신은 세계무대에 서지 않는 대신 그 자리에 평신도가 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사도직과 평신도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모든 수단과 과업을 통해 서로 결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174]

이와 같이 만인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하는 자가 없이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성도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가지는 책임감을 나타내는 말이다. 믿는 자는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다(벧전 2:9). 여기에는 최소한 4가지의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다.[175]

첫째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특권이다.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는 완전한 중보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향하는 휘장을 열어 놓으셨다(마 27:51). 그 결과 믿음으로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 중보자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둘째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특권이다.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신자는 모두 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다(벧전 2:5). 복음의 증거(롬 15:16), 찬미와 형제를 위한 봉사(히 13:15-16), 순교의 제물(딤후 4:6), 성도의 기도(계 8:3) 등이 다 신령한 제사라고 하였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현장에서 계속되는 삶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셋째는 말씀을 증거하는 특권이다. 왜 하나님이 신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하기 위해서이다(벧전 2:9). 넷째는 중보하는 특권이다. 신자는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세상의 제사장이다.

성서는 결코 교역자와 평신도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신도와 교직자는 다같이 교회의 본질과 소명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에 관한 새로운 비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왕 같은 제사장들인 평신도들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고, 사역을 과감히 위임하여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성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선언한다. 평신도가 자기 본연

---

[174]Hendrik Kraemer, 83.

[175]Hans Küng, Ibid., 154-155.

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하는 성서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특정 사람만이 아닌 전 교회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제사를 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에게 봉사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2. 평신도의 역사적 고찰

1세기 말까지 교회의 형태는 신약성경에 기초한 순수 신앙공동체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한 지체이며 동등한 위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던 것이 2세기 들어서면서 교회가 점차 제도화, 조직화됨에 따라 평신도에 대한 성경적 개념에서 이탈되어 가기 시작하였다.[176]

평신도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서는 평신도에 대한 성경적 개념으로의 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들을 살펴 볼 것이다. 현대 교회는 평신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본 절에서는 평신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초대교회 시대의 평신도

초대교회 시대는 교역자와 평신도의 본질적인 구별이 없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초대교회에는 네 가지 직책이 있었다. 즉 사도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이다(엡 4:12). 또한 이러한 직책 외에 장로(딤전 5:17)와 집사(행 6:5)가 있었다. 그러나 이때까지 목사와 장로와 집사 사이에 교회 조직체 안에서의 신분적 차이는 없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신성한 일에 종사하고 기도하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세상적인 일과는 구별되는 'κλῆροϛ'(클레로스)라는 직책과 세상 재물을 소유하고 결혼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된 'λαόϛ'(라오스)' 라는 부류의 신자가 생기게 되었다.[177]

이와 같이 교회가 이원성을 띠게 된 것은 당시 희랍과 로마의 이원성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κλῆροϛ'는 장관을 의미했고, 'λαόϛ'는 시민을 의미했다. 당시 유대지

---

[176]이장식, *평신도는 누구인가*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28.

[177]Hendrik Kraemer, 70.

방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사회는 행정자와 일반 시민이라는 두 종류의 계급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λαός' 는 라틴어 *Laicus*(라이쿠스)에 해당된다. 그리고 성직자라는 뜻의 Clergy(클러지)라는 말의 어원인 'κλῆρος'라는 말은 구약성경이 레위족이나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그들에게는 '배당된 분깃'이라고 주님이 표현한 의미와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교회에서 집회의 중심적인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직'이 교회의 최고의 지위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점차 성찬식을 예배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됨에 따라 성례전의 은총을 베푸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κλῆρος' 이며 일반 성도들은 은총의 대상이며 지도의 대상인 'λαός' 였다. 이러한 변화는 성경적인 내용과 의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전통에 의하여 복음을 전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κλῆρος'라 부르고, 일반 성도를 'λαός' 즉, '평신도'라 부르게 된 것이다. 2세기 까지는 평신도와 성직자 간에 엄격한 구분이 없었다고 하나 3세기 전반에 이르러 니케아 회의에서는 교회 안에 있어서의 'λαός'의 위치는 열등하게 약화되고 반면에 'κλῆρος'의 위치는 크게 부상하였다.

A.D. 2세기 안디옥의 감독인 Ignatius는 교회의 단합과 질서에 그의 주요 관심사가 있었으므로 감독의 역할을 본질적으로 이해한다. 그는 삼중적 교직 계급을 말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감독이라고 함으로써 감독의 지위를 끌어 올렸다. 교회의 최상부에는 감독이 있고 그 밑에 장로들이 있으며 그리고 그 밑에는 집사들이 있다. 따라서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질서가 형성되었다.[178]

2세기 말엽부터 개 교회에는 삼분법적 직제가 나타난다. 감독, 장로, 집사인데 감독이 중심 역할을 한다. 이런 구조는 이단과의 신학적 투쟁을 전개하여 정통신앙을 수호하며 흩어지는 개체교회를 지탱해 가기 위해 지교회의 장로나 감독의 위치가 중요해졌고 따라서 직위가 강력하게 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Irenaeus는 영지주의의 거짓된 교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적 전통으로써의 교회를 강조한다. 이레니우스가 말하는 사도계승은 단순히 제도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보다 영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입장은 감독직에만 사도적 권위가 주어졌으며 성

---

[178]윤철호, "교회와 신학," *평신도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1997), 23.

령을 통한 다양한 교회의 직무는 엿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사도적 계승이란 사도적인 신앙과 생활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이요,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말하는 베드로 권세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179]

3세기에 Tertullian은 Irenaeus와 사도적 계승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 Cyprianus과 Ambrosius의 사도적 전승의 사상은 로마 가톨릭주의로 기울어졌다. 결국 교직자와 평신도와의 구별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다.[180] 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Origen은 "교회의 각 구성원은 하나의 성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만인제사장직을 강조하였으며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별보다는 사명없는 불신자와 지각있는 완전한 신자의 구별을 중요시 하였다.[181]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확장은 전문적인 사역자보다 세속 사회 속에서 생업을 가지고 일하던 남녀 평신도들이 그들의 생업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의 말씀 선포를 통한 역할이 컸다.[182]

그 후 2세기를 결쳐 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지내다가 4세기 초 Constantine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의 국교로 받아 들여졌지만, 콘스탄틴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교직주의를 제도화하게 되었으며, 교회에서 평신도들의 참여도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중세교회 시대의 평신도

신앙공동체로서의 회복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중세로 진입한 하나님의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상류 계급과 하류 계급간의 차이가 더욱 깊어져 갔다. 이는 교황 제도의 정착과 함께 더욱 굳건해졌으며 동시에 평신도 사역은 감소하게 되었다.

---

[179]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0), 48.

[180]Ibid., 110.

[181]Hans Küng, 78.

[182]윤철호, 44-45.

325년 니케아 회의 이후 감독은 세례 등의 성례전의 집행을 독점하는 수장이 되었으며, 380년의 라오디게아 회의에서는 회중들이 감독을 선출하는 제도를 폐지시켰다. 그 결과 오늘의 성직자(clergy)의 기원인, 안수와 성례전의 권위를 지닌 특별한 계층인 'κλῆρος'(클레로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계급이 생겨났다. 따라서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두 개의 계층으로 분리되었다. 평신도의 사역은 박탈되었고 수동적이고 낮은 지위로 격하되었으며 교역을 독점하고 있는 성직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183]

트렌트 회의에서는 주교의 위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였는데 "다른 성직자들과 더불어 주교들은 사도들의 계승자들로 이 계층질서에 속한다. 주교들은 사도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도록 임명받았다. 또한 사제들보다 우월한 성직자로서 견신례를 베풀고 교회의 교역자들을 안수하며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는 바 이 주교직보다 하위에 있는 직분들은 주교직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 고 하였다. 이 회의는 사제들의 위치도 높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초대교회 공동체 중심의 평신도의 사역을 축소 내지는 사라지게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평신도 사역은 중세교회의 엄격한 계급적 교직주의 때문에 감소하게 되었다. Carl Kromminga에 의하면 중세시대에도 평신도운동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수도원운동을 통해서였으며 그들의 목표는 순수한 기독교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수도원 운동은 성직자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았고 이 운동은 수동적이며 미미하게 시작되었다.[184]

후에 수도원 운동 자체는 비록 교회화 되었지만, 이 운동을 통해서 많은 평신도들의 영감과 포부를 가져다주었던 것은 사실이다.[185] 특히 이러한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평신도가 성경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동시에 평신도의 신앙에 있어서 자유로운 표현들이 가능하게 되었다.[186]

12세기 초 Waldo파 와 14세기의 John Wycliffe와 그의 제자들인 Roll Rose, 14

---

[183]Ibid,, 23.

[184]김성욱, *하나님의 백성과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49.

[185]Hendrik Kraemer, 22.

[186]김성욱, 48.

세기 후반의 John Huss 등은 평신도 전도와 평신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17세기의 평신도 운동인 모라비안 선교 운동에 기여하였다.[187] 중세 시대의 교황 중심의 계층적 질서 속에서 평신도의 위치는 최하위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수도원운동을 비롯한 Waldo파, Roll Rose, John Huss 등을 통하여 미미하지만 평신도 운동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3) 종교개혁 시대 평신도

종교개혁의 선봉적인 지도자들은 성직자 중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들을 뒷받침하고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세력은 평신도들이었다. 실제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한 종교개혁은 2주일 만에 전 독일에 퍼졌고 1개월 후에는 전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은 그만큼 평신도들의 호응이 폭발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188]

성직자가 독점하던 중세의 평신도에 대한 지위와 사역을 회복시킨 사람은 만인제사장을 주장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였다. 그는 평신도를 각성시켜 로마 교황과 항쟁하며 종교개혁을 진행시켰다. 루터는 '수도사의 서원'(On Monastic Vows)이라는 글에서 특별한 소명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 수도사 서원은 특별한 부르심 곧 특수 소명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우월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성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은 반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명령만 수행해야 한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종교적인 천직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상적인 일을 하는 각 개개인에게 모두 임하기 때문이다.[189]

Martin Luther의 개혁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평신도 이해를 가져다준 공헌이었다. 루터의 교직관은 만인제사장직으로 요약된다. 루터는 이것으로 로마 가톨릭의 성직체계를 붕괴시켰다. 루터에게 있어서 교직의 임명은 사역자의 소명과 선출에 있

---

[187]Ibid., 49-50.

[188]Lewis W. Spitz, *종교개혁사*,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69.

[189]윤철호, 20.

는 것이다. 따라서 사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제들인 전체 공동체에 의하여 공인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평신도와 교직자는 사역적 구분이었다. 이것은 루터의 독창적 고안물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으로 돌아간 것뿐이었다.

John Calvin은 교회를 신앙공동체(*Communio Sanctorum*)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제정하신 기구라고 말한다. 칼뱅의 교회는 또한 '직분을 중심한 교회'이다. Calvin은 교회의 직분을 에베소서 4:11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 예언자, 복음전하는 자'는 비상직으로 '목사, 교사'는 없어서는 안 될 직책이라고 하였다. "교사들은 제자훈련이나 성례 집행이나 경고와 권면을 하는 일을 맡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만을 맡았다. 이는 신자들 사이에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려는 것이었다.[190] "목사직은 이 모든 의무를 겸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모든 다른 직분자들은 목사가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직분이 해석될 수밖에 없다. 즉 루터보다 목회자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Calvin은 목사직을 '말씀의 수종자'라는 점에서 교회직분의 중심으로 생각하였다. Calvin의 직분관은 봉사직이라는 면에서 동등하며 소명에 따라 기능의 분화가 나타나는 직분관이지 교역자와 평신도의 본질적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4) 종교개혁직후의 평신도

17세기의 평신도 활동은 경건주의의 영향을 크게 입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 활약한 지도자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와 기도에 대하여 그룹을 만들어 지도한 Jacob Spenner(1635-1705)는 평신도들에게 그들의 은사를 일깨워 주며 선교사역에의 소명을 심어준 August H. Franke(1663-1727),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여야 한다는 모라비안 선교운동과 지도자인 Zinzendorf(1700-1760) 등을 들수 있다.[191]

모라비안 선교운동은 Zinzendorf를 중심으로 많은 평신도들을 선교로 이끌었다. 그들은 1732년부터 1760년까지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William Danker는 모라비안 선교운동을 이렇게 평가했다.[192] "모라비안 선교운동이 세운 가장 주요한

---

[190]Lewis W. Spitz, 212.

[191]김성욱, 54.

[192]Ibid., 56.

공헌은 그들이 강조한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들이며 증거는 그들의 날마다 의 직업을 통해서 증거 되어져야 하는 점에 있다.”

18세기에 와서 평신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라토렛은 이 시기의 평신도 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193] 모든 곳에서 평신도 열기가 가득했다. 이러한 특징은 개신교의 기본 정신인 ‘만인제사장론’이 주는 열매여야 하지만, 사실은 그 진리는 한동안 이론에만 묶여 있다가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제 평신도들이 많은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는데 곧 성경을 전달하여 주는 일, 주일학교에서의 봉사활동 등에서 두드러졌다.

5) 19세기의 평신도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 후에 19세기 기독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신도운동이 선교 사역과 지역교회에서의 활동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평신도들은 기도부흥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지역교회의 행정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게 되었다.[194] 19세기에 뛰어난 평신도운동 중 한 가지는 평신도 여성들의 활약상이다. 영국의 Hannah More(1745-1833)는 뛰어난 여성 평신도로서 그 당시 낙후된 교육 사업에 큰 공헌을 했다.[195] 이 세기 동안에 영국의 감리교 교회들에서 처음으로 여집사 제도가 나타났으며 아울러 YWCA운동도 1886년에 등장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19세기 말경에 학생신앙운동(SVM)은 괄목할 만한 평신도 선교운동이었다. 학생신앙운동의 설립에 막대한 역할을 한 지도자는 무디였다. 1886년 여름 메사추세츠 주에 있는 헤르몬산 연합 집회에서 무디는 설교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여기서 수많은 학생들이 선교 헌신을 하고 해외 선교사로 나갔다. 이들 중에 John R. Mott가 있었는데 그는 평신도로서 이 학생신앙운동을 이끌면서 조직적으로 부흥하게 만들었으며, YMCA의 지도자로서 평신도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지도력을 발휘했다. J. Verkuyl은 그의 ‘현대 선교신학’에서 이 학생운동은 오순절 이후 기독교

---

[193]Ibid., 58.

[194]이장식, Ibid., 126.

[195]김성욱, 57.

의 최대 선교운동이라고 그 운동의 영향력에 대해서 주장했다.[196]

이 밖에도 위클리프 성경번역회, 대학생 선교회, 네비게이토 선교회, 해외선교회, 십대선교회 등이 있으며 또한 많은 선교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6) 20세기의 평신도

19세기 학생신앙운동은 1906년에 평신도선교운동협회의 설립으로 나타났는데, 이 모임은 선교현지에 나간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20세기 중반부터 점차적으로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이 강하게 기독교회들에서 일어났다.[197]

세계교회협의회(WCC)에서도 제1회 암스테르담 대회(1948) 이후 회집된 모든 대회마다 평신도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해왔다. 웁살라 대회(1968)에서는 남녀 평신도들은 그들의 선교적 헌신을 교회 안의 봉사 차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과 공공 봉사에서도 그들의 선교적 사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휘튼 선언(1968), 제1차 로잔복음화대회(1974), 제2차 로잔 복음화대회(1989) 등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위한 평신도들의 책임과 소명을 강조하게 되었다.[198]

현대 교회의 평신도 선교사역은 미전도 종족 선교에 가장 강력한 선교정책으로 연구되고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여행자들과 해외 공관원들을 통한 선교사역과 여러 전공을 가진 대학생들의 잠재력은 평신도 선교사역의 귀중한 자원이다. 특별히 전문 직업선교, 의료선교, 성경 번역 선교, 라디오와 녹음선교, 항공선교 등이 연구되고 실천되고 있다.[199]

초대교회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인 평신도 이해를 정리하면서, 또한 평신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역사적 이해가 현대 교회의 왜곡된 평신도상을 성경적 평신도상으로 올바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

[196]Ibid., 57-58.

[197]Ibid., 59.

[198]Ibid., 58-59.

[199]Ibid., 50-51.

Ⅴ. 제자 훈련과 기독교 교육

1. 제자훈련의 정의 및 목적

제자훈련을 하려면 먼저 '제자'라는 단어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만 한다. '제자'라는 말이 영한사전에는 "스승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배우며 순종하고 그가 하는 일을 조력하는 자" 라고 정의 되어 있다.[200] 국어사전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또는 받은 사람, 도제, 문도" 등으로 되어 있다.[201] 또한 제자의 사전적 의미로는 "배우는 사람, 학생, 제자" 등의 뜻을 갖고 있다.

헬라어에서 제자란 말은 'μαθητής'(마세테스) 인데 그것은 '어떤 사람에 게서 배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μαθήτευώ' (마세튜오)에서 온 명사로 '배우는 사람' 즉 학생,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자라는 말은 명사 형태인 'μαθητής'로 쓸 때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지만 동사 형태인 'μαθήτευώ'로 쓸 때는 배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선생을 따라 자기 삶의 방향까지 바꾸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자란' 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202] 즉 제자훈련은 많은 성경교육 중에 하나인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훈련은 예수님 닮기 훈련이요 삶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라고 Dietrich Bonhoeffer는 말했다.[203]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크리스천' 이라는 이름뿐인 많은 평신도들을 깨워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소명자로서 상호 사역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재

---

[200]disciple, *Webster' s third New Intemational Dictionary*, Vo1. (17th : G&C. Merriam Co. 1976), 44.

[201]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2000), 2223.

[202]Josh Hunt and Dr. Larry Mays, *왜 내게 배우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가?* 최일희 역 (서울: 디모데, 1999), 23.

[203]Davids Watson,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4), 17.

조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자(disciple)와 훈련(discipline)은 같은 어원에서 연유된 것인데 제자란 선생에 의하여 부과된 훈련을 자의적으로 순종하여 복종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더욱 엄격한 훈련을 자기 자신에게 부과할 줄 아는 사람이다.[204]

구약 성경에서의 제자란 말의 히브리어는 'לָמַד'(라마드)에서 온 말로 'תַּלְמִיד(탈미드)'가 두 번만 사용되었다(대상 25:8; 사 8:16). 한번은 성가대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 한 번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켜야할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205] 제자의 ' 'תַּלְמִיד(탈미드)'는 특별히 숙달되지 못하고 덤벙대는 자들을 징계하거나 엄한 훈련을 통해서 가르치고 길들이는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תַּלְמִיד(탈미드)'의 뿌리인 'לָמַד라마드)는 "~하는 데 익숙하다, 배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약성경에서의 제자란 용어는 'μαθητὴς'(마세테스)로 나타난다. 이것은 'μαθητεὺω'(마세튜오)에서 유래한 것이다.[206] 이 용어의 의미는 배우는 자, 생도,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207] 이 용어의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총괄하는 말로 단순히 선생과 제자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더 깊숙이 생명과 재산 그리고 그들의 신분까지도 보장해 주는 주인으로서 예수님과 맺는 관계를 나타낸다.[208]

제자라는 말이 마가복음에서 협의적인 의미로 12제자에게만 제자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12명을 제자로 부르는 협의의 의미와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제자로 부르는 광의의 의미 둘 다 사용하고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광의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의 품으로 들어오는 모

---

[204]J. Oswald Sanders, *영적 지도력*, 이동원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2), 80.

[205]George Arthur Buttrick, *Disciple, in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An Illustrated Encyclopedia, Vol. 1* (New York: Abingdon, 1962), 845.

[206]Ibid., 540.

[207]William F. Arndt and F. Wilbub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486.

[208]Buttrick, "Disciples",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An Illustrated Encyclopedia, Vol. 1997), 845.

든 신자들에게 제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209]

사복음서 저자들은 마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자라는 이름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의 품으로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먼저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성도가 제자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닮아 가도록 성장하고 있으며 전도의 성취한 열매이며 그 열매를 보존하기위하여 양육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210] 말할 수 있다. 또한 제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하는 그리스도인이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며 매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211] 할 수도 있다.

또 제자는 제자 삼는 자와 제자사이의 특별한 일대일 관계를 말하는데, 제자 삼는 자는 제자를 위해 크리스천 삶의 모델이 되고, 제자에게 기본 기술을 전수하고, 제자가 동일한 것을 재생산하는데 책임을 진다고도 말한다. 그래서 제자훈련 없이는 복음전파의 성공은 어렵다. 교회에 제자훈련이 부재함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212] 제자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사역인 복음전파와 세상에서의 제자의 삶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제자훈련이 지향하는 바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계승한 건강한 평신도상을 정립하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교회의 탄생과 건강한 교회성장의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은 평신도를 복음의 전파자로, 진리의 교사로, 사랑의 치료자로 헌신하게 하는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사는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자기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소명자로 만드는 것이 제자훈련이다.

---

[209]원종국, *제자훈련의 성서적 이론과 실제* (서울 : 임마누엘, 1987), 21.

[210]Gary W. Kuhne, *제자훈련의 원동력*, 엄종호 역 (서울: 나침반사, 1984), 15.

[211]WayLon B. Moore, *제자 배가의 원리* (서울: 한국 네비게이토 선교회, 1982), 21-23.

[212]Carl Wilson, *With christ in the School of Disciple Building* (Grand rapids: Zondervan, 1979), 38.

제자훈련의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제자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기위해 재생산의 삶을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신자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기 원하는 신앙인으로 만드는데 있다. 이것이 평신도 훈련의 목적이다.

2. 제자훈련의 성경적 근거

성경이 말하는 제자훈련의 근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마 28:19-20)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원문에 의하면 4가지 동사 중에 명령형 동사는 오직 μαθητής (제자를 삼으라 = make disciples) 하나이며 나머지 3가지는 그 명령형 동사를 수식해 주는 분사동사(Participle)이다. 즉 이 지상명령에는 '가다', '제자삼다', '세례주다', '가르치다' 네 개의 동사가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며, 나머지는 분사형으로 주동사를 수식하고 있다. 이것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줌으로써 제자를 삼고, 그들을 가르침으로써 제자삼는 과정을 계속하라는 의미이다. 즉, 가는 것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도 모두 제자삼는 훈련 중에서 중요한 수단과 과정인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제자삼는 사역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이다.[213]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최대의 위임명령의 참 뜻은 모든 족속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는 가서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현지인들을 예수의 제자, 즉 지도자가 되도록 개발하고, 다시 현지 지도자들이 그들의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여, 그들의 족속을 복음화 할 뿐 아니라 다시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세계선교에도 동참하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훈련의 본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강론하여 2년 동안을 제자훈련 시킨 예는 제자훈련의 좋은 예이다.[214]

---

[213]최종상, "교회와 제자훈련," *신학적 관점에서 본 제자훈련*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53-54.

[214]P.T. Chandapilla, *예수님의 제자훈련*,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1990), 33-34.

나아가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명령은 명백히 제자훈련의 성경적 근거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바울은 예수께로부터 의탁 받은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쳤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의탁하며,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은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전달해야 했다.

바울은 진리와 생활 규범의 가르침이 예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자기에게서 디모데로,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자들’로, ‘충성된 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계속 계승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215] 이처럼 제자훈련은 명백한 성경의 명령이며, 목회의 본질이고, 선교 사역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제자로 훈련을 받아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재생산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3. 제자훈련의 역사적 고찰

1) 구약에 나타난 제자훈련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신약성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훈련은 그 역사적 근거를 헬라 문화에서가 아니라 구약 성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성서에 나타난 제자훈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1)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계승자가 되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처음 등장시킬 때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216] 모세는 여호수아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

[215]최종상, 55-56.

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게 한다(출 17:9-10). 모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간다. 이는 지도자로서 대담성 및 현장 경험을 쌓게 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수아에게 제자훈련의 사역인 “너는 그를 대담케 하라” 고 명령하셨다(신 1:38). 또한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 안수할 것과 그에게 위탁할 것을 말씀하셨다(민 27:18-20). 더 나아가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제자훈련의 마지막인 격려를 한다(신 31:7-8).

위와 같은 근거를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구원사역에 쓰시기 전에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모세는 여호수아를 재생산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볼 수 있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쓰임받기 까지 함께 동거하고, 먹고, 동행하여 제자로 훈련을 쌓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어받는 후계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훈련에 있어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과정에서 보게 된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왕상 19:16)을 받은 엘리야는 열두 겨리 소를 앞에 세우고 밭을 가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던져줌으로써 그를 불렀다. 이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섬으로 스승과 제자 관계가 성립되었다(왕상 19:19-21).

구약의 대표적인 제자훈련의 모델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러한 방식으로 성립되어졌음을 볼 수 있다. 엘리야의 제자 선택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를 때의 과정인 만남, 부름, 따름의 양식(막 1:16-20, 2:14)과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름으로써 엘리사는 스승을 섬기는 자로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긴밀한 공동생활을 통한 제자훈련으로 스승의 직무도 계승받게 되었다.[217]

엘리야의 승천 직전인 길갈, 벧엘, 여리고 등의 제자훈련 과정을 철저히 뒤따라

---

[216]Ibid,, 59.

[217]P.T. Chandapilla, 168.

갔던 것은 끝가지 엘리야에 대한 스승으로서의 섬김과 배움, 그리고 스승의 영감을 전수받게 됨을 믿고 함께 생활을 해왔던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재생산하여 그에게 사역을 위임하였고, 엘리사는 그의 스승으로부터 전수 받은 훈련을 통하여 바알 숭배자와의 대결과 저들을 처단하기도 하였다. 엘리야의 승천한 이후 엘리사는 스승으로부터 배운 기도의 생활과 능력 행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스승이 했던 모든 것에 비하여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로 표적과 이적이 행함 속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3)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애굽과 앗수르의 위협을 받고,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하며 신앙이 형식과 위선에 빠졌던(사 1:2-4) 아주 어려운 시기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로 그의 제자들을 훈련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사 8:16)는 구절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제자 공동체에게는 개봉하고,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봉함하라는 것이었다.[218] 여기서 제자들은 이사야에게 가르침을 받은 소수의 영적인 무리들을 의미하며, 앗수르는 필경 패하고 유다의 남은 백성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그 때의 경건한 무리인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 가운데 싸매두라 하신 것이다.[219]

이렇게 부탁한 이유는, 당시 유다의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말씀의 성취 날은 확실히 임하기 때문에, 그 증거의 말씀을 그의 제자인 소수의 무리에게만 가르치라는 명령이었다. 이 소수의 무리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곧 제자훈련이다. 결국 이사야는 소수의 무리를 놓고 제자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2) 신약에 나타난 제자훈련

역사적으로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의 개인 사역을 소홀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군중을 이끌 대중 프로그램에 있지

---

[218]Ibid., 173.

[219]최종상, 55-56.

않고 그 군중이 따를 사람들에게 있었다.[220]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신 후 그의 생애를 증거하고 그의 사역을 계속할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흔적은 4복음서 전체에 골고루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221]

시작(요 1:29-51), 어부들(마 4:18-22, 막 1:16-20, 눅5:1-11, 세리 마태(마 9:9-13, 막 2:15-17, 눅5:27-32), 12제자 선택(마 10:1-4, 막 3;13-19, 눅 6:12-16, 행 1:13), 듣고 봄(눅 1:1-4, 마 13:16-17, 눅 10:23-24), 기도의 가르침(마 6:5-13, 눅 11:1-13, 18:1-5), 전도의 첫 시도(마 10, 막 6:7-13, 30-32, 눅 9:1-11), 위험(요 6:1-15, 마 16:13-21, 요 6:16-21, 32-58), 베드로의 고백(마 16:13-20, 막8:27-30, 눅 9:18-21), 십자가의 첫 가르침(마 16:21-28, 막 8:31-38, 눅 9:22-27), 변화(마 17:1-13, 막 9:2-13, 눅 9:28-35), 우레의 아들들(눅 9:51-56), 자기부인(마 19:1-26, 막 10:1-27, 눅 18:15-27), 십자가의 두 번째 가르침(마 20:17-28), 십자가의 세 번째 가르침(마 26:6-13, 막 14:3-9), 첫 이방인의 열매(요 12:20-33), 섬기는 주(요 13:1-11), 기념(마 26:26-29, 막 14:22-25), 중보적 기도(요 17장), 흩어진 양(마 26:36-41, 요 18:15-18), 기다리라(행 1:12-14) 등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여 훈련이라는 가장 효과적이고 신비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 훈련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죄로 타락한 인간을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으로 해결하고, 그러한 사실을 제자훈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기 때문이다.[222]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해결하신 구속의 복음을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셨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회개한 사람들은 성화를 이루도록 하셨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대신하게 하셨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훈련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의 삶이 그의 제자들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다른 이들의 삶 속으로 재생산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그의 사역은 제자로의 인생 안에서 여러 배로 복사될 것이다.[223] 처음 시작하는 그룹이 아

---

[220]Robert E. Coleman, *주님의 전도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21.

[221]A. B. Bruse, *The training of the Twelve* (Michigan: Kregel Pub 1980), 23-30.

[222]Robert E. Coleman, 17.

무리 적어도 상관이 없었다. 그들이 그들의 제자들을 생산하고 가르쳐서 재생산하게 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이것이 그의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그들도 자기들과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즉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1) 안드레와 베드로

안드레는 항상 예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로 복음서 속에 나타난다. 그의 형제 베드로를 인도했으며(요 1:40-42),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예수께로 인도했고(요 6:8-9), 예수께서 헬라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도 안드레였다(요 12:21). 그가 인도한 형제 베드로를 통해 오순절날 수천의 유대인들이 회심 했으며(행 2장), 이 회심한 유대인들은 핍박으로(행 8:1-4) 흩어져 안디옥으로 여행하여(행 11:19) 이방인이 회심을 위한 문을 열었다(행 10장). 여기서 형성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였고(행 13:1-4), 결국 안드레의 사역은 오늘날까지 확장되었음을 볼 수 있다.[224]

(2)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 예루살렘을 여행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두려워했으나, 바나바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확인했다(행 9:26). 그 후 안디옥에서 사역 당시 무리가 많아지자 바울을 초대하여 1년여 간 함께 사역을 했다(행 11:24-26). 바나바는 그의 조카 요한 마가를 제자로 삼았는데 바울과 2차 선교 여행시 마가로 인하여 바울과 결별한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채찍질하여 후에 바울도 마가를 그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하게 되었다(딤후 4:11). 바나바는 사람들의 과거의 문제들을 보았으나, 그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개발하는 훌륭한 제자삼는 자의 모습을 보였다.[225]

---

[223]Robert E. Coleman, 105.

[224]WayLon B. Moore, 35-36.

[225]Ibid., 44.

3) 초대교회 제자훈련

초대교회의 훈련은 성령강림 이후 시작된 사도들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기도, 떡을 떼는 일 등 제자들의 신앙생활 지도로 모든 공동체 생활 그 자체 속에서 이루어졌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로 3천여 명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자(행 2:41) 이들을 향한 사도들의 계획은 제자삼는 일이었다.[226]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헌신된 교제로 인도함을 받았다(행 2:42). 사도들은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를 훈련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의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행 2:44-47).[227] 바울은 그의 선교여행을 통하여 제자를 삼고 굳게 하는 일을 계속했다(행 14:21-28, 딤후 2:2). 그의 3차 선교여행은 1, 2차 선교여행에서 얻은 열매들을 양육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시 돌아보는 일을 반드시 했다.[228]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는 개인적인 파송을 통해(빌 2:19-22) 성도들을 굳게 하였다. 사실 그의 서신 중 상당수가 바울이 직접, 간접으로 세운 교회들을 양육하는 목적에 기록되었다.

초대교회에서 제자를 삼는 사역은 성직자와 평신도와의 분리현상과 더불어 2세기부터 5세기 까지 사이에 쇠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사 속에서 그 근거를 찾기란 극히 어렵다. 그러나 교회사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Polycarp을 훈련시켰고 그는 또 Irenaeus를 키웠다.[229]

초대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초신자 세례 학교였는데 이 학교는 1세기와 2세기 동안 계속 존속하다가 주후 325-450년 동안 크게 부흥했으나, 450년 이후로는 쇠퇴해진 학교로 수학기간은 2-3년, 초급 청강반, 중급반은 기도반, 고급반은 선별반이라 불렸고, 남녀노소, 유대인, 비 유대인을 초월하여 새신자들을 감독, 사제, 집사, 전담 강사 등이 가르친 훈련학교이었다.[230]

---

[226]Ibid., 45-46.

[227]WayLon B. Moore, 35-36.

[228]Leroy Eims, 47.

[229]WayLon B. Moore, 38.

[230]C. B. Eavey, *기독교 교육사*, 김근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1980), 124-125.

4) 중세 시대의 제자 훈련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국교화 이후 성직자와 평신도들 사이에 분열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 흩어져 그리스도를 주로 전파하던 초대교회 신자들은(행 8:4) 2세기도 지나지 않아 성직자로 하여금 이 일을 전담토록 하고 말았다. 따라서 전도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의 직업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제자훈련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세의 제자훈련은 교권과 그 보전을 위한 교육적인 행위였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중세의 제자훈련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교권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그리고 중세 제자훈련은 성직자와 귀족들의 자녀만을 용납함으로써 사회의 이원적인 계급형성과 양극화 작업에 앞장선 것으로 서민과 민중을 교육의 기회로부터 배제하는 비인간화를 자아냈다.

5) 종교개혁 시대 이후 제자훈련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러한 고민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서 해결책을 찾았다. 이 개혁운동은 잃었던 성경을 다시 발견하였고, 덮여있던 성경을 다시 열어 놓아 성경이 모든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였다.[231] 이 개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왕 같은 제사장 직분과 하나님께 교제하는 개인적인 권리를 되찾았고, 모든 예배에 누구나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님을 개인적인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자녀되는 구원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제자훈련에 있어서도 위대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동안 로마교회의 형식주의와 상징주의를 추앙하던 맹목적 교육형태의 기반을 뒤흔들어 놓게 되었다. 루터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만인제사장론의 기초가 되었으며 평신도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다.

종교 개혁자 칼뱅도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와 기독교 구원 진리의 유일한 표준으로 믿었다. 그는 성경강해에 의한 설교, 성경 전체에 대한 주석, 성경에 근거해서 조직화한 신학의 체계를 세웠는데, 이러한 것은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 잘 나타나 있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론을 다루는데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231]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컨콜디아사, 1972), 35-36.

을 영접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지침서와 선생님 구실을 한다(6 장)고 했다. 즉 성경은 신앙과 신학을 위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한 것이며,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만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처리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 칼뱅이 만든 신앙교육서는 청소년들이 이 책을 배우게 했고, 성인들에게는 주일 오후 예배에서 설교를 통하여 가르치기도 했다.

종교개혁의 강력한 추진력은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진행시키면서 만든 많은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 주석 등은 하나같이 훈련의 결실이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각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로써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부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지상명령에 따른 제자훈련의 분부를 다시 시작하게 된 운동이며, 초대교회처럼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하게 된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6) 근대 한국 교회의 제자훈련

한국 교회 최초의 성경공부는 1887년 봄 아펜젤러 선교사의 집에서 배재학당 학생 한 사람과 젊은 관리 한 사람이 비밀리에 시작하였다. 또 1888년 1월 이화 학당에서 처음으로 주일학교를 시작하여 처녀 12명과 부인 3명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였다.[232] 1888년 2월 스크랜톤 부인이 주일 밤마다 여자들을 위하여 성경공부를 시작했고 그해 가을에는 평균 35명이나 되었다.[233]

언더우드선교사는 1890년 자기 서재에서 7명의 학생들을 모아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1901년에는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선교정책으로 채택되어 1909년에 이르러서는 북 장로교 선교지역인 평안 남북도와 경상북도, 서울, 경기, 황해 일부에만도 800여개의 성경 공부반에 5만여 명이 공부하였다.[234]

한국 교회 초기 성경공부의 배경은 전국적인 규모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증가 되어 나갔는데, 단일반으로 성경 공부하던 그룹이 나중에는 남녀 반으로 나뉘어

---

[232]Allen D. Clark,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Seoul: C.L.S, 1971), 98.

[233]Ibid., 100-101.

[234]Ibid., 104..

서 하기도 하였고, 도시와 농촌 평신도와 지도자반 등으로 확장되고 초신자와 세례교인을 구분하여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국 교회 초기에는 주로 세례를 위해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했으며 가정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성경공부가 이루어졌으며 점차 교회를 중심으로 사경회를 통한 성경공부가 이루어졌다.[235]

한국 교회의 기본 사상인 네비우스의 선교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 자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공부이다. 마포삼열은 "우리는 네비우스로부터 우리 선교사업의 양대 원리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성경공부반의 조직과 자급의 원리였다.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의 원리에서 성경공부에 대하여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사는 친히 널리 순회하며 전도할 것, 둘째 신자는 저마다 한 교사가 되어서 합당한 사람을 만나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개인 혹은 단체가 저마다 복음사업의 확장에 따르는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힘쓸 것, 셋째 각 교회는 자치적으로 경영하되 각 교회에서 택한 무보수의 지도자에 의하여 교훈을 받고 처리 되도록 할 것이며, 그 지방의 조사는 각 교회가 봉급을 분담하여 지불하게 하고 조사는 성경 지식과 경험을 쌓아 나중에 목사가 되게 할 것, 넷째, 모든 교회는 자급적으로 경영하되 예배당 건축, 교회 경비, 순회 조사의 봉급 등을 신자들이 분담하도록 할 것. 다섯째, 각 교회는 성경 공부 반을 조직하여 그 교회의 장로나 영수 또는 조사로 하여금 신자들에게 성경 지식을 넓히도록 할 것 등이었다.

한국 교회에서는 그 형성시기부터 선교사들이 제자훈련을 중요한 선교정책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제자훈련은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낯선 목회 선교전략은 아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이 한국 교회에 중요한 교회 프로그램으로 널리 보급된 것은 1960년대 북미와 영국에서 복음주의 운동의 발흥과 더불어 IVF, 네비게이토선교회, C.C.C 등 초교파 학생운동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부터이다. 1970년대 초교파 학생운동이 한국에 널리 보급되고, 대중전도운동이 발흥하면서 초교파 선교단체들이 제자훈련을 한국의 학생운동에 접목시켜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대상은 장년들이 아닌 학생들이었다.[236]

---

[235]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서울: 기독교서회, 1980), 209.

[236]박용규, *한국 교회를 깨우는 복음주의 운동* (서울: 두란노, 1998), 116-117.

4. 평신도 제자훈련의 필요성

평신도에게 제자훈련이 필요한 이유를 W. B. Moore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237] 첫째, 제자 삼는 일은 무한한 개인적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방법 중의 하나다. 둘째, 제자를 삼는 일은 가장 융통성 있는 사역이다. 셋째, 제자 삼는 일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신속하며 확실한 방법이다. 넷째, 제자를 삼는 일은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더 장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제자훈련의 필요성은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리고 서구 기독교의 쇠퇴원인에 대하여 David Watson은 교회의 제자훈련의 부재에서 찾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절대적으로 무시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38]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것은 오늘의 많은 교회의 현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에 맞는 올바른 사역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이러한 평신도 중심의 교회구조로 전환을 이루도록 가장 중요한 필요성을 네 가지로 논하고자 한다.

1) 평신도 자아상의 정립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교회 체질 개선은 평신도의 자아상에 대한 의식구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신도가 자기를 누구로 알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 어떻게 반응 하는가는 곧 그 교회가 어떤 체질의 교회인가를 결정지어 주는 요인이 된다.[239]

만일 평신도 자신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객체로 생각하고 있다면 언제나 교역자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무슨 일에나 피동적인 무기력한 거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가 이런 어울리지 아니하는 평신도의 자아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제자도는 평신도의 의식구조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성경적인 전략이다.[240]

---

[237]WayLon B. Moore, 31.

[238]Davied Watson, 13.

[239]Ibid.,18

[240]옥한흠, 131.

이와 같이 제자훈련의 목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게 하는 것이다. 훌륭한 제자는 저절로 태어나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다. 교회가 평신도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워야 한다. 온전한 자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야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진다(엡 4:12). 제자훈련은 자신이 먼저 자아상을 갖추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므로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역이다.

2) 전문적 능력을 가진 평신도

오늘의 세계는 급격히 도시화되고 산업화되어 가는 다원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는 교회의 사명을 목회자들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 교회는 평신도를 개발하고 사역을 위임해야 한다. 평신도를 개발하지 않고 인물빈곤, 지도자 부족, 경제적 곤란을 운운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인들에게 각각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주셨다. 따라서 교회 각 지체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잘 발견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유익하도록 활용해야 한다. 오늘의 교회는 평신도들의 막대한 자원을 동결시키거나 사장해 버리고 교역자가 교회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목회자 중심의 목회로부터 벗어나 평신도들이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평신도 중심의 목회로 전환되어야 한다.[241] 아무리 목회자의 역량이 유능하고 훌륭할지라도 혼자서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역량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협력하고 밀어주어야 하는 평신도들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사업가, 공무원, 교사, 의사, 직장인 등 갖가지 전문적인 직업인들이 있다. 그리고 각각 다양한 특기와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들 평신도들을 교회 안에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목회자가 사역하는 것 그이상의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평신도 자신들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사역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면 거기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한 몸된 모든 지체가 각각 그 기능에 따라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움직일 때 그 활동이 더욱 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신도의 은사발견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은사테스트를 실시하여 은사 기록 카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자신의 은사를 기록하여 제출하면 목회자는 그것에 기초하여 은사와 재능에 따라 교회의 각

[241]Ibid., 66.

사역 부문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3) 목회자 사역 중심에서 평신도 사역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1절-12절에서 목사를 세우신 이유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목사의 할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온전하게 된 평신도들은 봉사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무리하게 많은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스스로 찾고자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의 문제의 답을 찾도록 도와주지는 못한다. 문제가 발생하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이 느끼며 문제를 빨리 해결하여 덮어 버리려고 한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피상적으로 볼 때 신뢰감이 가며 항상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의 특징은 늘 일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언제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242]

반면에 하는 일이 별로 없는 성도들은 그들의 사역할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골칫거리를 주는 존재이며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숨겨진 장점을 찾기 어렵다.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일수록 혼자만 일을 도맡아 하기 쉽고, 반면에 그가 섬기는 성도들은 아무 하는 일이 없이 지내기 쉽다. 늘 할 일이 많다고 불평하는 목회자들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수동적이거나 매사에 참여도가 낮은 평신도들이 많다. 목회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그들이 혼자 모든 일을 수행해 버릴 때 공동체 내에서는 헌신하고자 하는 적극성이 결여된다는 점이다. 교회 내에서 지도자 혼자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성도들은 의욕을 잃고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평신도들의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불평하기 이전에 지도자부터 자세를 점검해

---

[242]Paul. R. Stevens & Phil.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최기숙 역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1997), 80.

보아야 한다.

4) 협력 사역자 확보

평신도란 교회의 주체로서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사명을 다해야 하는 절대다수의 교회 구성원들이다.[243] 제자훈련의 장점은 분담 사역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를 가장 괴롭히는 고통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아니면 교회 안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고독감이다.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를 계속 개발하면 이런 고독감이나 피로감을 덜 수 있다. 목회자들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일은 자신들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도들이 전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성도를 구비시키는 목회자의 한 가지 사명은 그들의 사역에 성령께서 능력 주심을 믿게 하며 또 그 능력 주심을 간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성도들은 기대 수준만큼 성장하며 자신들을 믿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 자신들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믿게 되면 그 결과 사역을 나눌 수 있게 된다.[244]

평신도들을 세워 주면 은사를 따라 적극적으로 사역하게 되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이바지하는 것을 통한 보람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경적인 목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되도록 무장시키는 훈련이다. 제자훈련의 필요성은 이와 같이 평신도 자아상을 회복하게 하며, 자기 은사를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유익하다. 또한 목회자에게 편중된 사역을 평신도에게 위임하므로 분담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됨으로 제자훈련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5. 예수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제자 훈련의 원리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시간을 보내시며 훈련하셨다. 예수께서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봉사하였을지라도 특별히 선택한 열두 제자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

[243]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지도자를 세워라* (서울: 도서출판 멘토, 2002), 91.

[244]Ibid., 168.

할애하여 가르치고 훈련하셨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므로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고, 봉사의 본을 보여주셨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는 임마누엘 교육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못지않게 제자 훈련을 한 사람이 사도바울이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훈련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훈련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후 정리한 내용이 있다. 먼저 Robert Coleman은 그의 저서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훈련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 자라기를 바라는 사람을 선택한다. 둘째, 선택된 사람들과 시간을 가짐으로써 훈련을 시킨다. 셋째, 훈련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돕는다. 넷째, 이들을 위해 분여를 하여 성숙하게 한다. 다섯째, 시범을 통하여 할 일을 가르친다. 여섯째,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일을 맡긴다. 일곱째, 맡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덟째, 마침내 재생산하는 단계에 도달한다.[245]

그리고 Carl Wilson은 그의 저서 'With Christ in the School of Disciple Building'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회개와 믿음. 둘째,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 셋째, 사역훈련. 넷째, 지도력 개발. 다섯째, 지도자에 대한 재평가. 여섯째, 지도자로서의 위임. 일곱째, 변화된 삶과 세계 선교의 비전이다.[246] 이 모든 것 중에서 어떤 것도 절대적인 정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전도와 선택의 원리

첫째, 예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기 이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47] 공생애 출발 직전에도 수세 후 40일의 금식과 시험과정을 거치셨다(마 4:1-11). 또한 열두 제자를 선택하기 직전에 기도로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으매…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눅 6:12-13).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를

---

[245]Robert E. Coleman, 117-118.

[246]Carl Wilson, *목회와 제자양성*, 권명달 역 (서울: 보이스사, 1992), 134.

[247]Ibid., 146

선택하고 제자훈련을 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이 충분한 기도로 준비하고 훈련되어져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둘째는 소수 선택 집중의 원리이다. Robert E. Coleman은 "이 소수 선택 집중의 원리는 우주에 새겨진 원리이며, 누구든지 이 원리를 실천하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248]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훈련의 특징은 소수를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이었다.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소수의 평범한 사람에게 단순히 그를 따르도록 부르셨던 것으로 매우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그 소수 집단의 외적인 조건들은 별로 신통하지 않았으나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가 확립되어 있었기에 가르치기에 좋은 사람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집중시킨 것은 바로 이 12명의 소그룹이었다. 그 중에서도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주님이 특별히 함께 하셨다.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었다.[249]

주님은 소수를 통해서 대중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다. 12명에게 기독교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그러기에 주님은 꾸준히 그들을 지도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셨다. 현명한 지도자는 헌신적인 소그룹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Davids Watson은 이렇게 말하였다.

> 현명한 지도자라면 누구나 헌신적인 신자 몇 명의 소그룹에 시간을 집중투자 할 것이다. 사실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다. 바울은 디모데, 누가, 디도, 실루아노 등 소수와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확실하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에게서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을 역시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자들에게" 맡기라고 권고했다(딤후 2:2). 소수에게 집중하여 그 소수가 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그룹을 피상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250]

---

[248]Robert E. Coleman, 20.

[249]Ibid., 21.

[250]Davids Watson, 77.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수의 대중에게만 머물러 있는 시선을 이제는, 소수에게로 돌려서 집중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와 있다. 소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원리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원리이다. 셋째는 복음 수용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중에서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은 나와서 신발의 먼지까지 털어버릴 것을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다. 누가복음 9:14에는 남자가 오천 명이나 되었고 제자들에게 떼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하셨다. 이 같이 때로는 남자만 오천 명이 될 때도, 오백여 형제가 모일 때도, 백이십명이 모일 때도, 수십명이 모일 때도, 그리고 세 명이 모일 때도 있었다.

그 중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인 자들을 중심으로 칠십 명을 선택하셨고, 그 중에서 십이 명을 선택하셨으며, 그 중에서 다시 세 명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씀을 듣는 제자로 선택된 사람들은 신속히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고 성장하는 제자들에 참여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

주님은 복음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이나 사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다. 수용성에 있어서의 차이는 인간 본성과 사회의 현저한 측면들 중에 하나다.[251] 예수님의 제자선택은 복음의 수용성을 중심으로 하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먼저 제자로 선택하고 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훈련의 방법이라고 본다.

(2) 양육과 동거의 원리

첫째는 공동생활을 하셨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세우실 때 “자기와 함께 있게”(막 3:14) 하시고자 하였다. 이 원리에 따라 그는 택하신 제자들과 더불어 공동생활을 하시면서 그의 인격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실제적인 훈련을 지속시켰다. 예수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12명에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던 것을 보면 공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

[251]Donald A. McGavran, *교회성장 이해*, 전재옥 김요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367.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진수는 단순히 그의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세계를 정복할 사람들을 훈련하실 때 주님은 단지 그들을 가까이 있도록 하였다.[252] 주님 자신이 학교요, 교육 과정이었다. 지식이 법칙과 교리의 형식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신 분의 살아 있는 인격으로 전달되었다. 지식은 설명을 통해 이해되기에 앞서 함께 거함으로써 얻어졌다. 예수님이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 투자하신 시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신 시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인 전략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253]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며, 함께 나누는 신자들의 작은 모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최고의 훈련이 가능하다. 제자훈련은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처럼 단지 이론교육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생활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 즉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삶에 있다.

따라서 제자훈련은 책상에서 하는 이론 교육만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전도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생활을 통해서 건강하게 제자는 세워진다고 본다.

둘째는 시범 교육의 원리(눅 22:39-46)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요 13:14)고 하시며, 봉사의 본을 보이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모범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의 효과를 거두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기도는 20회 이상 발견되며, 예수님은 생애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했다(눅 22:39-46, 9:29). 예수님은 말씀 사용의 모범을 보이셨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대화에 최소한 66회 구약을 인용하였고, 타인과의 대화에는 90회나 구약을 사용했었다.

예수님은 전도의 모범을 보이셨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많은 사람을 만났으나 무의미하게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일단 만나면 전도를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교육을 행하였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의 하나가 전도라고 강조했다(막 1:38). 예수님은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방문했으며 자기를 방문

[252]Robert E. Coleman, 145.

[253]Davids Watson, 38-39.

해 온 사람에 대해서도 전도하였다(요 3:1-21, 4:1-38).[254] 이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범적 사역을 보면서 배우고 듣고 본대로 자기들도 기도하고, 성경을 애독하고, 전도하게 되었다.

셋째는 조사 점검의 원리(눅 9:54-56)였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위임한 사역을 수행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쉬게 하고(막 6:31), 칭찬도 하였으나(눅 10:19-20), 잘못된 방법을 책망하고(눅 9:54-56), 인내를 강조하면서(눅 9:55, 막 9:38) 새로운 방법을 지시하고(막 9:17-29, 마 17:14-20), 제자들의 임무를 고무적으로 확산시켜 주었다(막 6:30-44, 마 14:13-21, 눅 9:10-17).

점검과 감독은 성장의 요체이다. 예수님의 점검전략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함양시켜 주었고, 이단 사설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예수님의 점검 전략은 가장 효과적인 현장 훈련이었으며, 주님 스스로 모범을 보이셨고, 숙제를 부여하고 점검하는 교육방법으로 제자들의 장점을 개발하는데 사용했다.[255]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은 후에 전도의 정의를 내리고, 전도의 방법을 가르치고, 전도할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이 점검 전략을 활용하셨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전도 수업이었다.

(3) 훈련과 반복의 원리

첫째는 순종 훈련의 원리(마 9:9)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주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었다. 주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여 자기의 전 생애를 맡기는 것이 제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다. 순종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그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진리를 배우는 최고의 수단이었다. 세상과의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훈련의 필요성과 권위에 대한 순종을 연습시키면서 병졸들을 장래의 사령관으로 길러내셨다.[256] 먼저 제자가 되어야 장래에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지도자가 되려면 오직

---

[254]Davids Watson, 123.

[255]Carl Wilson, 125.

[256]Robert E. Coleman, 50-59.

순종과 충성을 다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지혜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순종을 요구하였다. 제자는 스승의 진리나 규범을 순종할 때 스승과의 인격적인 결속이 이루어진다. 순종이란 헬라어로 'ὑπακούω'(휘파큐오) 인데 이 말은 '따른다', '복종하다', '듣는다', '요구에 응한다', '권위에 일치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주권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도록 요구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추종할 수 없도록 훈련하셨다. 눅 9:59-6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은 부모의 장례식도 개의치 말고,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분부했는데, 이는 제자들의 예수님께 대한 순종을 강조한 말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요구한다(마 16:24, 막 8:34, 눅 9:23). 여기서 십자가란 '비신앙적인 영광, 비신앙적인 지위, 비신앙적인 욕망 등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부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희망이나, 욕망이나 애정에서 발을 끊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순종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제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예수님과 만민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며, 예수님께 여러 배의 보상을 얻게 된다.

둘째는 반복 훈련의 원리이다. 열두 제자의 임명에 관해서는 마 5:1, 10:2-4, 막 3:13-19, 눅 6:12-16에 기록되어 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고찰해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가르치신 것과 그의 진리가 제시된 순서를 모두 발견할 수 있다. 70명의 임명은 눅 10:1-16에 기록되어 있다. 열두 제자의 훈련과 70명의 훈련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가르치신 것과 70명의 전체 전도에 대해서는 16절로 설명하고 시간적으로는 훨씬 오랜 기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257]

누가복음 뒤에 나오는 장들은 예수님께서 70명을 가르치신 기록이다. 이 가르침들은 열두 제자에 대한 논평이었고, 아마 열두 제자로서는 거의 새로운 자료가 채택되었던 것 같다. 두 병행적인 기록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70명에게 똑같은 진

---

[257]Ibid., 68.

리를 가르쳤음을 보여주는 자료의 제시이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들을 가르치신 순서는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연관성이 있는 진리를 가르치곤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연대적으로 차이가 났었다. 또한 강조점과 주제에 따라 그 가르침은 다르지만 원리는 늘 똑같았다.

예수님의 제자훈련 원리는 12제자에게 먼저 가르치셨고, 다시 70명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원리를 가르치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훈련 원리들은 오늘날까지도 반복되어 훈련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사역 위임의 원리(눅 10:1-20)이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시다가 때가 되어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다. 일을 맡기실 때는 결코 서둘러서 일을 맡기시지는 않으셨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가장 큰 과제를 맡기셨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주님 자신이 보냄을 받아 생명을 바쳐 일하신 세계 전도라는 동일한 일에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과 사상으로 훈련된 숙련공과 같은 사역자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추수할 사명을 위임하셨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 열둘에게 그의 사역을 맡기셨는데(눅 9:1-6, 마 10:1-42), 이러한 실례는 70인을 둘 씩 팀을 지어 보낸 일에서 나타난다(눅 10:1-20). 그들은 예수님의 전권대사로 복음 사역을 위임받아 사람을 낚는 자로 나갔다. 사람을 낚는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의 aJrpavzw(하르파조)라는 단어는 몰래 "빼앗는다, 붙잡는다, 취한다, 잡아끌어 당기다"는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의도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당신께 인도하시려는 강력한 의도를 잘 나타낸 말이다.[258]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위임한 사역을 수행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쉬게 하고(막 6:31), 칭찬도 하였으나(눅 10:19-20), 잘못된 방법을 책망하고(눅 9:54-56), 인내를 강조하면서(눅 9:55, 막 9:38), 새로운 방법을 지시하고(막 9:17-29, 마 17:14-20), 제자들의 임무를 고무적으로 확산시켜 주었다(막 6:30-44, 마 14:13-21, 눅 9:10-17).

예수님은 일을 맡기신 후에는 제자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점검하셨다. 그리고 전도하도록 보내신 후에는 전도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이것은 감독과 확인을 통하여 제자들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 하신 것이다. 또한

---

[258]Robert E. Coleman, 171.

세상을 떠나 승천하신 후에는 그들의 사역을 계속 감독하실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셨다.

(4) 재생산 파송의 원리

첫째는 재생산의 원리이다. 예수님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자들을 통하여 자신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재생산이었다. 제자훈련이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계속하여 만들어내는 사역이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닮은 사람들을 생산하게 하실 계획이었다. 지상명령은 교회로 하여금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의 명령에 매여 주님을 따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사람들을 세우라는 명령이다.

제자를 세울 때만이 비로소 다른 활동들, 즉 가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259] 전도의 시금석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고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영혼들을 얻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얻을 수 있도록 훈련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재생산의 원리 전략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수효가 금세기 어떤 선생의 제자보다도 월등히 많았다. 예수님은 재생산을 위해 열둘에게 자신의 모든 생애와 생명을 쏟으셨고 자신을 주셨으며,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시고, 훈련하셨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20)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 도전할 수 있는 교회를 건설하도록 기대했는데, 이러한 위대한 사역은 재생산 전략으로 성취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둘째는 재충전의 원리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3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충성을 맹세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자 모두 도망가고 말았다. 베드로는 숨어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고 베드로를 다시 찾으셨으며 도마와 모든 제자들을 다 다시 만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하게 다시 풀어주었다.

제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재충전 시켜주셨다. 승천하실 때에는 흩어졌던 제자들이 500명이나 다시 모였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재충전을

[259]Robert E. Coleman, 104-105.

시켜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재충전을 받고 성령께 재충전을 받아 능력 있는 사도들이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제자훈련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허물이 드러나고 낙심을 하고 포기를 하여도 주님처럼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책임지고 저들을 용납하고 받아 주고 재충전을 시켜줌으로써 사명감에 불타는 성도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성령의 능력에 의탁하는 원리이다. 모든 훈련으로도 제자들에게는 부족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훈련과 시범과 “아버지께서 이룩하고 하신 일들”을 제자들 앞에서 다 이루시고 승천하실 때 재생산을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탁할 것을 특별히 명령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 충만하기 전 사도들과 성령 충만후의 사도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어떤 평신도 훈련 지도자나 훈련생들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되 충만함을 늘 유지하여야 한다. 성령이 바로 능력의 원천이시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훈련의 모델이시다.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시고 난 후에 훈련 대상을 집단이나 대그룹이 아닌 소수에게 집중을 하셨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인 모범을 보이시면서 삶이 훈련이 되도록 솔선수범을 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좀 서툴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사역을 위임하므로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다. 나아가서 그들만이 아닌 또 다른 세대에게 이어져 재생산하도록 끊임없이 도전을 하셨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제자교육으로 끝나고 재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서 행한다면 오늘날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훌륭하게 제자훈련 사역이 진행될 것이다.

2) 사도 바울의 제자훈련의 원리

사도들 중에 가장 왕성한 제자훈련을 하였고 가장 많은 사람을 결신하게 하고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도가 바울이다. 그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대중전도와 제자훈련 둘 다 중요시하였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교회를 세웠고, 대중전도를 하면서 소수에게 제자훈련을

시켰다.

바울 사도의 에베소에서의 제자훈련 방법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바울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 훈련을 시켰다. 둘째로, 주의 말씀을 두 해 동안 날마다 강론하였다(행 19:10).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것이다. 셋째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였다. 그 결과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260] Billie Hanks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 네비게이토 선교회의 설립자인 도슨 트로트맨이 처음 외우도록 했던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었다....이것은 복음전파와 교회성장을 위한 수학 공식과 같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는 자기가 아는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 계속되는 것이다. 모든 믿는 사람이 이 모형을 따랐다면 교회는 한 세대 동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고 일생을 바쳤던 대중 전도 집회로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결코 완수할 수 없으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이 전략으로는 가능하다.[261]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전도자로 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최대의 위대한 제자훈련가이었다.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제자훈련 방법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수 집중의 방법

사도 바울은 대중을 상대로 하여 복음을 선포하였다(행 17:16-31). 그러나 그는 개인을 선택하여 철저히 양육하고, 그들을 소수 정예화한 충성스런 제자훈련에 몰두하였고 양육된 제자들을 공동체로 만들어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사용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제자 증식의 방법으로 복음 사역의 확대를 도모하도록 명령했다.[262]

---

[260]Billie Hanks and William A. Shell, *제자훈련*, 박광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5), 24.

[261]Ibid., 30.

[262]Edmund, P. Clowney, 165.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말하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한 집중적인 방법이 제자훈련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도바울은 가르침과 변론과 강론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다.

2) 영적 4대 증식의 방법

사도 바울의 제자훈련에서 특이할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나타난 재생산을 통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훈련 받은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자기에게 들은 것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수해 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제자훈련의 재생산 사역을 계획하였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훈련시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훈련시켜 제자들로 삼고 그들이 다시 다른 충성된 자들을 재생산하는 방법이다. 즉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재생산 할 수 있는 전도자로 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는 재생산의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3) 영적 가족관계의 형성

사도 바울은 제자 양육자로서 자기는 영적인 아버지로 불렀으며 자기가 양육한 제자를 아들로 호칭했다(갈 4:19, 딤전 1:2, 고전 4:15). 사도 바울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기초 위에서 권면하고 보살피며 시간을 같이 보내고 영적으로 양육했다. 또한 아버지처럼 모범을 보이고 격려하며 훈련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로 연결되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를 제자훈련에 도입한 사도 바울의 제자양육의 독특한 방식이다(살전 2:7-12).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낳기 위해 감옥과 태형과 위협과 지진과 파선과 죽이려는 음모를 견디었던 것이다.[263] 이러한 영적 가족 관계를 통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복음의 소식이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까지 이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제자 삼는 사역은 이 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더 많이 찾기 위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도 이 사역을 본받아서 계승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협력 사역의 방법(Team Work)

하나님의 관심은 늘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있음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잠 20:6, 25:13, 렘 5:1, 마 25:23, 고전 4:2). 사도 바울은 언제나 충성된 사람들을 은사대로 모아 팀을 구성하여 전도 여행을 함께 하였다.

사도 바울은 팀을 구성하여 복음전파의 동역자로 활용했고, 그 팀과 전도 여행을 같이 하면서 복음사역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는 고린도에서 3년 동안 체류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실라와 디모데를 양육하였으며, 디도의 집에서는 디도를 양육하였다(행 18:3, 5, 7-11). 사도 바울도 제자를 양육하는데 주님과 동일하게 3년을 필요로 하였으며, 제자를 훈련하는 일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고(골 1:28-29),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모범적인 삶을 살며 제자를 훈련하였다(고후 11:29).

위에서 고찰한대로 사도 바울은 제자 훈련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였으며, 제자들의 신앙성장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희생할 각오로써(살전 2:8)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 받는자 되라"(고전 11:1)고 당당히 외치며, 일평생을 그리스도의 참 제자요, 제자훈련가로 살았다.

(5) 바울의 교육 방법

첫째,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의 의미는 "간단명료한 요점을 가지고 주제를 바꾸기도 하고, 요점들을 분류하기도 하여, 그 요점에 대한 긍정적인 정의나 부정적인 정의를 내려 요약하기도 하고, 그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각 부분을 연결시켜 듣는 사람이 완전히 포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264]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진리를 단호하게 선포할 뿐 아니라, 그 진리를 배우려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

[263]Leroy Eims, 55-56.

[264]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0), 117.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교육방법은 배우려는 사람이 그 진리가 포함하고 있는 뜻을 완전히 알게 되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전한 복음을 자세히 가르침으로 인하여 복음을 분명히 받아들이도록 제시해 주었다.

둘째는 변론하기(행 9:29)이다. 이 말은 '의논, 반박, 논쟁, 흠잡다, 질문, 이유를 밝히다' 는 의미인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사용한 이유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에 대하여 질문도 하고, 의논도 하고, 토론하며, 반박도 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하여 복음을 수긍하도록 하는 교육방법이다.[265] 이같은 교육방법이 그의 복음 선포의 중심내용이었다.

이와 같이 제자훈련은 일방적 선포의 주입식 교육이 결코 아니다. 귀납법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평신도로 하여금 깨달은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적인 질문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훈련과정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강론하기(행 18:4)이다. 이 말은 주입식 강의를 하고 끝내버리는 식이 아니라 일문일답식, 토론식 교육방법이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일방적인 교육방법이 아니라, 쌍방 교환 방식을 사용하였다.[266] 그는 진리에 대한 추상적인 설명을 제거하고 확실한 진리를 알고 생활에 적용하도록 하였다(고전 15:1-4).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확실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양육된 제자들을 공동체로 만들어 복음의 동역자로 세웠다. 사도 행전 20장 4절에 기록된 바울과 동행한 일곱 명의 동행자 -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 외에도 바나바, 실라, 디도, 누가, 에바브로디도 등은 그의 훌륭한 동역자들이었다.

---

[265]Ibid., 119.

[266]Ibid., 121.

Ⅵ. 프로젝트의 실행

교회가 제도화되고 대형화되면서 교회의 본질과 특성이 상실되어가고 있다. 교인들끼리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서로를 알지 못한다. 대형 교회는 심지어 목회자가 권사나 집사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새 신자를 아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새 신자들은 어디에 소속할 수 없어서 실망하고 떠나게 되며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1. 교회의 변화를 위한 이론의 적용

우리 교회는 새신자 목회의 적용으로 새신자들이 성숙하는 교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Deborah Capp 교수의 변화의 삼 단계에 따라 하였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빙의 단계이다. 해빙의 단계는 교인들이 현재의 상황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전한 불만의식을 일깨워서 변화 되야 되겠다는 의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앞을 내다보는 선견작업으로 원대한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사용할 변화 이론은 조직 갱신 이론 (The Organizational Renewal Theory)이다. 이 이론은 기존의 조직을 평가하여 원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변화시킴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 동안 본 교회에서는 새 신자가 등록을 하면 구역 조직에 편성되어 돌봄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재의 본 교회 조직으로는 새 신자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지 못하다. 그리하여 새 신자를 어떻게 정착 시킬 것인가를 강조하고 그들을 전담해주는 새로운 새 신자 위원회를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돌보아 주도록 한다. 새롭게 등록하는 사람들만 꾸준히 교회에 나와 교인의 역할을 담당할 수 만 있다면 교회는 매년 배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 신자를 위하여 특별 부서를 두는 것은 귀중한 일이다. 이 단계에서 새 신자를 위한 비전을 나누고 교회의 목적을 새 신자에 두고 새 신자들이 정착하여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성도를 만들어 교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성장시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설문 조사와 새 신자를 위한 목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새 신자 위원회의 필요성과 새신자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위원회 구성을 전 교회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도록 하였다.

둘째, 변화의 단계이다. 변화의 단계는 실질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사용할 이론은 소그룹이론(Theory of Small Group)이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소그룹은 교육을 위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학습형 그룹의 기본 목표는 구성원들의 변화이다. 학습형 그룹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관점, 느낌, 태도, 가치, 인식, 관계, 기술, 지식, 신앙 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기대들을 그룹 안에서 풀어놓음(보따리 풀기)으로 구성원들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자신들을 그룹 내에 투자하게 된다.

따라서 본 교회에서는 새 신자 위원회를 훈련하고 또 운영함에 있어서 학습형 소그룹으로 운영하였다. 새 신자들을 위한 목회자의 비전을 모든 위원회의 사람들이 공감하도록 하였고 변화에 대하여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여러 교회를 방문하여 본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토의함으로 변화의 단계를 이루고자 하였다.

셋째는 재 동결 단계이다. 재 동결 단계는 모든 교인이 새롭게 변화된 현실을 인식하고 동참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사용할 변화 이론은 합리적인 계획을 통한 변화 이론(Rational Planning Theory)이다. 합리적 계획을 통한 변화 이론은 변화단계에서 얻게된 지식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명기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수긍하고 그대로 실천하여 변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본 교회에서는 변화 단계에서 실천했던 내용들을 점검하고 세부적이 사항을 모두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새 신자 위원회와 각 선교회에서 규범화 시켰다. 본 교회의 어느 교인들이 보아도 새 신자 위원회를 통한 새 신자를 위한 목회와 방향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 새신자를 위한 목회의 실행

본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 신자를 등록에서부터 철저하게 돕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 함으로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새 신자들 위한 목회가 필요함을 교인들이 깨닫게 해야 한다. 아울러 목장을 조직하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교인들이

깨닫게 하여야 한다.

1) 설교를 통한 비전제시

본인이 새 신자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었음을 시인하고 온 교우들이 새 신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였다. 목회자의 본인이 목자 훈련에 대한 헌신이 부족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목회자로서 집회와 외부 활동으로 인하여 교회를 많이 비웠는데 목자를 위한 훈련을 위해 6 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헌신한다. 매월 첫 주일 오후에 지도자들과 만나 지속적인 교육과 목장 활동의 상황을 점검을 실시한다. 목장의 활성화에 대한 도서를 구입하여 연구한다.

2) 목자 위원회 구성

목자들 훈련을 하기 위하여 부 교역자들과 모임을 갖는다. 부교역자들에게 목회자의 비전을 설명하고 그 비전에 대한 임무를 맡기므로 함께 이상적인 교회를 만든다. 목자들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장을 재 구성한다. 목장을 새로운 기분과 헌신을 강조한다.

3) 목자 훈련을 위한 지도자 반 개설

본 교회에 오래 다니던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직분자로 삼았던 것이 교회 활성화에 저해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 되었다고 하면서 사역을 하지 안으로 유명 무실한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자의 은사를 중심으로 구역장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택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여 목자가 되도록 훈련시킨다.

(1) 지도자반 운영방침

구역 모임을 위한 시간으로 오후 예배를 대체하도록 설문지를 작성하여 가부를 묻는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헌신예배나 특별 집회로 오후 예배 시간을 갖는다. 목장의 이름을 그 목원들의 재량으로 하도록 한다.

(2) 목자의 임무와 조직

목원들의 영적 상황을 점검하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목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훈련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가는 것 못지않게 이들을 관리하고 돕는 것은 담임목사의 몫이다. 담임목사님은 여러 가지 목회의 일로 분주하고 바쁘겠지만 목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이 시간을 통해 목자들과 영적 교감을 가지고 사역의 비전을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한다. 목자들을 지역적으로나 사역, 관계를 중심으로 5-10명 규모의 소그룹으로 엮어주고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리더를 세워 주게 되면 평신도 지도자로서 오랜 경험과 지혜를 새롭게 사역에 뛰어든 목자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위치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목자라는 이름을 부여하게 된다. 목자 10명 이상을 돌 볼 수 있는 사람을 초원지기라 하고 이들이 5명이상 세워지게 되면 이들을 돌볼 수 있는 평원지기라 한다.

목자반 전체의 원활한 사역을 위해 자체 조직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400명의 성인이 출석하는 교회라면 40-50여개의 소그룹이 운영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40-50 명의 목자 이 필요하다고 이를 묶어주는 10-11명 정도의 초원지기들이 있는 조직이면 될 것이다. 그리하면 이러한 초원지기들과 목자들을 책임지고 훈련하는 것도 담임목사 혼자서 가능할 것이다. 목자는 목장을 인도하는 소그룹 지도자로서 작은 목회의 역할을 감당한다. 목자는 말씀으로 목장(소그룹 구성원)을 양육하며 목원의 문제를 상담해주며 필요를 따라 돕는 일을 감당한다. 특별히 목원에게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가족과 같은 위치에서 돕게 된다.

(3) 초원지기의 역할

초원지기는 7-8명의 목자를 목장 별로 관리하는 동시에 자신도 목자로서 소그룹 하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말한다. 지역담당 교역자와 긴밀한 관계를 기지면서 목자의 상황, 목장을 조정 분가 하는 등을 의논하며 결정한다.

평원지기는 목장 별로 10-12명의 초원지기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평원지기는 초원지기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돌보고 교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담임 목회자에게 전달한다. 담임 교역자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조직과는 별도로 성도들의 다양한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목장을 담당하는 교역자는 초원지기나 목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게 된다. 평원지기는 담임 교역자와는 다른 측면에서 목자들을 돕게 된다. 목양사역과 관련된 내용은 담당 교역자 –

평원지기 – 초원지기 - 목자들로 교회의 축이 형성되고, 연락체계가 구축된다.

소그룹 지도자인 목자들을 돌보는 사역은 목회의 핵심에 해당한다. 이들에 의해 교회의 분위기가 결정되고 이들의 모델을 모면서 성도들이 따라간다. 목회자는 이들과 더불어 살고 이들과 더불어 죽게 된다. 평신도를 깨워 동역자로 삼았다고 목회자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이들을 세워가며 이들이 잘 사역하도록 돕는 중요한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 사역은 평신도가 리더십은 목회자가 잘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4) 목자 수급

각 소그룹에 목자들을 파송하는 일은 까다롭고도 중요한 사역이다. 휴가 기간은 각 소그룹의 상황을 파악하며 조정하는 중요한 기간이다. 휴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목자들로부터 그 동안 섬기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교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 숫자가 늘어나 분가해야 할 소그룹, 다른 소그룹으로 사역지를 옮기고 싶은 목자, 같은 목자가 인도한지 2년 이상 된 소그룹, 갈등이 있거나 침체되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소그룹 등 목자들의 의견을 받아 휴가 기간 동안 목장 조정작업을 한다.

그래서 목자들이 한 소그룹을 2년 이상 맡았는데도 번식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다른 소그룹으로 목자들을 옮겨주게 된다. 목원들이 늘어나지도 않고 같은 목장 목원들과 더불어 한 소그룹에 2년 이상 지내게 된다면 목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목원들도 그 목자를 지겨워할 수 있다.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번식하게 하는데 번식되지 않으면 일단은 목자들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2년 이상 한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의 경우에는 목장을 옮겨주어도 되겠는지, 아니면 목원들이 아직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양육의 시간이 더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조정을 결정한다. 그러나 소그룹이 성장하고 번식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목자들을 이동시킬 필요가 없다. 새신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자라나 목자로 파송되면 목원들이 자연스럽게 교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번식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소그룹의 발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그룹이 번식하게 되면 가능한 한 새로운 소그룹을 맡게 된다.

소그룹이 분리되어 번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무리 모임을 의미 있게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치 결혼해서 한 가정이 생기는 것과 같이 즐겁게 축복해주며 떠나보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번식이나 목자의 이동은 목자들이 제출한 앙케이트와 담임 교역자가 충분히 기도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목자로 파송을 받게 되면 담임 교역자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도록 한다.

(5) 번식의 기준

번식의 기준은 가정 혹은 남자 여자로 나눌 경우 조금씩은 달라진다. 소그룹이 가장 이상적으로 모일 수 있는 숫자는 대략 5-10명이라고 본다. 차량 1-2대로 움직일 수 있고,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도 풍성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목원이 12명 정도 되면 4-6명씩 나눠서 번식하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는 새롭게 소그룹을 개척하기 위해서 6명되는 소그룹을 3명씩 나누기도 한다. 교역자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소그룹을 운영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6) 목자들이 보고해야 할 문서

목자들이 자신이 이끌고 있는 소그룹에 대해서 목회자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소그룹에 참석하고 있는 목원들의 영적 상황, 기도제목, 돌봐주어야 할 중요한 이슈들을 목회자와 더불어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복잡하면 좋지 않다. 새로 참석한 사람들과 결석자들, 유고자들의 상황을 모두 기록하게 한다.

그래서 매주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정교회 360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지난 한 주간 목원들의 상황을 기록할 수 있음으로 목원들의 삶을 담임 목회자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초원지기들이 목자들에게 목원들의 기도제목을 파악해달라고 부탁함으로 목원들의 영적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도 한다. 담임목사가 목자들의 영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목자 자기 점검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목자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기도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전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목자의 인도 하에 소그룹으로 모임을 가질 때 함께 점검해가도록 하고 반드시 담임목사가 알아야 할 상황에 대해서만 담임 목사에게 보고되도록 하는 시스템도 좋다.

(7) 목자반 운영

목자반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된다. 무엇보다도 목자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도록 돕기 위해서, 매주 이끌어가는 소그룹을 잘 인도하도록 지침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목자반이 운영된다. 목자반 시간은 소그룹을 이끌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되지만 목자 자신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자반을 이끄는 목회자(담임목사)는 목회의 동역자로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목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특별히 준비해야 한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준이상으로 지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이단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상담과 같이 전문적인 사역의 지혜를 제공해야 한다.

목자반에서는 일반 예배에서 얻을 수 없는 강력한 영적 경험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목자들의 긴급기도제목과 교회의 중요한 기도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본 교회에서는 15분 정도의 찬양과 이어지는 45분정도의 기도회를 통해 담임목사와 목자들이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며 영적으로 재충전되도록 한다. 또한 목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의 리더십을 책임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목자반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목자 사역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2-3년에 한번 씩은 소그룹 인도법이나 귀납적 성경연구방법,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 상담과 같은 주제를 다루어 줌으로써 목자로서 필요한 소양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재 교육해야 한다.

(8) 바나바 반의 목자와 목원

바나바 반이란 목자 사역을 감당하다가 몸이 아프거나 사정상 쉬고 있는 목자들의 모임이다. 가장 유능한 목자들을 이곳에 배치해서 그들을 돌보고 있다. 바나바 반의 유익은 쉬는 목자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소극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목자들을 통해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되도록 한다는데 있다. 또한 쉬고 있는 목자들이 지역 소그룹에 목원으로 출석할 경우 목자들이 갖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유익도 있다.

(9) 목자 수련회

해마다 12월말과 1월초에는 겨울방학을 가지고 7, 8월에는 여름휴가를 갖는다. 이러한 휴가체계는 농촌지역에서는 농번기에 맞추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매 휴가철이 지나 사역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직전에는 목자 수련회를 개최한다. 1월말에 열리는 목자 수련회는 상담에 관한 세미나나 영성 훈련을 위한 세미나가 주를 이룬다. 8월 말에 있는 하반기 목자 수련회는 휴가 중에 흐트러진 영적 분위기를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초점을 맞춘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흥회 형식의 세미나를 하게 된다. 이러한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 재충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대 각성 전도집회와 같이 소그룹을 중심으로 전교회 성도가 역량을 모아서 치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4) 목자 선정

본 교회에서의 목자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는 제직으로 목자 교육을 받은 자, 둘째는 기도와 말씀 연구에 앞장서는 자, 셋째는 교우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진 자, 넷째는 순종을 잘하는 자이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발하였다.

(1) 은사 테스트

목적 : 제직 중심으로 실시하여 은사를 발견하도록 한다.

홍보 : 일 개월 전부터 은사 발견 쎄미나를 위한 기도회 모임

강사 : 우 수명목사(랄리 한인교회 담임)

일시 : 2002년 10월 7-11일

참가자격: 제직들 전원

은사 테스트를 쎄미나를 마치고 1달 정도 목자 교육의 중요성을 설교 시에 강조하고 예비 목자들을 모집하여 12주를 훈련을 시킨다.

(2) 목자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의 주제 : 목자의 역할과 가족 같은 교회 전도의 사명에 대하여 제직들에게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게 할 것

홍보: 1개월

강사: 담임목사(필자)

교육기간 12주

참가자격: 전 제직

신청접수 기간: 2011년 8월 1-31까지

개강예배 : 2011년 9월 1일

(3) 전도를 위한 쎄미나 개최

강사: 김기홍 장로

일시: 2012년 2월 28일- 3월 2일

대상: 전 교인

(4) 새 신자 목회 프로그램 결정

새 신자 위원회 위원들은 그 동안 조사와 세미나, 다른 교회 탐방을 토대로 2002년 11월 11일과 18일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본 교회 새 신자 실에 모여 새 신자 목회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새 신자들을 위한 목회 활동은 처음 교회 출석하여 등록하는 첫 날이 교회의 신선한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새 신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 신자 위원회의 영접팀은 주로 등록하는 당일에 집중되며 안내위원으로서 새로 나온 사람을 파악하여 친절히 안내하며 옆자리에 앉아 찬송과 성경을 찾아주고 예배를 돕고 예배 후에 담임목사를 만나도록 인도하며 사진 촬영을 한다. 새 신자 환영 판에 부착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환영하는 행사를 준비한다.

행사팀은 새 신자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담임목사님의 설교 테잎과 교회 수첩과 작은 선물을 증정한다. 새 신자 성경공부를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거행하고 온 교우들의 관심 속에서 환영을 하게 한다. 관리팀은 새 신자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구역 배정과 교적부를 작성 한다. 이상이 생기면 교구와 기관에서 적절히 대처하게 한다.

양육팀은 새 신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4번에 걸쳐 교회 생활을 안내하고 교회를

소개 한다. 첫 주 방문에는 본 교회의 역사와 비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소개하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본 교회 시설과 기관을 소개하고 각종 양육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세번째 만남에서는 교회 생활의 예절과 절기 소개를 하고 기독교적 관혼 상제와 심방에 대하여 소개한다. 네번째 만남에서는 목자 역할과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5) 새 신자 위원회 헌신 예배

2011년 12월 3일 주일 찬양 예배 때에 새 신자 위원회의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새 신자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새 신자 위원회는 새로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새 신자들이 본 교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고 교인들의 박수를 받았다. 아울러 2011년 새 신자들이 등록을 하면 정착율 90%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6) 기타 실천 사항들

a) 새신자실 단장

본 교회는 새 신자를 영접하과 환영하며 공부를 함께할 시설이 없었다. 새 신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새 신자 실을 만들고 단장하였다

b) 새 신자 환영회

새 신자 위원회의 행사 팀이 중심이 되어 2011년 1월 26일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새 신자 환영회를 가졌다. 관리팀은 새 신자들에게 연락하여 환영회를 알리고 참석을 독려하고 아름다운 초청 카-드를 발송했다. 순서는 담임 목사의 간단한 설교와 환영사, 새 신자 위원회의 환영 축가를 불러주고 새 신자들을 목자들과 함께 나오게 하여 목자가 소개하고 기념품을 선물로 주었다

c) 전도 간증집회

본 교회의 지난 해 추수감사주일은 11월 20일이다. 이 절기에 교회 전체가 축제의 분위기로 이끌고 서울의 김일권목사(장애인교회)를 초청하여 세 신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리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며 주변의 장애인을 초청

하여 새 신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을 전하도록 하였다.

d) 목장별 찬양대회

본 교회 모든 기관과 목장들이 함께 하나님께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새 신자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각 목장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찬양하도록 한다.

e) 규범화

2011년 12월 4일 헌신예배를 드리고 새 신자실에서 새 신자 위원회의 세부 규칙 및 규범을 문서화 하였다. 새신자의 조직 부서에 대하여는 부록에 첨가한다.

Ⅶ. 프로젝트의 실행 평가

1. 필자의 평가

2011년 11월 20-23일까지 새신자들의 헌신을 위한 부흥회를 갖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으로 일단 평가를 하고자 한다. 오해에 등록한 수는 65명으로 40 가정이 등록을 했다. 꾸준히 나온 사람은 35명으로 52%의 출석율로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새 신자 위원회가 발족한 후에 25%의 정착율이 배나 증가되는 것을 보면 세 신자 위원회의 활동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새 신자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본 교회의 전반적으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기존 교인들이 새 신자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존 교인들의 기쁨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새 신자가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중한 것인가를 전 교인들이 함께 느끼게 되었고 더불어 새 신자 위원회의 위원들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볼 때 양육하고 보살피는 것이 아직은 미숙한 점도 있었지만 앞으로 지속되어갈 때 본 교회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평가 되었다

2. 당회원들의 평가

2011년 9월 4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새신자 실에서 필자의 사회로 당회원들이 모여 그 동안 새 신자 위원회 활동 상황을 평가 하였다. 당회원들은 새 신자 위원회가 발족된 후 교회가 활성화 되어 성도들의 교회에 오는 태도가 활기차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어 새 신자들이 예배에 대하여 배우고 교회를 소개 받는 다는 사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한가지 조금 더 관심을 기우려야 할 것은 새신자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새 신자 위원회는 새 신자들의 주일 예배 출, 결석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소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교회 정착에 도움

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가졌다. 이것은 새 신자 위원회의 임무에 새롭게 추가하여 양육에 관심으로 가져야 할 것으로 평가 되었다

3. 새 신자 위원회 회원들의 평가

새 신자 위원회는 2011년 9월 11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새 신자실에서 위원회 30명 중 25명 출석하여 그 동안의 활동과 새 신자 목회 사역에 대한 평가 회를 가졌다. 이 평가회는 담임목사인 필자가 사회를 맡았다. 위원장 김 주열 장로의 기도로 시작하여 각 부장의 사업보고와 전 위원들의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그 동안 활동을 통하여 느낀 점을 발표하게 하였다. 위원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교회의 성장에 활력을 불어 넣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10분전에 함께 들어옴으로 새 신자를 파악하기에 다소 힘들었다고 하며 영접부가 새 신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우리기 위해 인도하는 교인들은 영접부원에게 등록과 소개를 하여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영접부원들에게 명찰을 하여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 잘 되지는 않았으나 비교적 잘 되었다고 평가했다.

행사부는 환영회를 계획함에 있어서 새 신자들이 어떤 사람이지 분명히 파악하고 새 신자들을 효과적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까지 하였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육부에서는 교회가 교실이 협소하여 성경공부 시간에 학생부들이나 유년부들이 수시로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하여 교회에서 시간 조정을 잘하여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기우려야 할 것을 건의했다.

미흡한 점으로는 일대일로 한 주에 한번 이상 전화 심방이나 만남이 있기로 하였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것은 새 신자들이 만남이나 심방을 꺼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관리부는 새 신자 사진을 게시판에만 붙여 놓는데 사진을 현상한 후에 새 신자 본인에게도 액자에 넣어 기념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도 있었다.

4. 교인들의 평가

2011년 9월 25일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에서 총 215명이 응답을 하였는데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하고 반갑게 대하는 지에 대하여는 많은 교인들이 전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새 신자 위원회의 위원들이 각 선교회의 임원들과 중복되는 사람이 있어 각 부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 신자 위원회가 발족되고 난 후에 교회의 분위기는 새 신자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지게 되었고 각자가 전도에 힘을 써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짐이 되었다고 하며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5. 배운 점

프로젝트의 실행으로 배운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교회에서 새 신자 목회가 활성화 되는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그리고 사용하던 교재들도 선교 단체에서 사용하던 것들이었다. 선교 단체가 아닌 교회에서 교회의 봉사와 헌신에 관한 교재가 적어 담임 목회자가 직접 교회론에 입각한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둘째 위원회의 업무 수행이 잘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들에게 맡겨 놓고 점검을 안 하였을 때 행사는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다. 잘 실천되리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적절하게 조언과 격려를 하며 주기적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셋째 평신도들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그들에게 믿음에 진보가 되며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뜨거운 열정과 헌신에 참여하는 것을 보며 지난 29년의 목회가 부끄러워졌다. 앞으로 계속하여 평신도를 목회의 동역자로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이번에 일년 기간이 짧아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계속 교제에 관심을 갖고 새 신자들이 기쁨으로 공부에 참여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전 교인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Ⅷ. 결론

본 논문에서 새 신자가 교회에 정착하여 교회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본 교회의 새 신자 정착율이 25%였던 것이 52%로 높아지고 새 신자들이 꾸준하게 출석하고 있는 것을 본다. 또한 평신도를 교회의 사역자로 훈련시켜서 목회에 동참시킴으로 교회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있었다.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하는 중요한 요인은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고 있음을 교인들에게 인식하게 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활력소를 얻게 된 것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함으로 교인들에게 자부심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교인들이나 목회자나 마음에 감격이 있게 되며 새 신자들에게 새로운 삶과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번 새 가족 위원회 운영과 목자 교육반을 운영함으로 교회의 분위기가 새로워졌다. 새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교인들 모두가 활력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당회원 중에 한 사람은 목회자의 목회를 함께 참여하여 교회를 활성화하게 만든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함께 교회의 문제를 염려하며 지혜를 얻어 교회를 활성화 시키고 부흥시킨다는 것이 당회원들과 제직들에게는 대단한 기쁨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통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느끼며 뉴욕 신학교에 감사를 드린다.

이민을 온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여 주며 이민 온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도록 삶에 기쁨으로 주는 것이 굉장한 것이었다.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교회에서 활동을 하며 하루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보람이었다고 성도들은 입을 모았다. 자신들이 새오 나온 가족들에게 교회 생활에 의미를 주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 너무 좋다고 고백하였다.

이 논문을 마치면서 필자에게 새로운 의미가 있다. 새 가족들이 교회에 정착

하는 중요한 요인은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고 있음을 교인들에게 인식하게 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활력소를 얻게 된 것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함으로 교인들에게 자부심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교인들이나 목회자나 마음에 감격이 있게 되며 새 신자들에게 새로운 삶과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회는 새로 나오는 신자들을 가족과 같이 반겨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재 생산할 수 있는 교인으로 그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깨달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 활동적인 교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성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울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즉 지체의식을 갖는 공동체" (고전12:12-27) 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공동체 즉 자라는 공동체" (에베소서4:1-16)로, 정의하며 이상적인 교회상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과 동일시하는 신앙고백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적인 헌신의 삶을 위해 협동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브리서 13:1-2)라는 교훈을 받았다. 로마서 14:1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14에서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양육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 성도들은 새 가족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여야 함과 교육을 통하여 함께 교회를 활성화시켜나가는 것을 교회의 본질이라 본다.

Appendix

본교회 새신자부 조직

1. 위원장: 장로로서 담임 목사의 지시 하에 새 신자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총관한다.
2. 서기: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록을 기록하고 관리하며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3. 회계: 예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부서: 영접부, 행사부, 관리부 양육부를 둔다

가) 영접부

1. 새 신자를 영접한다
2. 새 신자 좌석으로 안내 한다.
3. 등록카드를 작성한다.
4. 예배 후 담임목사와 면담을 주선한다.
5. 함께 식사를 한다
6. 담임목사와 사진 촬영을 하도록 돕는다
7. 게시판에 사진을 부착한다
8. 새 신자 인적 사항과 출석표를 기재한다

나) 행사부

1. 새 신자 성경 공부 후 수료식을 준비한다
2. 한 달에 한번씩 있을 환영예배를 준비한다.
3. 수료식과 환영회에 참석할 제직과 강사를 교섭한다
4. 특별 순서를 담당한 사람들을 준비한다.
5. 프로그램이 지루하지 않도록 준비한다.
6. 행사의 다과와 음식을 준비한다

다) 관리부

1. 새 신자의 목장을 배정한다
2. 등록 이사 교적 변경 등을 조치한다
3. 목회서신을 발송한다
4. 12주 환영의 편지를 발송한다

라) 양육부

1. 4주간에 걸친 새 신자양육 성경공부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숙지한다

2. 결석한 경우 전화와 만남을 통하여 참여를 권유한다.

3. 교육 과정 후 구역과 선교회에 연락하여 연결한다.

4. 담임목사와 함께 성경 공부할 날 자를 약속한다

5. 새 신자의 은사를 살펴서 봉사할 부서를 추천한다.

6. 새 신자가 완전한 정착을 하도록 날마다 기도한다.

BIBLIOGRAPHY

1. 외국서적

Aleshire, D. O. *Faith Car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3.

Arnold, J. Heinrich. *공동체 제자도*.. 쉴터 편집부 역. 서울: 도서출판 쉴터, 1997.

Beckham, William A. *제2의 종교개혁*.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NCD, 2000.

Boice, James M. *Foundations of the Christian Faith*. Downers Grove, Ill.: Inter Varsity Press, 1986.

Bondi, R. *Leading God's People*. Nashville, Tennessee: Abingdon Press. 1989.

Bonhoeffer, Dietrich.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Brickman, Leslie H. *셀교회와 자연적 교회 성장*. 편집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4.

Brueggemann, W. *The Prophetic Imagination*. Fortress Press. 1989.

Callahan, K. L. *Twelve Keys to an Effective Church*.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Publishers, 1983.

Clowney, Edmund P. *교회*, 황영철 역. 서울: IVP, 1999.

Comiskey, Joel *셀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0.

Dudley, C. S. *Building Effective Ministry.*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Publishers, 1983.

Dulles, A. *Models of the Church*. 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Inc., 1974.

Foster, Richard J.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0.

Fowler, J. W. *Stages of Faith*. Harper San Francisco: A Division of Harper Collins Publishers, 1981.

_______. *Becoming Adult, Becoming Christian.*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4.

Geitz, E. R. *Entertaining Angels*. Harrisburg, PA: Morehouse Publishing, 1992.

Gonzalez, Justo L. *기독교사상사(Ⅲ)*.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국, 1990.

Hanks, Billie and William A. Shell. *제자훈련*. 박광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5.

Haroutunian, J. *God with US: A Theology of Transpersonal Lif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5.

Hawkins, *T. R. Building God's people*. Nashville: Discipleship Resources, 1990.

Hodgson, P. C. *Revisioning The Church*. Fortress Press, 1988.

Hoekendijk, J. C. *흩어지는 교회*. 이규준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6.

Holmes, V. T. *Sprituality for Ministry*.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2.

Koenig, John. *New Testament Hospitality*. Philadelphia: Fortress, 1985.

Kuhne, G. W. *The Dynamics of Discipleship Training*.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0.

Küng, Hans. *The Church.* Garden City, New York: A Division of Doubleday & Company Inc., 1986.

________.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 이종한 역. 경북: 분도출판사, 2005.

Leech, K. *Spirituality and Pastoral Care*. Massachusetts: Cowley Publications, 1989.

Lindsay, Thomas M. *종교개혁사 Ⅱ*.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0.

Litwin, G.H. & Stringer R.A. JR.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Climate*. Boston: Harvard University, 1986.

Lloyd-Jones, D. M. *성령세례*. 정원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McGavran, Donald A. *교회성장 이해*. 전재옥 김요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________. *하나님의 선교 전략*. 이광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3.

Miller, Donald G. *교회본질과 사명*. 박상중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71.

Minear, P. *Images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7.

Minea, P. S. *The Idea of Church.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I.* 1962.

Moltman, J.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Translated by Margaret Kohl. London: SCM Press, 1977.

Moore, Waylon B.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정학봉 역. 서울: 요르단 출판사, 1979.

Neighbour, Ralph W. Jr. *셀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NCD, 2000.

________. *셀목회 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서로사랑, 2000.

________. *셀인턴 지침서.* 터치코리아사역팀 역. 서울: NCD, 2001.

Nicholas, Ron외 4인.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1989.

Niebuhr, Reinhold.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병섭 역. 서울: 현대사상사, 1994.

Pink, A. W. *영적인 성장.* 홍병창 역. 서울: 엠마오, 1986.

Pentecost, J. D. *Pattern for Maturity*. Chicago: Moody Press, 1967.

Perrow, C. B. *Organizational Analysis: A Sociological View*. Monterey, California: Cole Publishing Company, 1970.

Raitt, Jill & Bernard McGinn. *기독교영성II.* 이후정 엄성옥 지형은 역. 서울: 은성, 1999.

Reid, Clyde.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전요섭 역. 서울: 쿰란출판사, 1996.

Robinson, J. A. T. *The Body*. London: SCM Press LTD, 1957.

Russell, L. M. *Household of Freedom.*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________. *Growth in Partnership.* Philadelphia, Pennsylvan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________. *기독교 교육의 새 전망.*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Sanders, J. Oswald. *영의 지도.*. 박훈용 역. 서울: 보이스사, 1985.

Spitz, Lewis W. *종교개혁사.* 서영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Wagner, C. Peter. *제 3의 바람.* 정운교 역. 서울: 나눔터, 1993.

________. *성령의 은사와 교회 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________. *효과적인 교회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________. *교회 성장 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Walker, Williston. *기독교회사.* 류영기 역.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86.

Watson, Davids.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4.

Whitehead, J. D. & Whitehead E. E. *Method in Ministry*.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80.

William, W. H. *Worship as Pastoral Care*. Nashville: The Parthenon Press, 1980.

Worley, R. C. *Preaching and Teaching in the Earliest Church.* Philadelphia, Pennsylvan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________. *Change in the Church*. Philadelphia, Pennsylvania: The Westminster Press, 1971.

________. *Dry Bone Breathe!* Chicago, Illinois: The Center for The Study of Church Organization Behavior, 1978.

________. *A Gathering of Strangers.* Philadelphia, Pennsylvan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2. 한국어 서적과 번역 서적

김성욱. *하나님의 백성과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8.

김소영. *현대 예배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김원태. *교회의 교육적 사명.* 서울: 종로서적, 1987.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 2001.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서울: 기독교서회, 1980.

박용규. *한국 교회를 깨우는 복음주의 운동*. 서울: 두란노, 1998.

박종순. *전도, 하면 된다*. 서울: 홍성사, 1993.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1.

오성춘.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9.

오인탁 외 공저. *기독교 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4.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 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1993.

이연길. *소그룹 성경공부*. 서울: 총회출판국, 1989.

이용남. *새신자 목회*. 서울: 도서출판 그린, 1992.

이장식. *평신도는 누구인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________. *현대교회학*. 서울: 기독교서회, 1990.

이종성. *교회론 I*.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________. *Calvin*. 서울: 기독교서회, 1978.

정연석. *교육심리학*. 서울: 제동문화사, 1984.

정장복. *예배학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7.

둘레스, A. S. *교회의 모델*. 김기철 역. 서울: 조명문화사, 1998.

리이드, 클라이드. *교회성장의 비결*. 고용수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78.

맥쿼리, J. *영생에의 길*. 장기천 역. 서울: 전망사, 1986.

몰트만, J.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랑 외 4인 공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0.

베버, 오토. *칼 바르트의 교회교의학*. 김광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보프, 레오나르도.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 김쾌상 역. 서울: 성요셉출판사. 1987.

본디, 리차드. *목회와 지도력*. 하해룡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스티어, 버지니아. *피플 메이킹 - 현대인을 위한 인간개조*. 배영자 역. 서울: 보이스사, 1979.

엥겔, J. F. *목회환경 조사론*. 박영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워리, 로버트.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 활성화 방안*. 강형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________. *다원화 사회와 목회*. 황화자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국, 1992.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7.

주성훈. *셀교회 경험을 통한 교회 회복의 실체*. 서울: 도서출판 NCD, 2005.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판, 2007.

편집부 편. *기독교대백과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89.

편집부 편. *성서백과대사전*.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황승용.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